

정병조(前 금강대 총장)
미래 한국 이끄는 희망
불교 속에 '답' 있다
6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월 8일) · 주간

제1033호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자기중심적 생각은 덧없다
덧없는 생각을 끊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안락하리라.

불교학계 디지털화 'JAMS' 놓고 고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학회운영 투명화 vs 편집기능 약화 갈등 의견 양분

학계가 디지털화를 화두로 변화하는 가운데 불교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잼스'(JAMS,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가 있다. 최근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와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학회지 투고논문를 '잼스'를 통해 받는다고 공고했다.

'잼스'는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이 2013년부터 학회 운영 전산화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학회 홈페이지부터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일정, 회원 관리 등을 통합한 것이다. 논문투고 및 심사, 전자출판, 그리고 학술진흥재단 쪽으로의 학술정보 제공까지의 학회 행정업무가 일원화되어 있다. 학술진흥재단은 권장사항으로 서버와 홈페이지 등 이 시스템을 현재 무상보급하며 학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현철 학진 학술기반진흥팀 팀장은 "잼스 도입은 학회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서류관리를 전산상으로 하여 비밀보장에 유리하며, 학회 운영이 투명화된다"고 장점을 말했다.

잼스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신규탁 한국선학회장은 "학회 평가에도 일정부분 이점이 있다"며 "논문유사도 검사도 학진DB와 연동해 자동으로 진행되며 심사과정도 투고자가 명확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학회장은 "논문투고 시에도 그동안에는 운영진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마감시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잼스를 이용하면 이런 부분이 차단되는 등 운영이 체계화된다"고 말했다.

이런 장점에 2013년과 2014년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 학회는 370곳, 신청학회가 200여 곳을 넘어섰다. 올해까지 600여 곳이 이 시스템을 운용한다.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학회 2100곳 기준 30% 수준으로 올해부터는 일반학회도 신청을 받기에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하지만 불교학계에서는 등재지 학회 12 곳 중 한국선학회와 불교학연구회 만이 이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유는 잼스가 지닌 여러 장점에도 편집기능 저하와 학회 운영이 공개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영섭 한국불교학회 편집이사는 "모든 것이 전산화돼 기계적으로 진행된다. 가령 학진에서 제시하는 논문 게재 분량 60%를 초과하면 기존 운영방식에서는 조정을 해 맞추지만, 잼스에서는 뺄 수밖에 없다. 학회지 기능 중 편집기능은 심사위원 선정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고 지적했다.

회원관리 · 논문심사 한번에 무료보급에도 불교계 2곳만 장단점 극명, 학계 고심 중

이밖에 심사를 위해서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해 심사가 번거로운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불교계 학회들은 잼스 도입을 고민중에 있다.

한 불교학자는 "잼스 도입 이면에는 한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학회 외에도 여러 학회에 적을 올리는 관행을 막기 위함이 있다"며 "전산화를 통해 학진이 회원수가 중복보고된 부분을 파악할 것이다. 결국 학진이 노리는 것은 실질적인 학회 운영, 참여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잼스를 도입한 불교학연구회는 불교학계 최초로 학회지를 전자저널로 전환했다. 불교학연구회의 〈불교학연구〉는 전자책(ebook)과 PDF파일 두 가지 형태로 간행되며, 회원들에게 이메일 형태로 발송한다. **노덕현 기자**



2015년 JAMS 시스템으로 개편한 불교학연구회 홈페이지.



봄소식… 범어사에 활짝핀 홍매화

남쪽으로 봄은 일찍 찾아온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남도 사찰이다. 사찰에 있는 매화는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중국 시경(詩經)에는 '매경한고 발청향(梅經寒苦 發淸香)'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매화는 혹독한 추위의 고통을 이겨내야 맑은 향기를 풍긴다는 뜻'이다. 어깨가 움츠리게 만들었던 한겨울을 이겨내고 한껏 꽃망울을 피어내는 매화는 고고한 멋을 보여준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피어난 인생의 결실은 어떠한 것보다 의미가 있다. 2월에 찾은 범어사에는 이른 봄을 알리는 매화가 벌써부터 피어났다. 봄은 벌써 꽃을 타고 성큼 다가왔다. **글=신성민 기자**

조계종, 불교음악 육성 나선다

11일 '불교음악원 설치 및 운영' 종령 입법예고

사무국 봉은사에 설치

조계종이 불교음악을 전승하고 보급하기 위한 '불교음악원'을 설립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2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불교음악원은 불교음악의 진흥 및 전승, 교육, 학술연구, 교류, 창작, 보급, 선양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불교음악원은 교육과정으로 △불교음악 최고위 과정 △불교음악 지도자과정 △찬불가 최고위 과정 △기타 불교음악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임기 2년의 불교음악원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위촉하며 사무국은 서울 봉은사에 설치한다. 불교음악원은 봉은사의 국악합주단 창단을 계기로 종단 차원의 기구로 설립하게 됐다. 봉은사에 이어 조계종 주요 사찰에서도 국악합주단 등 불교음악단체를 잇따라 설립해 불교음악의 발전과 대중화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금과 피리 등 10가지 악기가 협연을 펼치게 될 봉은사 국악합주단은 봉은사 각종 법회에서 영산회상을 비롯해 전통불교음악, 예불의식음악, 찬불가 등 다양한 불교음악을 연주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1033호 INDEX

기획특집 5
불교TV 개국 20년 역사와 미래



불자들 4
위덕대 스리랑카인 박사 시라라다나 스님



해인총림 방장 선출 경선 체제로 가나

대원 · 원각 스님으로 압축… 3월 7일 산중총회



대원 스님



원각 스님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3월 7일로 예고된 가운데 새로운 방장 선출을 위한 문중 간 움직임이 빨라졌다. 현재 해인사 서당 대원 스님과 유나 원각 스님이 방장 후보로 추대돼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인사는 2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9대 해인총림 방장 후보 학산 대원 대종사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음을 알렸다. 이날 모임에는 62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추천위원장으로 해인총림수좌 원융 스님, 동당 세민 스님, 율주 종진 스님이 선임됐다. 또한 2월 23일에는 대원 스님 방장 추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세민 스님은 "해인총림의 수행승풍을 진작하고 원융화합의 정신을 구현할 방장으로 대원 스님을 추천한다"고 밝혔고, 율주 종진 스님은 "청정한 승풍을 진작할 후보로 대원 스님을 추천하며 9대 해인총림 방장을 추대함에 있어서 반불교적 비승가적인 중상모략의 모습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인 위원들은 총림의 화합을 위해 모든 사중의 대중이 만장일치의 추대 형식으로 최고 어른을 모셔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로운 해인총림 해인사의 방장을 모시는 과정은 순탄치 않아보인다. 이미 해인사 홍제암을 비롯한 6대 암자 대표들은 법전 대종사 49재 직후인 2월 9일 원당암에서 모임을 갖고 '해인총림 제9대 방장추천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당시 6대 문중 대표들은 유나 소임을 맡고 있는 원각 스님을 후보로 추대키로 결의했다. 6대 문중 측의 방장추천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원학, 여연, 향적 스님을 만장일치로 이름을 올렸다.

해인사 서당 대원 스님은 상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를 역임했다. 2013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된 스님은 현재 고암문도회 회주와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을 맡고 있다.

해인사 유나 원각 스님은 1967년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해인사, 극락암, 송광사, 상원사, 범어사, 불국사, 상무주암 등 전국 선원에서 정진을 해온 수행자이다. 2003년부터 해인사 유나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호선 봉은사역에 딴죽거는 개신교

장로교총聯 등 역명 제고 성명… "문화유적 아니다"

3월 28일 개통하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5개 역 중 봉은사역 명칭을 두고 개신교가 반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11일 '서울시는 봉은사 역명 제정을 재고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불교인이 아니라면 코엑스가 훨씬 귀에 익은 명칭이고, 외국인들에게도 코엑스 역이 자연스러운 역명이라 할 수 있다"며 "봉은사를 불국사와 같은 대표적 문화 유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사자인 교회들의 성명에 봉은사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역시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교회들의 반발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봉은사는 강남이 허허벌판이었던 시대부터 1200년을 지켜온 고찰"이라며 "현재 강남이 있기까지 봉은사가 가진 역사성은 매우 크다. 전통문화의 측면에서 이를 바라봐야지 단순히 종교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디자인 등록원

현불샵이 추천하는 명품청동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선학원 설립 취지 복원해야 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선학원 특위 성명 발표… 법등 스님 위원장

조계종 중앙종회 선학원종단회수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주경, 이하 선학원 특위)가 “선학원 이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선학원의 설립취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 10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입장문을 발표키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선학원특위는 2월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월 3일 멸빈의 징계가 확정된 선학원 이사 3인의 소식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에 멸빈된 선학원 이사들은 참회와 자숙의 뜻을 밝혔다면 멸빈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체의 소명 없이 한국불교 정통법맥을 계승한 종단을 등지고 탈종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종까지 강행하며 선학원의 설립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현 이사회는 종도들의 창권주 권한을 박탈하는 등 선학원의 사암 및 창건주에 대한 권한 등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됐다”며 “선학원 이사들은 불조의 혜명을 등지고 종단을 떠나 재산분쟁 권리투쟁으로 선학원의 청정성을 더럽히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선학원특위는 “선학원의 권력을 독점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이사회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분원장들이 바로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앙종회는 선학원의 제자리 찾기에 온 힘을 기울여 선학원의 설립 정신을 회복하고 선학원에 소속된 스님들과 사찰들이 불이익과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이 지난해 11월 제정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수장을 前 호계원장 법등 스님이 맡는다. 11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추진위에 참여키로 했다. 조계종은 2월 말까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동안거 해제 이후 발족식을 열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태고종 비대위 “정상화 위해 집행부 구성”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 “5월 15일 이전 원장 선거”

집행부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불교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종연 스님)는 2월 13일 신촌 봉원사서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회의를 열고 “5월 15일 이전에 차기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르자”고 결의했다.

비대위 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 스님은 “종법에 의거해 후임 총무원장을 모시자. 이 모든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 대행이라는 임시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으니 여법하게 원장을 뽑아야 종단이 빨리 종단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종회의장 혜공스님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총무원장 비위나 맞추는 역할을 했다면 종단은 지금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중간에서 난파 했었을것”이라며 “고생스럽더라도 종회법에 따라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대위측은 “종단 부채 상환 대책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가동하겠다”며 “구성은 종단 내 역량있는 스님 약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후원기업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기구를 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대위측은 “중앙종회에서 ‘종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종헌 종법중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암사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에는 성오스님, 위원으로 설운스님, 법정스님, 대혜스님, 효산스님, 지관스님을 선출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태고종 비대위는 2월 13일 신촌 봉원사서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법인관리법·산중총회법 등 다시 수정되나

조계종 중앙종회 3월 17일 개원… 종헌·종법 개정 예정

조계종이 산재된 법인들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을 다시 개정할 전망이다. 현재는 2월 28일까지 학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들이 등록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2월 12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1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01회 임시회 운영 일정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관리법과 총림법, 산중총회법 등의 개정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종회의원 함결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월 28일 법인 등록이 마감되면 선학원과 미등록 법인들이 제한 조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다”면서 “법인관리법 부칙에 2월 28일까지인 등록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정식으로 의안이 접수된 것이 아니다. 총무부의 의견도 있었고 향후 더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관리법의 연장에는 선학원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포석도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학원정상화 추진위원장에 법등 스님(前 호계원장)이 내정된 상황이다. 법등 스님은 내정 이후 대화를 위해 6개월의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림법과 산중종회법의 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이하 종헌종법특위)는 총림법과 산중총회법 개정 사안을 살피고 있다.

실제 종헌종법특위는 2월 13일 열린 2차 소위원회에서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회에 발의키로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7일 2차 임시회를 열고 인사안과 종헌종법을 개정한다. 사진은 200차 회의 모습

법인관리법 유예기간 연장 추진
선학원과의 협상위한 포석인 듯
산중총회 참여 자격 상향 조정
‘비구니 할당제’ 폐지 반발 예상

이날 소위가 논의한 산중총회법 개정의 골자는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참여자격을 법계 중덕(승납 10년)으로 규정하지만 개정하게 되면 법계 대덕(승납 20년)으로 상향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은 승납이 상향할 경우 산중총회 참여 대상이 대폭 감소해 선거 혼란과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함께 했다.

만당 스님은 “1994년 종단운영의 민주화 등을 이유로 선거법을 도입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선거로 인한 폐해가 높다”며 “선거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산중총회 구성원에서 비구 스님 수의 20%를 의무적으로 비구니 스님에게 할당했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중총회 내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5분의 1이 안될 경우, 그 부족한 수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 승랍, 연령이 높은 순으로 정하도록 했다. 비구 스님의 20%를 의무적으로 비구니 스님에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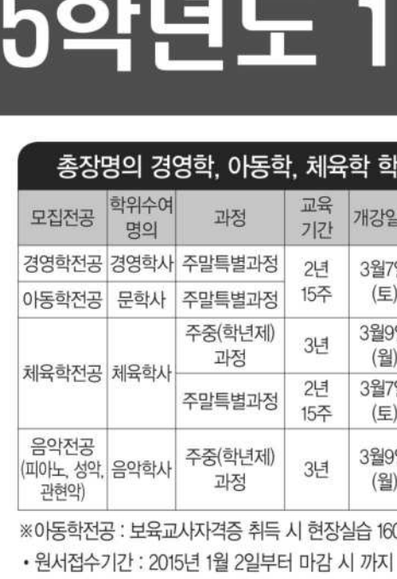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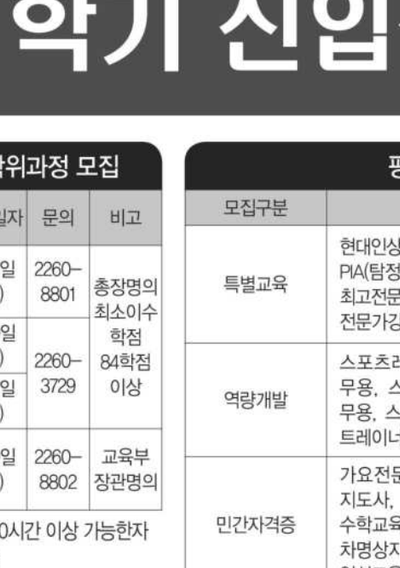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2012년 제15대 중앙종회가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를 위해 처음 도입된 ‘비구니 산중총회 구성원 할당제’가 시행 2년여 만에 다시 폐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1차 임시회에서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201차 임시회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열린다. 중앙종회는 2월 18일 201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했으며, 3월 6일까지 종무보고를 발송한다. 의안접수는 개회 7일 전인 3월 10일까지, 종책질의는 개회 5일 전인 3월 12일까지 마감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광복 70년 태극기 통해 독립정신 되새긴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진관사·강릉선교장 태극기展
오는 4월 30일까지 전시 열어
진관사 태극기·백초월 스님 조명
3월 1일에는 전문 학자 강연도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4월 30일까지 ‘진관사·강릉선교장 태극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사진 왼쪽은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 이며 오른쪽은 강릉선교장의 태극기이다.

광복 70년을 맞아 태극기에 그려진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이 전시회는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가 메인으로 소개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관장 황평우)은 광복 70주년 3.1절을 맞아 관내 사찰인 진관사와 한국 최대 한옥인 강릉 선교장에서 발견된 태극기를 중심으로 ‘진관사·강릉 선교장 독립운동 태극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09년 발굴돼 근대문화재 제458호로 등록된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항일독립신문’과 2014년 발견돼 문화재 등록을 준비중인 ‘강릉 선교장 태극기’, 김구 선생 휘호를 전시하는 특별전이다.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진관사 칠성각(서울시 문화재자료 제33호) 해체 복원 조사 중 불단과 기둥 사이에서 발견됐다. 사찰에 태극기가 발견된 경우는 현재까지 진관사가 유일하며 함께 발견된 독립운동 관련 자료는 일제강점기 한국불교계 항일운동의 자취를 보여 주는 생생한 자료이다.

또한 진관사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에 대한 조명도 이뤄진다. 백초월 스님은 진관사와 진관사 마포포교당을 근거지로 삼고, 전국 사찰을 왕래하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진관사에서 보살계 법회를 통해 군자금의 모금, 제2의 3.1운동 추진, 임정의 독립신문과 비밀 지하신문을 배포했다. 이번 전시에는 백초월의 ‘칠언시’ ‘묵죽도’ 등 서예 작품 7점이 전시된다.

기획특별전 기념으로 전문학자의 강연도 준비됐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박물관 교육실에서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적 형태와 의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ep.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황평우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광복 70년, 독립운동과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보는 전시가 될 것”이라며 “부모님과 어린이들이 이 전시를 통해 광복 70년, 독립운동, 태극기의 참 모습과 정신을 가족과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총장명의 불교학전공 학위과정 모집

모집전공	과정	교육기간	수업시간	동국대학교 총장학위명	비고
불교학전공	주말특별과정	2년 15주	주 1회 (토) 09:00~21:00	문학사	총장명의 최소이수학점 84학점 이상
	주중(학년제)과정	3년	주 2회 (월,화) 10:00~17:00		
	타전공학위과정	1년 15주	주 1회 (토) 09:00~21:00		48학점 이상

총장명의 경영학, 아동학, 체육학 학위과정 모집

모집전공	학위수여명의	과정	교육기간	개강일자	문의	비고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주말특별과정	2년 15주	3월7일 (토)	2260-8801	총장명의 최소이수학점 84학점 이상
아동학전공	문학사	주말특별과정				
체육학전공	체육학사	주중(학년제) 과정	3년	3월9일 (월)	2260-3729	
		주말특별과정	2년 15주	3월7일 (토)		
음악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	음악학사	주중(학년제) 과정	3년	3월9일 (월)	2260-8802	교육부 장관명의

※아동학전공 :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시 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가능한자

- 원서접수기간 : 2015년 1월 2일부터 마감 시 까지
- 원서접수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http://edulife.dongguk.edu)

독학사학위과정

모집전공	모집구분	개강일자	입학문의처	비 고
• 국어국문학 • 영어영문학 • 컴퓨터과학 • 법학과 1단계 교양과정	주중반	2015. 3.2(월)	02)2260-8842	2년 만에 학사학위 취득 및 학사편입 가능

평생교육과정

모집구분	과정구분
특별교육	현대인상학최고위과정, SNPE 바른자세3P최고위과정, PIA(탐정민간조사)최고전문가과정, PSA(상조마케터) 최고전문가과정, APP(에스테틱)최고위과정, 노후설계 전문가강사양성과정, 동국학부모대학, TESOL과정
역량개발	스포츠레저, 골프지도사, 비만체형관리사, 실용무용, 스포츠방송CF모델, 스포츠패션모델, 스포츠무용, 스포츠지도사, 요가필라테스, 유아아동체육, 트레이너운동처방사, 생활체육
민간자격증	가요전문지도사, 명상심리지도사, 풍수인테리어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 색채심리지도사, 주산활용수학교육사, 한문지도사, FNT(사성제)와 자비명상, 차명상지도사, 마인드케어지도사, 예술심리상담사, 인성교육지도사, 웃음행복코치
음악교육	음악실기(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바스, 플루토,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가요강좌, 찬불가 힐링스쿨
마인드힐링지도사	마인드힐링지도사 통합과정(6기, 7기 신입생), 방과후차명상지도사, 위빠사나 마음관찰
동양철학	김동완사주명리학, 인상과 개운, 육임, 성명학(감정 및 작명), 미래예측사주명리학, 미래힐링사주명리학, 역리한자 한문
불교문화	명상지도전문강사과정, 선무도&선요가, 불교무용, 불교의식실용반, 불교미술, 기본한문, 불교한문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력인정 예정자 포함)
- 전문대학 졸업자
- 대학 중퇴자 및 졸업자

■ 모집일정
- 원서접수 마감일 : 2015.2.27.(금)
- 면접일 및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원서접수
-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http://edulife.dongguk.edu) 접속 → 학점은행제 클릭 → 해당전공명 클릭 → 입학지원 클릭 → 입학원서 작성 후 확인 버튼 클릭 → 입학원서 출력
- 방 문 접 수 : 제출서류를 지참하시어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사운영실 방문 후, 원서접수 평일 10:00~16:00 / 토요일 10:00~16:00 (방문 시 사전 연락)

■ 문의 및 상담 : 02-2260-3730

원서접수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edulife.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 평생교육원

“쉽고 재미있는 불교”… 어린이와 함께 30년

교계 유일 레크리에이션 단체 불레협 30주년 기념행사 준비

1985년 7월 1일 창립
3만여 지도자 강습받아
전국 사찰 어린이법회서 활용
7월 바자회 · 12월 자료집 발간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를 슬로건으로 지난 1985년 창립한 불레협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사찰에 가고 싶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불교에 흥미와 재미를 더해 알려줘야 한다.

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회장 혜만, 이하 불레협)는 교계에서 유일하게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불교를 쉽고 재밌게 포교하기 위해 정진해온 단체다.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를 슬로건으로 지난 1985년 창립한 불레협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불레협은 2월 13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30주년 기념계획을 밝혔다.

불레협은 지금까지 율동강의, 음악지도법 등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과정을 통해 300여 명의 지도자를 배출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는 전법단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여름 · 겨울불교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2015년 현재까지 54회에 걸쳐 개최하면서 3만 여명의 수료자를 배출해 어린이 · 포교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1994년 7월에 실시한 어린이 여름 캠프는 교계에서 불교 어린이 캠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지도자들에게는 규모가 큰 어린이 캠프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맛볼 수 있는 교육의 실습장으로서 지도자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볼 수 있었으며 성장의 계기가 됐다.

특히 사찰과 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단체들의 법회 및 행사, 사찰 여름 · 겨울불교학교 및 수련회 실시 등을 기획하고 지도자를 파견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법회 활성화와 포교의 전법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불레협은 온라인 활동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2000년 다음카페(cafe.daum.net/burec)을 개설하고 2004년 홈페이지(www.burec.org)를 오픈해 보다 많은 지도자들에게 다양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수도권 어린이 · 청소년 법회 활성화를 위해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운영, 법회개설지원, 어린이법회 및 영유아 지도자 교육지원, 어린이 찬불율동제, 전국어린이연꽃노래잔치, 연꽃어린이 연합캠프, 불교레크리에이션 자료집과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연등축제 율동을 기획하고 율동리더로 참가해 연등축제에 활력을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율동리더로 청년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불레협은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30년간 협회 활동 자료와 교재 교구 등을 포교활동 후원기금을 마련하는 ‘30주년 기념 후원기금 바자회’를 연다. 또한 12월에는 자료집 발간을 기념한 30주년 기념법회와 제13 · 14대 회장 스님 이 · 취임법회도 거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까지 꾸준한 정기문화강좌를 실시해오던 불레협은 올해부터 강좌를 다시 연다. 교리전달법, 공예체험, 찬불가 지도법, 놀이와 게임을 법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주1회 정기적으로 개강할 방침이다.

이사장 혜만 스님은 “불교레크리에이션은 시대에 맞는 포교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됐다. 2015년에는 불교레크리에이션 지도자들이 더욱 다양하게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대행장학회, 2015 장학금 수여

학생 34명에 7900만원 전달…“참된 사람되길”



한마음선원 대행장학회는 2월 15일 한마음선원 본원 법당에서 ‘2015 대행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한마음선원 본원을 비롯한 전국 지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34명에게 총 7900만원이 전달됐다.

한마음선원 대행장학회는 2월 15일 한마음선원 본원 법당에서 ‘2015 대행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한마음선원 본원을 비롯한 전국 지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불자 34명에게 총 7900만원이 전달됐다.

대행장학생은 최현준(서강대 2)외 13명이, 한마음장학생(대학생)은 구지윤(덕성여대2)외 4명이, 한마음장학생(고등학생)은 김의림(개포고 3)외 14명으로 이들은 각각 2~3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았다.

대행장학회는 대행 스님이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돼라”는 뜻에서 2006년 설립되었으며, 장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장학회측은 대행 스님과 여러 후원자분들의 뜻을 마음 깊이 받아 지녀 학문뿐 아니라 정신세계에서도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참된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올해 사관생도 3명 중 1명은 불자

육해공군 불자생도 377명 배출

육 · 해 · 공군 사관학교 졸업생도 1100여 명 가운데 불자생도가 3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군 사관생도 졸업생 중 불자생도 비율은 35%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5% 증가한 수치다.

해군사관학교 호국사,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 등은 2월 5일과 10일, 11일 졸업 및 임관 축하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각 군 사관학교 졸업법회에는 육사 76명, 해사 75명, 공사 46명 등 총377명의 불자졸업생도가 각각 참석해 신임 불자장교로서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해사 졸업법회에서는 졸업생도 142명 중 절반 이상인 75명이 불자생도였다. 군종특별교구는 그동안 사관생도 신행활동을 장려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군종특별교구는 “각 부대 군법사를 통해 불자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법회활동 참여 권유 등을 통해 초임 불자장교들이 신행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마음강좌 통해 내안의 공동체 찾는다

인드라망, 3월 5일부터 ‘심심학교’ 개강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3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자존감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마음강좌 ‘심심(尋心)학교’를 진행한다.

심심학교는 마음을 살펴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자존감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이다. 강의는 도법 스님을 비롯해 이남곡 연찬문화연구소 이사장,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회 지도법사, 김영옥 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장, 김중묵 귀정사수련원장, 김점란 붓다의대화 연구소장 등이 진행한다.

인드라망은 “대립과 갈등, 경쟁과 소외를 벗어나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심심하는 지도한다”며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관의 삶의 변화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심학교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9시30분 양천구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진행된다. 수강료는 일반 40만원이다. 02)576-1886

신성민 기자

미붓아카데미, ‘유마경’ ‘유식불교’ 강좌 개설

서울 종로에 새 공부방을 마련한 불교 · 인문학 공부모임 ‘미붓아카데미’가 3월을 맞아 새로운 강좌를 진행한다.

미붓아카데미(대표 이학종)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박상준 前동국역경원 역경위원을 강사로 3월 3일부터 총 16강에 걸쳐 ‘유마경’ 강의를 개최한다. 수강료는 월 5만원.

이와 함께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목경찬 불광교육원 전임강사를 초청해 3월 6일부터 총 12강에 걸쳐 ‘유식불교의 이해’ 강의를 진행한다. 수강료는 월 5만원이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이 진행하는 ‘최고의 한문명문’ 강연도 진행된다.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소동파의 〈전적벽부〉, 백낙천의 〈비파행〉 등이 주제다. 미붓아카데미의 모든 강좌는 16명 선착순 모집이다. (02)739-5557

노덕현 기자

봉은사, 문화 · 신행 도량으로 거듭난다

3월 5일 금강경 3년독송 입재 최초 사찰 국악합주단 창단 중국어 홈페이지 신규 개설

최근 9호선 봉은사역 지명 지정 등 서울의 불교 대표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봉은사가 2015년을 맞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봉은사(주지 원학)는 2월 13일 국악합주단 창단 및 금강경 독송 3년 대정진기도 입재 등 문화 · 신행 포교 도량으로서의 발전계획을 밝혔다.

먼저 봉은사는 불교계 최초로 사찰 직속 악단인 봉은사 국악합주단을 창단할 계획이다. 이는 종단 차원의 불교음악원 설립에 발맞춘 것으로, 봉은사 국악합주단은 영산회상을 비롯하여 전통불교음악 및 예불의식음악과 찬불가 연주 등 다양한 불교음악을 연주한다.

봉은사는 그동안 피아노가 중심이 되어 연주되었던 찬불가를 국악기로 연주함으로서 불교음악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학 스님은 “최초로 창단될 사찰 전속 국악합주단의 연주활동은 불교음악의 발전과 불교 포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불교음악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봉은사는 국악합주단 단원을 선발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신행사찰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금강경 3년 독송 대정진에도 들어간다. 봉은사는 이미 42대원 다라니 3년 기도를 2011년 입재해 최근 회향 한 바 있다. 3월 5일 입재하는 금강경 독송 3년 대정진은 매달 음력 보름 오후 1시 진행된다. 이 시간동안에는 산문이 닫히며, 경내 모든 대중이 함께 ‘금강경’ 3독을 진행한다.

또 동참자들은 기도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매일 3독씩 기도회향 때까지 총 3,000독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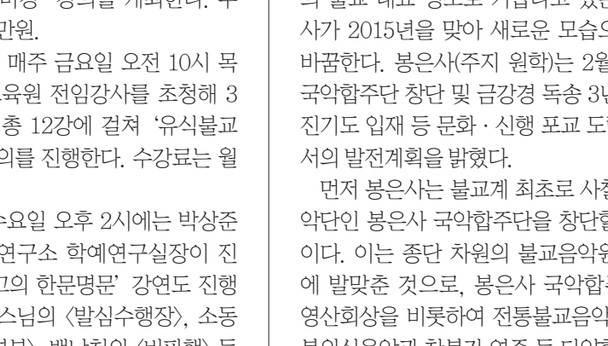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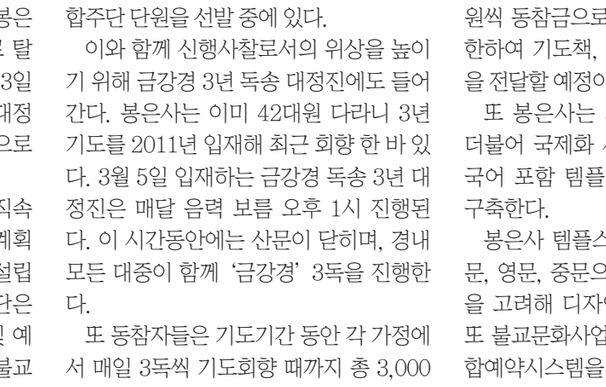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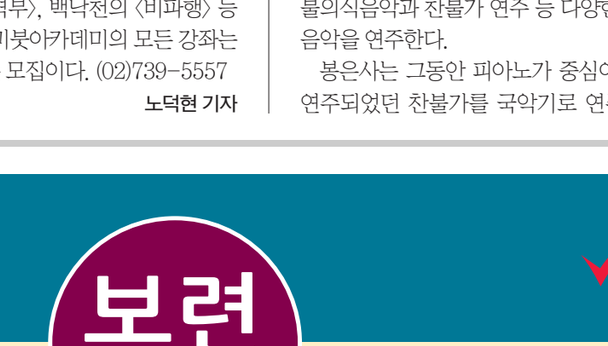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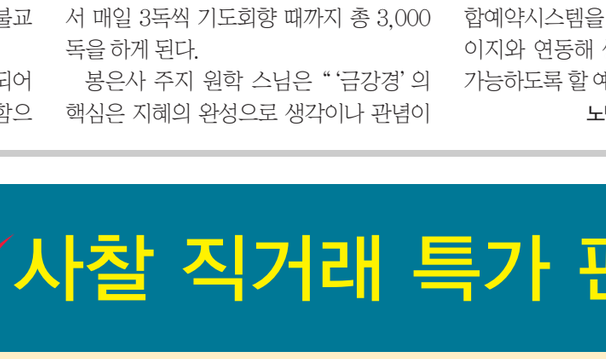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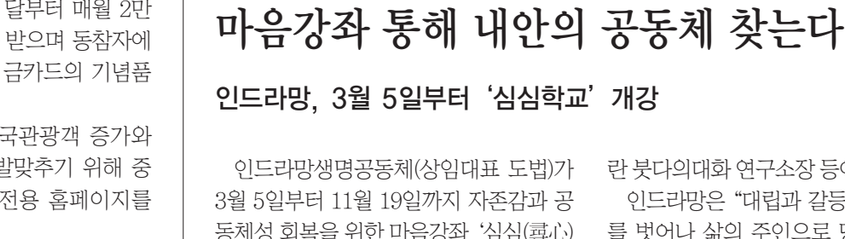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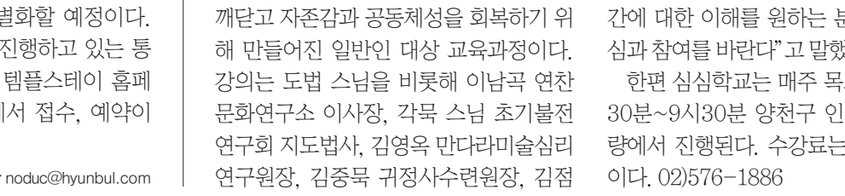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금강경’의 핵심은 지혜의 완성으로 생각이나 관념이 타파되고, 얼매임이 없고, 차별을 두지 않고, 집착과 견해가 끊어진 상태”라고 강조하며, “‘금강경’을 독송해 삶을 여유자적하게 하는 반야 지혜를 증득하길 바라다”고 말했다.

금강경독송 3년 대정진기도는 상시접수로 가입비 10만원, 둘째 달부터 매월 2만원씩 동참금으로 접수를 받으며 동참자에 한하여 기도책, 주머니, 금카드의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봉은사는 최근 중국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중국어 포함 템플스테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봉은사 템플스테이 전용홈페이지는 국문, 영문, 중문으로 구성되며 국가별 특성을 고려해 디자인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또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봉은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와 연동해 쌍방향에서 접수, 예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보련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BORYEON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일 주 문



한국자유총연맹 충남지부 고문

예산 수덕사 선덕 옹산 스님은 2월 15일 공주 충남통일관 강당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신년교례회에서 고문으로 위촉됐다.



설맞이 쌀 서초구 전달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은 2월 13일 소외이웃을 위해 백미 20kg 120포를 서울 서초구에 전달했다.



삼천배 철야정진 기도법회

수원 용주사 주지 성월 스님은 2월 28일 용주사 천보루에서 3000배 철야정진 기도법회를 개최한다. (031)234-0040



대구불교총연합회 2대 회장

대구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2월 24일 대구불교총연합회 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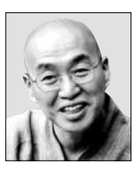
설맞이 양양지역 나눔 큰잔치

조계종 무산복지재단 이사장 정념 스님은 을미년 설을 맞이해 2월 16일 양양 노인복지관 어르신 1천여명을 모시고 '설맞이 나눔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조계종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장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 2월 5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이다.



정토불교대 봄학기 신입생 모집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2월 28일까지 2015년 정토불교대학 봄 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1년과정이다.(02)587-8990.



제15대 청주불교연합회장

청주 반야정사 주지 법정 스님은 2월 23일 청주시 명암타워컨벤션센터에서 청주불교연합회 1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계사 신임 신도회장

김의정 前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2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 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7년 2월까지다.



포교사단 운영위원 연수

곽명희 조계종 포교사단은 1월 24~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운영위원 연수 및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존경받는 승가, 참회서 비롯돼요"

'팔리율장 내 참회수단' 밝힌 스리랑카 시라 스님

"작은 암자 옆에 큰 사찰이 세워져 신도들이 옮겨갔습니다. 암자와 큰 사찰의 스님들이 다투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상대방을 헐뜯는 말을 하는 스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위덕대에서 스리랑카인으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은 시라라다나 스님(이하 시라 스님)은 옅은 미소와 함께 질문했다.

스님은 "팔라율장의 승잔법 내에는 이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박사학위논문 〈'팔라율장'의 십삼 승잔법에 관한 연구〉에서 팔리율장을 분석해 사회발달에 따라 이에 맞는 현대적 계율해석을 시도했다.

2월 9일 조계사에서 만난 스님은 먼저 논문 저술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율장에서는 중죄여도 참회를 통해 구제하는 승잔법을 전합니다. 최근 한국불교의 경우 승가 범계행위 후 이를 수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승잔법을 연구했습니다."

스님은 "지계는 승려가 당당해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자신의 죄를 밝히고, 참회를 통해 용서받는 문화가 자리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덕대 내 스리랑카 1호 박사 스리랑카 율장 내 승잔법 설명 승가 범계 참회방안으로 제시

시라 스님은 논문에서 음욕, 주처, 거짓말, 승가화합 파괴 등 범계행위를 4가지로 분류하고 승잔법에 의거한 처벌과 해결방안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승잔법에서는 불사 시 발생하는 승가 갈등의 경우 '백이갈마'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백이갈마'란 사찰 불사 전 대중이 함께 땅을 살피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미 대중에 거스르는 일이 벌어졌다면 당사자는 이를 참회하고, 대중들의 의사에 따라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시라 스님은 "한국불교에도 자자와 포살법회를 비롯해 그 근간인 계율이 있지만 문제는 승잔법과 같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최근 한국불교계의 범계행위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이 높아지고 있다. 승가의 진정한 참회와 이를 구제하는 계율을 현대생활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라 스님은 이어 "승잔법에 의거해 스리랑카의 경우 한 지역 스님들이 월 2회 같은 장소에 모여 자신이 지은 죄를 모두 털어놓고 용서를 구한다"며 "이것이 스리랑카에서 대중들에게 승가가 존경받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2003년 스리랑카 국립대 졸업 후 위덕대 장학생으로 한국 땅을 밟은 스님은 2월 위덕대 졸업 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전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스님은 "스리랑카에서도 교수직 제안 등이 있었지만, 한국에 대한 사랑이 크다"며 "부처님 가르침이 오롯이 전해지는 스리랑카 불교를 한국에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게 웃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람들 마음속 평온 발원하며 오체투지"

절하며 국토 1천일 순례나선 남해 송림사 주지 향조 스님

"그저 여기에 나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서로 미워하지도, 탓하지도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경남 남해 송림사 주지 향조 스님이 오체투지 순례를 하는 이유다. 벌써 1년 3개월째, 스님은 대한민국 곳곳을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온 힘을 다해 땅을 안으며 앞으로 가고 있다. 무릎은 까지고 굳은살이 박힌 지 오래다. 1천일동안 전국을 순례할 예정으로, 지난 2013년 출발해 2016년 회향한다.

특별한 계기는 없다. 사람들의 평온. 그것이 오체투지를 하는 이유의 전부다. 불제자로서 치열하게 수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오체투지를 결심케 한 이유였으나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스님이 발원하는 바다.

"많은 이들이 불법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불교 역시 침체돼 있구요. 지극한 마음으로 오체투지를 하다보면 곳곳에서 만나는 불자들이 불심을 더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스님 말대로 몇몇 불자들은 다가와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기도 하고 근처 가게로 끌고 가 몸 상한다며 이것저것 먹을 것을 안겨다준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성을 담아 보시금을 건네줄 때도 있다. 스님 손을 붙잡고 감동스러워하는 이들도 많다. 고마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종교가 다른 이들은 스님에게 폭언을 쏟아부으며 미친 사람 취급하기 일쑤다.

"정신 나갔다는 말을 듣는다고 섭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정서와는 친숙하지 않으니 그럴수도 있다 싶어요."

향조 스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축원하며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며 앞으로 나갈뿐이다.

경남 남해에서 시작된 스님의 순례는 부산을 거쳐 대구까지 이어졌다. 현재 세종시에 당도한 스님은 이후 서울로 갔다 강원도 통일전망대까지 갈 생각이다.

아침 8시 반이면 시작해 오후 5시까지 꼬박 수행하면 하루에 4km쯤 이동할 수 있다. 봄, 가을이야 괜찮지만 겨울이나 여름은 솔직히 조금 힘이 든다. 캠핑카에서 숙식을 해결하다보니 제대로 쉰 적도 씻은 적도 없다는 스님. 인근 사찰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지만 절 인심마저도 팍팍해졌는지 도움받기는 쉽지 않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한 번도 게으름 피워본 적은 없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을 먹고 오체투지를 했을 정도다.

"1천일을 하겠다고 시작한 수행이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부족함 없이 충분히 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관두지 않을 겁니다." (055)863-0749 **배현진 기자**

부산 삼광사 설맞이 자비의 쌀 전달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2월 14일 지관전에서 열린 설맞이 가족행복특별기도 회향식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부산진구장애인협회 배순자 고문과 한삼청 회장이 동참해 주지 무원 스님으로부터 자비의 쌀을 전달받았다. 자비의 쌀은 장애인 30명, 각 지역의 저소득층 25명, 독거노인 5명에게 총 600kg이 나눠졌다.

무원 스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을 통해 이 사회가 더욱 밝아지고 행복할 수 있는 공덕이 된다"며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금선사 라오스 불발탄 희생자 도와



서울 금선사(주지 법안)는 2월 13일 라오스 어린이 불발탄 예방교육 및 희생자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라오스 불교지역개발단체 BDP(Buddhism for Development Project)에 전달했다. BDP는 로터스월드와 함께 올해부터 공동으로 불발탄피해 예방 교육지원사업 및 도서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라오스는 현재 국토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에 불발탄이 매장돼 있는 상황이다.

배현진 기자

청도 운문사 유치원 7회 졸업식



청도 운문사 부설 운문유치원(원장 도진)은 2월 13일 제 7회 졸업식을 원내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보경 스님, 효림 스님을 비롯해 원생과 학부모 등 300여 대중이 함께했다. 이사장 진광 스님(운문사 주지)은 제7회 졸업원생 대표 안소영 어린이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명세계선센터 선수행학교 개강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님의 향기처럼…

엄동의 한설이 날개를 접고 봄의 신령이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오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이러한 계절에 전국 400개 대학에 오직 하나뿐인 동명세계선센터에서 선으로 행복을 노래하고, 선으로 힐링하며, 영원의 세계에 이르는 선수행 학교 3기생을 모집합니다.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이신 수진스님의 직접지도와 명쾌한 강의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일 시 2015년 3월 4일 부터 4개월(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일정 변경할 수 있음)

지도 및 강의 수진스님 (범어사 율원 율주 · 세계선센터 선원장)

대 상 선 수행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장 소 동명대학교 세계 선센터 (동명관 4층)

수 학 료 4개월 (10만원) ※ 개근상 (수진스님 친필 한폭)

접 수 ☎ 051)629-3582, 전송 051)629-3589

동명세계선센터 선원장 관허 수진 합장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동명대학교 동명관 4층 세계선센터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5년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불교학과 [2월 접수중]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 불교다도학과 (2년) 3월 10일(화) 오후 2시

_ 홍차, 말차, 태교명상, 중국차문화, 한국차문화, 티-테이블세팅, 차의 미학,제다심평

■ 불교미술학과 (3년) 3월 5일(목) 오전10시 30분

_ 사불기본, 단청기본, 신중초, 보살초, 여래초, 영산회상도, 정토변상도,신중도, 산신도,수월관음도 (지도 : 법인스님)

■ 선 • 명상학과 (2년) 3월 5일(목) 오후 7시

_ 1학기 : (남방) 위빠사나 수행 : 적경스님
_ 2학기 : (티벳) 람림 수행 : 람카스님
_ 3학기 : (선종) 간화선 수행 : 정도스님
_ 4학기 : (정토) 일심정토 염불수행 : 정목스님

■ 불교대학원 (법사과정 3년)

_ 초기불교 이해와 구사론 (1) : 김재성교수
➔ 개강 : 3월 10일(화) 오후 7시
_ 초기불교 수행과 깨달음 : 김형준교수
➔ 개강 : 3월 10일(화) 오후 8시
_ 근본불교 깨달음의 구조와 정체 (1) : 최봉수교수
➔ 개강 : 3월 5일(목) 오전 11시

■ 불교의식교육원 (의식법사과정 2년)

_ 전통 범패의식반 : 인각스님
➔ 개강 : 3월 4일(수) 오후 3시
_ 한글 불교의식반 : 문종순법사
➔ 개강 : 3월 7일(토) 오후 2시
_ 전통 다비작법 2(이론강좌) : 만춘스님
➔ 개강 : 3월 7일(토) 오후 4시

■ 모집인원 (불교학과) : 12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4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1일부터 ■ 문의 : 02) 732-12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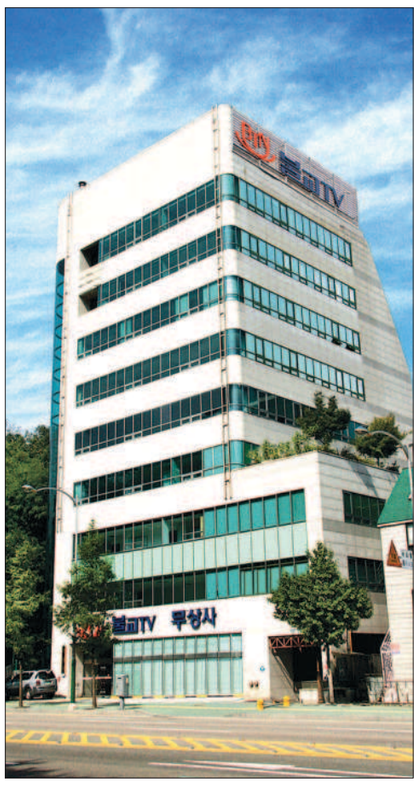
• 상기 과정(불교학과)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1995년 3월 1일 열린 BTN불교TV 개국법회 후 주요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 텔레비젼입니다'이라는 첫 프로그램이 방송을 탄 이후 현재까지 영상 포교 미디어로 발전해 오고 있다.



2008년 4월 불교TV는 서초구 방배동 신사옥으로 입주하며 '서초 시대'를 연다. 이 사옥은 디지털 방송 시대를 맞아 마련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2008년 20억원의 자본을 투입해 마련한 HD중계차를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둘러보고 시승하고 있다.


불교TV는 종교방송 최초로 디지털 파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했다.



불교TV는 불법 홍포를 위한 DVD · 불서 보급에도 주력했다. 사진은 '나를 깨우는 108배'.

TV 속 법당 20년, 100년 전법의 새 걸음 시작

개국 20주년 BTN불교TV 역사와 미래

"날로 혼미해져가는 세상, 인성(人性)이 불 꺼지니 백일(白日)도 어둡고 백일(百日)이 어두우니 인륜도 캄캄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가슴 속에 더 많은 법당을 지어야 합니다. 불교 텔레비전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前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 BTN불교TV 개국 법어 中〉

"우리는 BTN불교TV를 통해 부처님과 만나고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사바세계에 영원한 자유와 평화, 균형과 조화가 충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경건하게 다짐합니다."

〈BTN불교TV 개국 선언문 中〉

불기 2539년, 서기 1995년 3월 1일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불교TV)가 문을 열었다. 이는 '세계 최초 불교 전문 TV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한국과 세계 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일이었다.

불교TV는 오는 3월 1일로서 개국 20주년을 맞는다. 2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에 전한다는 사명아래 한국 최대의 영상 법당으로서 최선을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던 불교TV는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종합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국과 고난 그리고 발전

불교TV는 1994년 4월 통도사 주지였던 태응 스님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개국준비에 들어갔다. 개국준비를 위해 방송기자재를 발주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충원하는 한편 개국 프로그램 제작을 서둘렀다. 총 자본금을 140억 원으로 늘려 사업을 위한 재무 능력도 갖췄다.

1995년 3월 1일 개국 고불식 '안녕하십니까. 불교텔레비전입니다'를 첫 방송으로 불교TV의 역사가 시작됐다.

불교TV의 최초 사옥은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금호전기 빌딩(1994년 6월~2003년 3월까지 입주)이었다. 처음에는 처음 1층과 7층, 2개 층만 사용하다 10층과 지하층까지 4개 층으로 늘렸고 직원도 140명으로 확충했다.

하지만 곧 어려움이 닥쳤다. 바로 한국 사회를 뒤흔든 1997년 IMF사태다. IMF 한파에 불교TV는 빌딩 4개 층에서 밀려나 결국 지하 1개 층을 쓰게 됐고, 급기야 방송 중단 사태를 맞기도 했다.

2000년 6월 성우스님이 회장으로 취임한 후 불교TV는 긴축 재정에 들어간다. 그 결과 1년 만에 112억 원이 넘던 부채가 40억 원대로 줄었다. 불교TV는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옥 마련에 나섰다. 당시 마련된 것이 봉천동 사옥(2003년 3월~2008년 3월 입주)으로 연건평 1250평(4,132㎡)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였다. 1층에 무상사, 2층은 사무실, 3층은 스튜디오, 4층은 주조정실과 편집실, 불교TV문화원이 들어섰다.

재정 내실화에 나섰던 불교TV는 2008년 4월 서초구 방배동에 사옥을 마련하고 '서초 시대'를 연다. 현재의 사옥은 지상 9층, 지하 4층, 연건평 7051.8㎡로 지상 1층에는 400여 명이 참석할 수 있는 160평(529㎡) 규모의 무상사가 있고, 2층에는 시민선방, 3~8층에는 스튜디오와 종합편집실, 주조정실, 편집실, 제작국 등 방송본부가 마련돼 있다. 방배동 사옥은 이전 사옥과는 달리 디지털 방송시대를 대비하며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영상 법문부터 교양 · 다큐까지

불교TV 개국은 영상 법문부터 불교 문화 관련 교양, 다큐멘터리 등을 항상 TV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불교TV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양성했고, 20년 동안 방송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편수만 65,000개에 달한다. 이중에는 국내외 방송 · 필름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작품도 상당수다. 이는 불교 전문 방송콘텐츠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총 100편에 이르는 '한국의 명찰'이 제작 완료돼 '고려대장경', '발우공양'과 함께 일본과 대만으로 수출됐다. 보리방송문화상 수상작품인 '출가 새로운 탄생', '지장보살', '자비의 천수천안' 등도 불교TV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티벳 영혼의 선율'은 2010 세계 음악 · 독립영화제 월드 뮤직 앤드 인디펜던트 필름 페스티벌에서 5개 부문 노미네이트 돼, 최우수 독립영화 음악부문과 최우수 영화음악상을 수상했다. '암흑속에 핀 화엄불국토, 초월의 일심교'는 2013년 불교 언론문화상 TV부문 우수상을, 사찰음식 및 발우공양에 대한 다큐멘터리 '붓다의 식사(食思)'는 지난해 불교언론 문화상 TV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방에서 TV와 인터넷으로 손안에서 모바일로 자유롭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의 법문들을 365일 24시간 시청 할 수 있다는 것도 불교TV만의 강점이다. 불교TV 무상사 일요법회는 최장수 프로그램이자 인기 프로그램의 하나로 매주 원로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법석을 열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매주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다.

또한 역대 고승들의 일상과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스님들의 행장을 영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영상으로 '불교 한류' 선도

한국의 전체 문화유산의 70%가 불교문화유산인 만큼 이에 대한 디지털영상 콘텐츠 제작은 곧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었다. 불교TV는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의 하나인 경주 남산을 재조명한 '천년의 기다림 경주 남산(2012)', 선조들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마애불에 대해 각종 최신촬영기법과 CG를 동원해 영상으로 복원한 '1600년 한국불교의 기록 마애불(201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의 모든 것을 담은 '영산재 (2009)' 등을 제작했다. 이외에도 '한복선의 한국전통음식(2006)', '감성식객, 자연을 먹는 법(2011)', '불영사 사찰음식 문화향연(2013)' 등을 제작해 한식문화의 우수한 건강성을 홍보하고 북미지역으로의 방송 송출을 통해 한식의 세계화에도 기여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불교TV는 해외 송출을 통한 시청 영역 확대에도 나섰다. 1996년 3월 BTN불교TV는 미국 ATW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시청 영역을 미국으로 확장시켰다. 이어 1997년 미주지사를 설립하고 2001년 아이스카이컴과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내 영상포교 활동을 더욱 진일보한 형태로 발전시켰으며 이후 미국 전역에 24시간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2014년에는 뉴질랜드 HiTV Limited IPTV와의 프로그램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해 뉴질랜드 지역에도 한국불교를 만날 수 있게 했다.

불교 역사 현장 생생히

불교TV는 2008년 20억원을 투자해 HD 카메라를 탑재하고 디지털 오디오와 위성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HD중계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매년 연등축제 생방송을 비롯한 대법회와 사찰의 문화공연 현장을 담아, 다채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2010년 3월 13일 불교TV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된 법정 스님 다비식 생방송 현장중계는 불교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쏟아진 감사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와 함께 불교TV는 불교전통문화를 영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꾸준히 사회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여 시청자들의 즉석질문에 대해 스님들과 고민을 나누고 명쾌한 해답을 듣는 '4인4색 즉문즉설 (2013-현재)', 젊은 리더들의 진솔한 스토리를 들어보는 'BTN TV 멘토링, 소감(2014)', 스님께 듣는 세상이야기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2013)', '일감 스님의 내비둬 콘서트(2013)'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종교방송 선두주자로 나서다

위성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IPTV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무한경쟁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TV는 2008년 서초구 방배동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모든 시스템을 HD로 구축해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처했다. 지난해에는 종교방송 최초로 모든 영상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 방송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 완료했다. 이는 우수한 불교영상콘텐츠를 고화질로 영구보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불교TV가 IT와 접목한 시초는 2008년 4월 KT와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였다. 불교TV가 가진 풍부한 불교 콘텐츠를 KT와 연계해 '내 손안의 법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모바일 웹페이지(m.btn.co.kr)를 오픈해 불교계 방송사 최초로 스마트폰 실시간방송을 가능케 했다. 이와 같은 시기 웹TV 서비스도 제공하여 TV, PC,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3스크린 방송시대를 구현해냈다.

2011년 법문 MP3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와 스마트폰으로 보는 BTN NEWS 사이트도 오픈 했다. 이후 BTN 및 BTNNEWS 안드로이드 앱 오픈과 페이스북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에서도 불교TV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2015년 3월 1일 정식 개국을 앞둔 BTN라디오 '울림'을 통해 앞으로 불교TV는 영상포교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는 스마트 음성포교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BTN 라디오 '울림'은 법문,염불독경, 찬불가, 명상 등 총 4개의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1월부터 시범방송을 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불교TV는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과 해외 고승 초청 법회, DVD보급과 출판사업을 통해 불교 포교와 사회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또한 조계종 공식 지정 상조 서비스인 ㈜불국토 상조와 사찰 음식 전문 판매처인 ㈜산사애, 1寺1村맺기운동을 전개하는 (사)도시와 농어촌, 한국 전통문화 기록 보존 사업을 추진하는 (사)전통문화콘텐츠개발원 등을 통해 자체 수익과 공익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 이다.

100년의 걸음을 내딛다

개국 20주년, 성년이 된 불교TV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20년의 인연, 100년의 약속'을 정했다. 20년으로 이어진 스님과 불자들의 인연과 성원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사부대중과 진정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불교TV는 개국 20주년 행사로 인기프로그램 '정목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를 광주, 부산, 대구, 대전 4개 도시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한다.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워라'라는 대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4대 도시 투어 공개방송은 2월 26일 오후 3시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첫 번째 만남을 시작으로 3월 4일 부산 문화회관, 4월 3일 대구학생문화센터, 4월 23일 대전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공개방송은 4개 도시별로 토크 주제를 다르게 선정하고, 토크주제에 따른 정목스님의 법문과 기도, 발원으로 이뤄진다. 특히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연주자들을 초청해 음악과 함께 하는 것도 큰 볼거리다.

공개방송에 대해 불교TV는 "지난 20년 동안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스님과 불자, 시청자들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며 "앞으로 시청자와 지역 불자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열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7일에는 불교TV 개국 20주년 법회를 연다.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기념법회에서는 'BTN불교TV의 미래비전 4대 전략목표'와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발표되며 중국 천수관음무,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 등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으로 꾸며진다.

불교TV는 "이날 법회에서는 '20년의 인연, 100년의 약속' 슬로건에 맞춰 변경되는 CI와 불교 종합미디어로서 발돋움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 같은 목표 안에는 시대에 맞는 신행문화 선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Well-Life' 불교 공동체 구성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상 포교 시대를 연 불교TV는 불교 현대사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연등회 연등축제 제작 현장.

1995년 3월 1일 개국 고불식
영상 법문 · 문화 · 교양 · 다큐 등
20년 간 6만여 프로그램 제작

불법홍포 · 불교문화 진흥 앞장
스마트라디오 · 아카이브 시스템 등
종교방송 트렌드 선두주자 나서

오는 3월 7일 개국 20년 기념 법회
4대 목표 발표 · 축하 공연 등 진행
개국 기념 정목 스님 토크 콘서트
4월까지 전국 4차례 순회 공개방송

BTN불교TV 역대 주요프로그램


불교TV무상사 일요초청법회 (2006. 8~ 현재)

'TV속 법당' 취지에 맞는 불교TV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1층 무상사에서는 매주 각계 원로 대덕 스님들의 법문을 만날 수 있으며, 이를 녹화해 매주 방송하고 있다.

생방송 보시(2013. 1. 2~ 현재)

기부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소개하고 불교TV자원봉사 의료진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희망을 주는 공익적 성격이 짙다.

한국의 명찰 (2004.10~2008. 3. 총100회)

한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한국의 사찰. 우리가 '명찰'이라 부르는 사찰의 창건과 역사, 일주문, 대웅전, 관음전, 명부전 등 가람배치, 불상과 석탑 등 주요 문화유적, 건축양식 등을 자세하게 알아본 획기적 프로그램이었다.

산중대담 뜰앞의 잣나무 (1996. 3~1999.12. 총74회)

굴곡의 근현대사를 살아간 고승들의 삶과 수행을 대담형식으로 풀어간 토크 프로그램. 고승들의 감로수와 같은 법문이 들어 있으며, 한국불교사 구술자료로도 높은 가치를 가진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2009. 4~ 2012. 4. 총138회)

명사들을 초청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며 어머니의 잊혀진 인생과 어린 시절의 꿈, 그리고 희생의 시간을 되돌아 보는 시간.

진미령의 맛있는 절밥 (2009.12~2013.10. 총200회)

음식, 자연과 인간, 수행의 의미를 요리를 통해 배워본다. 불가의 전통음식문화를 조명해 현대인의 식생활 문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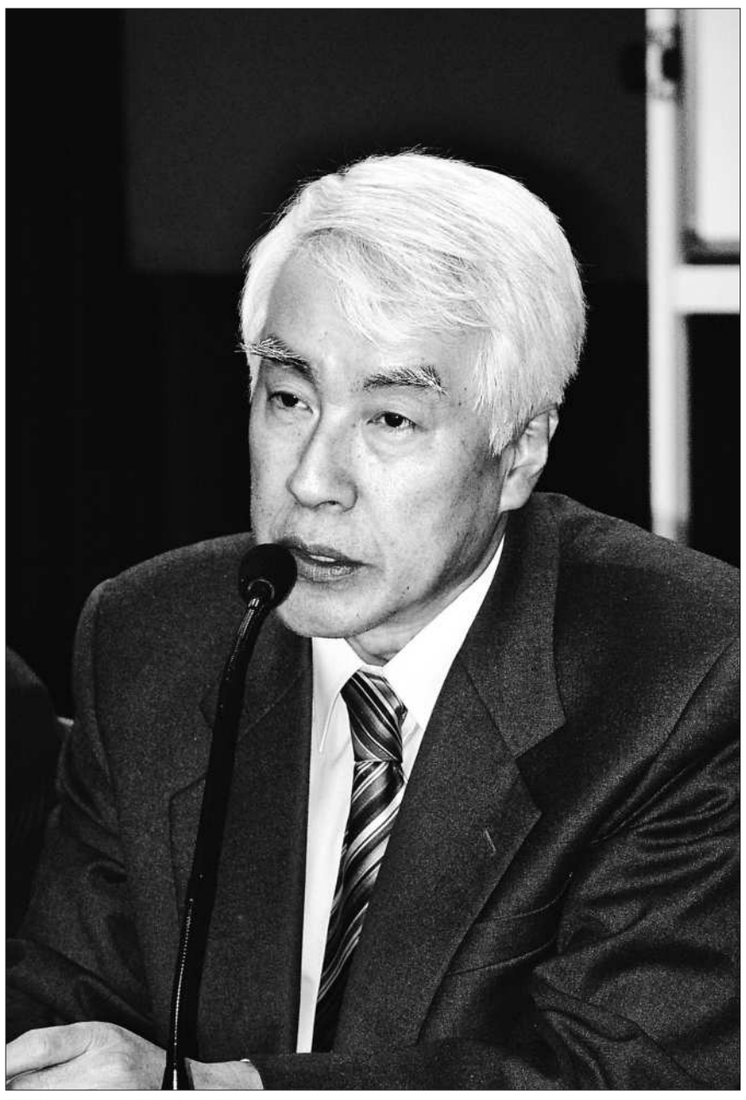
미래 한국 이끄는 희망…불교 속에 '답' 있다

동산불교대 불교학과 입학식 특강

정병조(前 금강대 총장)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레오나르도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러 프랑스의 루브르미술관을 찾는 이들은 많지만, 모나리자와 자주 비견되는 신라시대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이는 얼마나 될까.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은 한국 문화의 우월성을 담보해주고 있는 것이 불교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안타까워했다. 2월 7일 동산불교대 불교학과 입학식에서 정 총장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모인 이들에게 불교의 수승함을 계속해서 일깨워줬다.

정리= 배현진 기자



정병조 前 금강대 총장은 … 1947년 경북 영주에서 출생했다. 1971년에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윤리학과 교수, 인도 네루대 국제대학원 교수, 동국대 부총장, 금강대 총장,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불교이론의 현대화에 앞장 서 왔으며 불교의 근본 사상을 대중들이 쉽게 접하도록 하는 데 힘써왔다. 주요 저서로는 〈인도철학사상사〉 〈한국불교사상사〉 〈실천불교〉 등을 비롯, 60여 편의 논문과 10권의 번역서가 있다.

싯다르타는 중국 사람?

우리는 인도불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전이 한문위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불교 역시 1700년 가까이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부처님을 중국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불교 교주 고타마 싯타르타는 인도지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부모는 누구고, 공부는 어디서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불교학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2500여 년 전 석가모니가 무슨 말을 썼을까입니다.

120개 언어 중 천만 명이 쓰는 말이 20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우리가 2500년 전 부처님이 무슨 말을 썼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당시 부처님은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귀족이 썼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나중에 부처님이 되신 후에 각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통역을 대동하고 다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남쪽 마가다라는 나라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마가다에서는 마가디라는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처님은 해당지역의 언어인 마가디를 썼을 것입니다. 북쪽 코살라에서는 코살리라는 언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 고향에서는 카필리라는 언어를 사용하셨겠지요. 그리고 당시 평민들이 쓰던 언어는 빨리어였습니다.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부처님은 5개 국어에 능통했을 거라 추측됩니다.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것은 불교

불교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대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려고 결심을 했다면, 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자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립이 극한적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유일신 종교에서는 타인이 신봉하는 신은 부정하기에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유일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부처님은 모든 생명들이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파하셨지요. 너도 나도 부처인데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아놀드 토인비가 불교만이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이 납득되시나요.

한국 사회에는 보수와 진보 양 갈래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만한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극렬한 대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할 것은 한국인으로써 자신의 뿌리, 자신의 문화를 이해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이 세계만방에 자랑하는 문화재가운데 70프로가 불교문화재에요. 포항제철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줘봤자 뭐합니까, 석굴암을 보여주면 경탄하기 바빠요.

한국 불교는 어디에?

조금 비약해서 생각해보면, 세계 불교 속 어디를 가도 한국 불교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교는 중국 불교입니다. 땅도 크고, 기라성 같은 위인들이 출현했으며, 역사도 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직적으로 불교를 선양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멀었죠. 일본은 불자 재벌들이 사재를 들여 불법홍포에 앞장섭니다. 일본인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곳에는 쥬펜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은 일본 문화를 해외에서 선양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이를테면 해외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왕복 항공료를 제공하면서까지 일본에 초청, 연수를 시킵니다. 물론 연수기간에 월급도 줍니다. 일본 불교 역시 국가의 도움으로 세계에서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는 기독교-회교 '완충지대'
불교 속 융합·문화적 가치 인식할 때
세계속 한국 존재감 드러내

그런데 한국 불교는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기독교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층,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신자입니다. 여러분은 독실한 불교신자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세요? 고위공무원직, 그러니까 차관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종교를 조사한 결과 150명 이상이 기독교였습니다.

머릿수로도 자본으로도 기독교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에게는 한국이 불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한국학과가 유일하게 있었던 대학교는 뉴욕주립대입니다. 그나마도 몇 년전,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쉬운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잠시 강의를 청탁받아 갔을 적에 커리큘럼을 살펴보니 한국이 반성해야할 점이 많더라구요. 아주 실용적인 강의들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한국의 상거래법, 한국의 포장법, 한국에서 기업하는 법 등이 있었고 놀랐던 것은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노래방가는 법이 있더라구요. 한국 노래를 배우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영문학과에서 셰익스피어, 영문희곡 이런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어과 다니는 친구들이요? 북경가서 우동 한 그릇도 못 사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문학과를 만들면서 언어, 역사, 문화를 총체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야 해요.

이처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나라를 홍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 전략을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대 위정자들은 하도 가난한 시절을 겪었다보니 경제개발. 경제계획. 새마을운동 등 돈 벌었다는 것밖에 내세우지 못합니다.

불국사 돌멩이의 의미는?

불국사에 가면 무설전(無說殿)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설전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히랍은 세계최초의 문명국입니다. 해마다 5월 30일이 되면 아테나이의 시민들이 모두 모여 축제를 벌이고 투표로 그 해의 인물을 뽑았습니다. 총리나 장관, 이런 사람 뿐 아니라 빵 굽는 아저씨, 구두방 주인 등도 뽑혔지요. 어느 해인가 소크라테스가 그 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뽑힌 이유를 모르겠다며 상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진리 앞에 겸손하고 나는 내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어리석고 현명하고의 차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현명한 거고, 그걸 모르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다"고 했지요.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지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자도 도덕경에서 "진실로 아는 자는 말이 없고 진실로 말이 많은 자는 알지 못하는 자다"고 했습니다.

무설전은 이처럼 진리의 설법은 언어를 빌지 않고 설법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설전을 지나 108개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면 아미타전이 있습니다. 왜 108개입니까. 인간의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에 감각의 대상인 색성향미촉법, 즉 6가지에 6가지를 곱하면 36이 되고, 다시 과거, 현재, 미래 삼세로 또 곱하면 108번뇌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께 불국사의 풀 한포기, 돌멩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아시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학여행때 꼭 불국사를 들르기 마련이지만 대다수가 이러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교육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죠. 저는 초중고를 마칠 때까지 불교가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만 제일이라고 배웠지요. 원효, 의상대사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는 미처 배우지 못했어요. 또 레오나르도다빈치의 모나리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최고인줄만 알았지 신라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이 얼마나 표현력이 뛰어난 작품인지는 몰랐습니다. 반가사유상에는 깨달음, 달관의 모습을 섬세하게 깃들어있었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정신, 이를 이해 못하는 한 결코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지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불교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불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중국에서 부상중인 불교

오늘 인도불교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세계 4대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 회교, 힌두교, 불교에는 인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진리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교세만으로 따지면 불교는 최하위에요. 회교, 즉 이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은 힌두교가 두 번째, 힌두교는 인도의 민족종교인데 인도 인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놀랄만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택동 정부 수립 이후 반 종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렇게 종교를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문화혁명 이후 돈벌이를 위해 사찰을 복원하고 하는 과정에서 불교가 눈에 들어온거에요. 북경시내만 해도 절이 참 많습니다. 그 중 백림사라는 절에서는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을 매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북경시내 구청에서 간추린 결손가정들 명단을 받아 하루 10명씩을 도와주는 것이었죠. 1년이면 3650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보시에 입각한 불교의 사회공헌은 중국 정부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중국 국민 중 반만이라도 불교를 믿는다면 세계 종교 중에서 불교의 교세는 1위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불교문화를 전파하는데 중국의 힘이 크겠지요.

다른 이야기지만 한, 중, 일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은 불교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로도, 경제적으로도 되지 않아요. 불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신념이기 때문에 한중일을 엮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역시 불교가 미래의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밑천이 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2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2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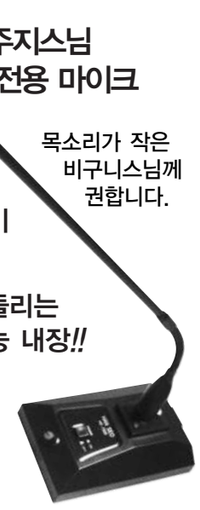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25년 자비나눔 원동력은 '부처님 가르침'

창원불교연합회 2월 13일 신년하례회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원행)는 2월 13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신년하례회를 봉행하고 '제25회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를 개최했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창원불교연합회는 50여 사찰 및 신행단체, 불자 기업인, 공무원 불자회 등 창원 불교 관계자 및 단체 등이 참여, 25년간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신년하례회에서는 창원불교연합회, (주)몽고식품, 창원시청공무원불자회, 불자업체, 신행단체 등이 모은 성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위로성금 1,500만원, 저소득가정 모범청소년 학자금 1,100만원, 다문화가정 600만원, 독거노인, 창원시각장애인협회, 관해사 무의탁 환우에게 1,000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후원 협찬으로 설맞이 제수용품 및 떡국, 꽃다발, 뷔페가 마련됐다.

식전공연을 남승민의 무대를 시작으로 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 성금 및 후원물품 전달 및 후원결연 등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창원불교연합회 회장 원행 스님과 창원불교연합회 부회장 원광 스님, 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안상수 창원시장,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모범 청소년, 다문화세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장 원행 스님은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 위로금과 장학금 등을 전달받는 다문화가정과 청소년들 모두 희망과 용기를 갖고 한 발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창원불교연합 소속 50여 신행단체
소외이웃에 장학금 및 성금 전달
25년간 총 7억 여원 후원 '훈훈'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원행)는 2월 13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신년하례회를 봉행하고 '제25회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를 개최했다.

창원불교연합회의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은 25년 전 처음 마창불교연합회(마산 · 창원불교연합회)가 창립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당시 마창불교연합회 초대 회장 지안 스님(통도사 반야암 주석 · 서울불학승가대학원장)의 발원으로 연합회를 만들고 뜻있는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게 된 것이다.

특히, 8년전부터는 '창원불교연합회의 나눔'에서 각 지역 신행단체, 후원 기업, 신도회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총 후원금 및 협찬 금액이 7억원을 넘어 섰다. 창원불교연합회는 "최근 다문화 가정까지 포함해 지원을 늘려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불교연합회 박수철 사무총장은 "25년간 나눔을 이어 온 가장 큰 원동력은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가고 있는 창원불교연합회는 곧 보살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전한다.

한편, 2010년부터 마산 · 창원 · 진해불교연합회가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창원불교연합회는 올해 지역의 특색에 맞춰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외국인이 많은 진해는 다문화 축제를, 불교연합회 본부가 있는 창원시는 연등 축제, 마산은 봉축 음악회를 대대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이리불교대학 24기 졸업식 개최

2월 15일 관음사 대웅전서

전북 익산지역의 유일한 신도전문교육기관인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 관음사 주지)이 24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2월 15일 관음사 대웅전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학장 덕림 스님을 비롯해 김진수 부학장 등 교수진과 졸업생과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졸업식에는 공영우 불자 등 18명이 1년 과정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김해영 불자가 포교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성적우수상을 수상했다.

학장 덕림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노력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꾸준한 신행활동과 자리이타를 기본으로 한 전법활동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991년 설립돼 24기 1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리 불교대학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익산지역 불교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리불교대학이 2월 15일 24기 졸업식을 개최하고, 1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부산 장안사, 2월 13일 종각 상량식

10년 불사 종합정비계획 첫 시작… 6월 30일 완공 예정

부산 기장 천년고찰 장안사(주지 정오)가 2월 13일 장안사 종각(鐘閣) 상량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범어사 前주지 정여 스님,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 장안사 前주지 정현 스님,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안사는 6월 30일까지 종각 건립 불사를 회향할 계획이다. 현재 장안사의 종각은 천왕문을 겸하는 전각의 상층에 위치한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형태로 1987년 요사채 불사 당시 함께 건립됐다. 천왕문과 함께 장안사 입구에 배치돼 있어 장안사를 찾는 관람객이 처음 접하는 곳이다.

주지 정오 스님은 "그간 장안사 종각과 천왕문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전통사찰의 격에 맞지 않아 개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지금 불사 진행 중인 종각은 장안사 해동


부산 기장 장안사가 2월 13일 장안사 종각 상량식 장면.

전 서쪽 맞은편에 위치한다. 낮은 누각의 형태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형태로, 크기는 정면 약 7m, 측면 4m로 종(鐘)과 함께 법고(法鼓)가 앞으로 안치된다.

정오 스님은 "종각이 완성되면 의식과 예불을 봉행 할 때 종과 법고를 사용해 천년 고찰에 어울리는 여법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기획전 '이이남의 컬렉션과 우정1'

3월 12일까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서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대표 청학)는 2015년 한 해 동안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며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이이남 작가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그 첫 번째 행사인 '이이남의 컬렉션과 우정1'은 2월 13일~3월 12일까지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이이남 씨가 동료 선 · 후배들의 전시회에서 구매한 작품을 소개하는 이색 전시로 미디어아트와 회화,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미술 애호가가 아닌 전문 작가가 동료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지만, 작가들의 동의를 얻어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이채롭다.

강운, 윤남웅, 김상연, 정운학, 손봉채, 박일구, 차규선, 이정록 등이 참여작가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포함해 1년간 진행될 이번 기획전은 △3월 봄 봄 봄 전△4월 뉴미디어 아트 5인전 △5월 신창운 전 △7월 신인작가 꿈 전 △9월 매체 미학 전 △9월 박일구 전 △10월 시인과 미술전 △10월 조대원 조각전△11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선정 1주년 기념전 △11월 이



'이이남의 컬렉션과 우정1' 포스터

이남 컬렉션과 우정 2 △12월 눈 전 등이 이어진다.

한편, 이이남 작가는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삼성전자 전속협찬작가, WCC세계자연보전총회 홍보대사, 광주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준비 자문위원, 예일대학교, 고려대, 서강대 등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화여고 27회 졸업식 136명 졸업

2월 12일 교내 동곡관에서

학교법인 동곡학원(이사장 돈관) 선화여고(교장 장정익)의 제 27회 졸업식이 2월 12일 교내 동곡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은해사 관장 돈명 스님, 동곡학원 이사장 돈관 스님, 중앙종회의원 덕조 스님 외 은해사 국장소임스님, 각말사 주지스님, 지역기관장, 단체장, 학교운영위원장, 총동창회장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양세화 학생 외 136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또한 김가은 외 7명이 우등상을 수여했고 개근상, 품행상, 공로상 등 143명이 학교장상 을 받았다.

특별상으로는 조계종 총무원장상 조수빈, 재단이사장상 유지원 학생 외 3명이 26곳 기관의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어 재단이사장 장학금은 유지원 학생이, 지산장학금은 김가은 학생이 수여했으며 장학금은 각 200만원이다.

동곡학원재단장학회장 돈명 스님은 "그동안 선화여고가 지역 명문 사학으로 자리잡게끔, 사랑과 자비로 열심히 가르치고 보살펴준 장정익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는 2014학년도 제27회까지 5,1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손문철대구지사장


선화여고 제 27회 졸업식이 2월 12일 교내 동곡관에서 열렸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최고 CEO 컨퍼런스'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가 불교 지도자들을 위한 '제2기 부산불교 최고 CEO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부산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산업체 리더, 단체장, 사찰 신도회장 등을 대상으로 불교 교학과 신행활동 점검을 위해 마련된다. 또한 부산 불교계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도 열린다. 교육내용은 불교사상, 불교문화, 불교 역사 및 명사 특강이 마련된다.

강사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조계종 원로 정관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및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 정계 및 재계 인사들이 담당한다.

개강은 3월 19일 코모도 호텔에서 열리며 교육기간은 2015년 3월~2016년 2월, 1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장소는 부산불교회관 4층 부산불교연합회 교육관이다. (051)861-8800

하성미 기자

2015(불기 2559)학년도 삼학불교 전문강원 학인모집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모 집 안 내

※ 배우지 않고 어찌 부처를 말하랴?

과정	기간	교 육 과 목		강의요일	강의시간	비 고
		1학기	2학기			
치문반	1학년	초발심자경문	치문경훈	월 · 화요일	오후 6시 ~ 9시	
사집반	2학년	도서, 선요	서장	목 · 금요일	오후 6시 ~ 9시	
사교반	3학년 4학년	금강경오가해, 대승백법명문론, 원각경		2016학년도 개강 예정임		
		대승기신론, 능엄경				

◆ 모집인원 : ○○명
◆ 개강일시 : 2015년 3월 9일 → 치문반 (1학년)
2015년 3월 12일 → 사집반 (2학년)
◆ 강원수강료 : 1학기당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2매
◆ 접수문의 : ☎ 02) 833-0374, 010-9728-0788
※ 한문이 익숙치 못한 분이라도 낱자를 잡아 강의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상 원 사 주 지 정산당 법 정
삼학강원 강 주 도 종 (※전 태고종 중앙강원 강주) 합 장

명 리 학(미래예측학) 모집

木 火 土 金 水

◉ 흉함을 피하고 "길" 함을 좇는다 ◉

◎ 모집학과
○ 명리기초반 : 6개월 (목요일 14:00 ~ 17:00)
○ 명리고급반 : 6개월 (금요일 14:00 ~ 17:00)
○ 통변실전반 : 6개월 (개인지도)

◎ 개강일시
○ 기초반 : 3월 12일 14:00 ~ 17:00
○ 고급반 : 3월 13일 14:00 ~ 17:00

◎ 수강료
○ 기초반 : 월 20만원
○ 고급반 : 월 30만원
○ 실전반 : 별도상담

◎ 문의전화
○ 교수직통 : 010-5205-6535
○ 사무실 : 02) 833-0374

◎ 강사 : 서전 윤 관 교수
(※ 현 상원사 백상문화원 부원장)

※ 천기누설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말라

오시는 길
①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8-4 상원사 관악농협 대림동지점 맞은편
② 지하철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 /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1번 출구 > 로 나오셔서 문의주세요

– 대만 "공승제" 6일

● 출발일 : 9월 3일 요금문의

[부산출발] 구화산 / 보타산 6일

출발일 : 5월 29일, 6월 17일 요금문의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초특급상품] 출발일 : 5월 30일, 6월 6일 요금문의

[실 속 상 품] 출발일 : 5월 27일, 6월 13일 159만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출발일 : 3월 11일 요금문의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라오스 6일

출발일 : 6월 2일, 6월 23일 요금문의

[민족의 영산] 북경 / 백두산 5일

출발일 : 6월 1일, 6월 29일, 7월 13일 요금문의



마하연투어 since1994

문의처 : 02) 365-7747

청정행 두손모음

특별함

1. 직영운영으로 중간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 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 불교행사, 봉사단체, 패키지여행





www.mahayeon.com

인천 또는 부산 출발 순례 상품

• 특급호텔 • 추가경비 없음 • 타사비교필수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포함 **꽃보다 청춘 라오스** 6일
라오항공 직항 비엔티엔, 루앙프라방, 방비엥

대한항공 직항 **스리랑카** 6일

[3대성지 순례]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헤호 5일

[앙코르왓트]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노이–양곤] **베트남–미얀마** 6일

[지장도량 / 관음도량] **상해/항주/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출발일: 3월 11,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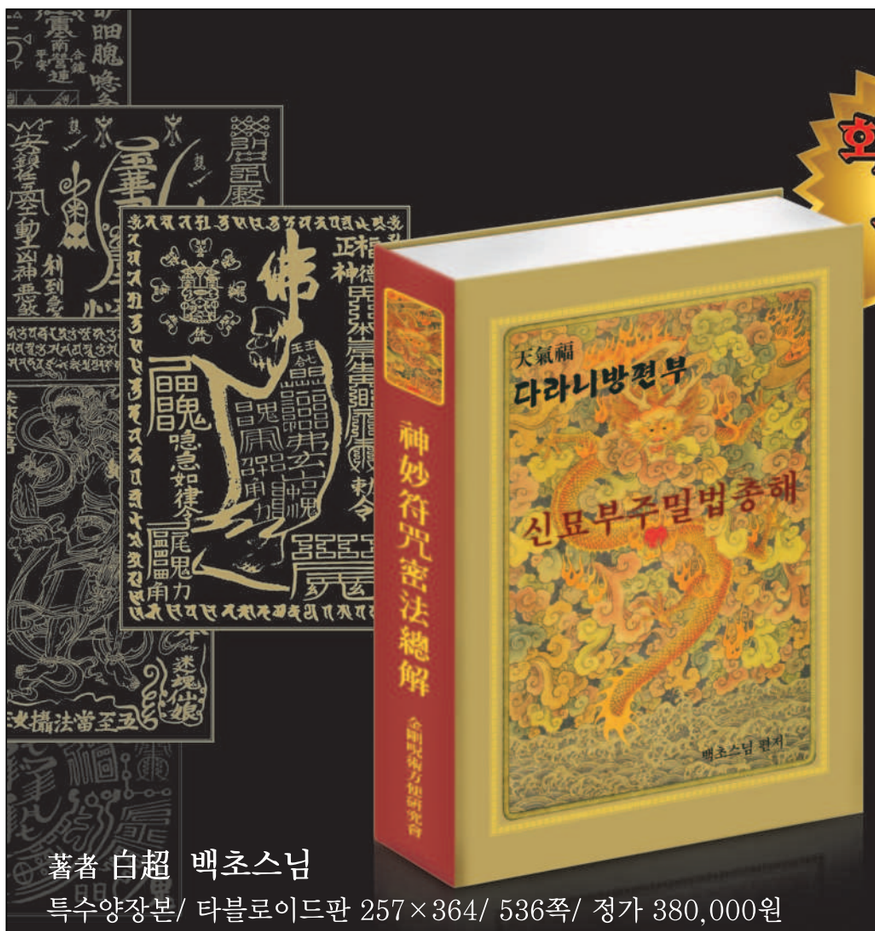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5월26일.6월2일.6월9일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출발일: 5월29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5월29일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인도–네팔 8대성지** 11일

하와이 6일(2일관광+2일 자유시간) 152만원 ~ 부터
스페인/포르투칼 하이라이트 8일 197만원 ~ 부터
터키/그리스 9일 토요일 출발 287만원 ~ 부터



화제의 신간

天氣福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943-6882 /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 협 023-02-500940
우체국 310417-02-169082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75,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5,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8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바림등(8cm)

비닐만월등 ▶
판매가 150,000원
• 1BOX : 100개
• 등지름 : 30㎝
할인가 3,200원 (30개이상)
정 가 3,800원
• 1BOX : 30개 • 등지름 : 24㎝
• 빨강,보라,주황,분홍,진분홍,흰색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전구(10W)
@ 2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PVC영가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 기 : 8.5㎝×21㎝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집게부착 20,000원
• 크기:8.5㎝×21㎝ • 진분홍, 연분홍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4,000원
판매가 10.5cm 4,500원
판매가 12cm(한제)10,000원
※1묶음당 10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5cm 38,000원
※ 1묶음당 50개를 만들수 있음.



한지 칼라등지
완성품



플라스틱 등표연결집게
판매가 15,000원(100개)
• 연두색 / 흰색 中 선택



PVC등표 전용펜
판매가 2,000원
• 제 조 사 : 사쿠라 (일본)
• 가는 글씨와 굵은 글씨를 쓸수 있는 양면 펜.
(★검정색)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바림등(6㎝) @2,700원 (6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3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16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6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2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1개이상)

• 공단등(6㎝) @3,000원 (60개이상)
• 공단등(8㎝) @3,600원 (30개이상)
• 공단등(10.5㎝) @7,000원 (16개이상)
• 공단등(13㎝) @15,000원 (6개이상)

• 비닐만월등 A형(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연화만월등(100개) 20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만월등(국산100개) 22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등철사(100개)
6㎝ 75,000원 / 8㎝ 80,000원
10.5㎝ 85,000원 / 12㎝ 100,000원



일반연잎(소/대) 6,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바림연잎/한지바림연잎
7,500원 / 8,5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천바림연잎 30,000원
진분홍/ 주황/ 빨강/ 연분홍 / 보라
수량 : 약 1,200장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당 침략 막아낸 사천왕사와 망덕사 탑

탑의 진화

㉚ 탑의 진화 (신라의 불탑 3)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의 목탑지〈사진1〉는 경주시 배반동의 선덕여왕릉 진입로에 있다. 이곳은 신라 시대 사천왕사의 목탑지로, 사적 제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라 문무왕 당시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웠다는 호국의 사연을 가진 목조불탑이다.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도로 건너편에는 주민들의 밭으로 이용되는 경작지가 있는데, 밭의 한 가운데엔 초석들이 아무렇게나 뒹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사천왕사지와 함께 신라 호국불교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망덕사지 목탑지이다.〈사진2〉 이곳은 현재 주민들이 밭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삼국유사〉 제2권 문무왕 법민조에는 사천왕사와 망덕사가 창건된 경위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 내용을 요약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기 668년 신라가 당나라와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을 때, 당나라 유격병과 여러 장병들이 진에 머무르며 신라를 습격하고자 하였다. 왕이 이를 깨닫고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 다음 해 고종이 김인문 등을 불러 꾸짖어 말하였다. "신라가 당의 군사를 요청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해치는 것인가?" 그 뒤 고종은 김인문을 옥에 가두고, 군사 50만을 훈련시켜 설방(薛邦)을 장수로 삼아 신라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이 때 서쪽을 통해 당나라에 들어 간 의상대사가 김인문을 만났다. 김인문이 이 사실을 알려주자, 의상대사는 신라로 돌아와 왕에게 아뢰었다. 이에 왕은 크게 걱정하며 여러 신하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각간 김천존(金天尊)이 말했다. "최근 명랑법사(明朗法師)가 용궁에 다녀와 비법을 전수받았으니, 그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왕의 부름을 받고 온 명랑법사는 이렇게 말했다. "낭산(狼山)의 남쪽에 신유림(神遊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창건하고 도량을 개설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정주(貞州)에서 사람이 달려와 급히 보고하였다. "무수히 많은 당나라 군사가 우리 국경에 들어와 바다 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왕이 해결책을 묻자, 명랑법사는 "채색 비단으로 임시 절을 지으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채색 비단으로 절을 꾸민 뒤, 풀로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위를 맡은 오방신상(五方神像)을 만들었다. 그리고 유가에 밝은 스님 12명을 모아, 명랑을 앞세워 문두루(文豆婁) 비법을 쓰게 하였다. 그러자 당나라와 신라 군사가 아직 싸움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사납게 일어 당나라 배들이 모두 가라앉았다. 그 후 절을 고쳐 다시 짓고 사천왕사(四天王寺)라 하였다.

그 뒤 신미년(서기 671)에, 조헌(趙憲)을 장수로 삼아 또 다시 5만의 당나라 군사가 신라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그 비법을 또 사용하자 예전처럼 배가 모두 침몰하였다. 그러자 당나라 고종이 당시 감옥에 가두었던 박문준(朴文俊)을 불러 물었다. "너희 나라에서는 대체 무슨 비법을 쓰기에, 당에서 두 번이나 대군을 보냈는데도 살아 돌아오는 자가 없는가?"

이에 박문준이 아뢰었다. "저희들은 당나라에 온 지 오래되었기에 본국의 사정은 잘 모르옵고, 다만 멀리서 한 가지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의 은혜를 두텁게 입어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 은덕을 갚기 위해 낭산 남쪽에 사천왕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곳에서 황제의 만수를 빌고자 오래도록 법석(法席)을 열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고종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예부시랑 악붕귀(樂鵬龜)를 사신으로 보내 그 절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당나라 사신이 온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된 왕은 절을 숨기기 위해, 그 남쪽에 따로 새 절을 지은 뒤 사신을 기다렸다. 사신이 도착하자 곧 새 절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사천왕사가 아니라 곧 망덕요산(望德遙山)의 절이외다." 말을 마친 사신은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자 신라 사람들이 금 일천 냥을 주었더니, 그 사신은 본국으로 돌아가 이렇게 아뢰었다. "신라에서 사천왕사를 지어 황제의 장수를 빌고 있습니다." 그 뒤 당나라 사신의 말에 따라, 새로 지은 그 절을 망덕사(望德寺)라 불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라가 사천왕사를 지은 공덕으로 당의 군사를 물리치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냈다는 것이다. 강한 군사력이 아닌 깊은 불심을 통해 나라를 지켰다는 점에서, 호국불교에 대한 신라인들의 뚜렷한 목표의식과 믿음이 느껴진다. 이렇게 사천왕사와 망덕사는 부처님의 힘을 통해 당나라를 막아내고, 신라를 수호하고자 하는 신라인들의 불심을 바탕으로 지어졌다. 신라인들은 본래 지은 사천왕사를 당나라 사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황제의 안녕과 수복을 빈다는 거짓 명목을 만들어 그 옆에 새 절을 지었다. 또 사신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사천왕사의 존재를 비밀에 부쳤는데, 이처럼 호국불교의 상징물을 지키려 한 신라인들의 노력과 의지가 사천왕사와 망덕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기에는 사천왕사를 조성하고 호국의 의지를 불태웠던 그만한 사상적 배경이 있었다. 바로 〈금광명경〉등의 경전에 나오는 '사천왕' 신앙이 그것이다.

사천왕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엿볼 수 있는 수미산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수호하는 신을 말하며, 사대천왕, 호세사천왕 등으로 부른다. 인도에서 불교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힌두교사상에는 브라만, 뷔쉬뉴, 시바의 3대신을 비롯하여 그들을 보좌하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신들은 불교사상의 발전에 따라 불교화 되어 부처님의 권속으로 포함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들이 범천, 제석천 등이며, 사천왕 역시 부처님이 계신 곳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천왕 중에 동쪽의 드리다라쉬트라(Dhritarashtra)는 '나라를 지킨다' 라는 뜻으로 지국천왕(持國天王)이라 한다. 이 왕은 '건달' 이라는 용어의 어원이 되는 '건다르바' 를 부하로 다스리는데 건다르바는 향을 먹고사는 귀신이라는 뜻이다. 남쪽의 비루다하카(Virudhaka)는 '자꾸 늘어난다' 는 뜻으로 증장천왕(增長天王)이라 하며, 서쪽의 비루파카샤(Virupaksha)는 '큰 눈을 가졌다' 는 뜻의 광목천왕(廣目天王)이며, 북쪽의 바이스라바나(Vaisravana)는 '두루 많이 듣는다' 의 뜻으로 다문천왕(多聞天王)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대천왕의 모습은 전하는 경전마다 차이가 있다. 먼저 손에 들고 있는 지물만 보더라도 칼, 보주, 창, 비파, 보탑 등 매우 다양하여 이를 조각 등으로 표현한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천왕의 모습은 달리 표현된다.

〈금강명경 사천왕품〉에 의하면 사천왕의 불법수호 의지와 영험을 강조하고 있다.

"세존이시여, 이 금강명경은 하늘 사람들의 궁전에 비추며, 중생들에게 기쁨을 주고, 지옥과 아귀와 축생들의 모든 강물을 말려 없애 주며, 모든 공포를 없애줍니다. 또한 이 경은 다른 지방의 원수와 도둑을 물리치며,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하고 굶주리는 것을 없애 주며, 온갖 병을 낫게 하며, 나쁜 천재지변을 소멸하며, 모든 근심을 없애 줍니다. 즉 이 경은 모든 중생들의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 가지 고통과 번뇌를 없애 주나이다 …중략… 세존이시여, 우리들 사천왕과 하늘 사람과 용왕 · 귀신 · 건달바 · 아수라 · 가루라 · 긴나라 · 마후라가들은 법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나쁜 귀신으로서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무리들을 막나이다. 만일 이 나라에 해로운 일이 있거나, 원수가 국경을 침노하거나, 흉년들고 병이 도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적에, 어떤 비구가 이 경을 받아 지니면, 우리들은 그 비구에게 권하여 우리 힘으로써 그 비구를 그 나라의 도시나 작은 고을에 빨리 가서, 이 미묘한 금광명경을 널리 말씀하여 유포케 하여서, 이런 가지가지 재변을 소멸케 하겠나이다!

이 경설에 의하면, 외세가 국경을 침범하고자 하면 사천왕이 그들을 막아주고 나라와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내용이 있다. 신라인들 역시 이에 근거해 사천왕사를 짓고 쌍탑을 조성한 것이다. 이같은 사천왕의 불법 수호 신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국가〈사진3〉에서도 신봉됐다.

한편, 〈삼국유사〉 외에도 〈삼국사기〉 역시 망덕사 창건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 전한다. 〈삼국사기〉 제8권 신라본기8 신문왕 5년(685)조를 살펴보면, '여름 4월, 망덕사(望德寺)를 완성하였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삼국유사와 비교했을 때, 망덕사의 창건 시기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문무왕 때 망덕사 창건을 시작하여 신문왕 때 완공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삼국사기〉 제 9권 경덕왕 14년(755)조에는 망덕사의 탑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망덕사(望德寺) 탑이 흔들렸다.' 라는 기록과 함께 언급된 〈신라국기(新羅國記)〉에는, '신라가 당나라를 위해 이 절을 세운 까닭에 이름을 망덕사라 지었다. 두 탑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높이는 13층이다. 두 탑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떨어졌다 붙었다 하며 곧 넘어질 듯하였다. 이러한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됐다. 이 해에 안록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났는데 아마도 그 감응이 아닌가 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삼국사기〉의 이러한 기록을 통해 당과 망덕사의 연관성을 잠깐 엿볼 수 있다. 안록산(安祿山)의 난은 당나라 중기에 안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을 말한다. 사천왕사와 망덕사는 분명 당의 침략을 막고 신라를 수호하기 위해 지어졌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기록에 따르면 망덕사는 황제의 안녕과 수복을 빈다는 거짓 명목과 함께, 그 이름은 당의 사신에 의해 지어졌다. 때문에 당나라에서 황제의 신변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신라에 있는 망덕사의 두 탑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당나라와 망덕사가 갖는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망덕사는 강한 외세로부터 나라를 수호함과 동시에, 당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신라인들의 신앙심을 간직한 호국불교 사상의 상징물로서 작용했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사진1〉



사천왕사지의 목조쌍탑지. 경주시 배반동 선덕여왕릉 진입로에 있다. 신라 문무왕 당시 당나라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웠다.

〈사진2〉



망덕사지 목조 쌍탑지. 사천왕사지로부터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인들은 본래 지은 사천왕사를 당나라 사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황제의 안녕과 수복을 빈다는 거짓 명목을 만들어 그 옆에 새 절을 지었다.

신라, 당나라 공격 막기위해
불심바탕으로 '사천왕사' 건립
절 존재 감추고 황제안녕 빈다며
'망덕사' 로 당 속이는 묘책 발휘
호국불교 상징 지키려는 의지

〈사진3〉



일본 오사카에 있는 사천왕사지 5층목탑. 외세가 국경을 침범하고자 하면 사천왕이 그들을 막아주고 나라와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내용이 있다. 이같은 사천왕의 불법 수호 신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신봉됐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화엄의 꽃 절집 천정
〈29〉 도솔산 선운사 대웅보전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새겨진 천룡의 세계


천정 가장자리에 장엄한 천룡의 세계 부분. 빗반자와 판벽천정 아홉 칸마다 거대한 적룡, 황룡, 백룡, 흑룡들을 다양한 색채와 형상으로 풀어 하늘의 천정이 가히 천룡(天龍)의 세계다.


천정 중앙 칸에 베푼 하늘꽃. 천정의 꽃은 본질적으로 부처이자, 진리를 표현한 화엄의 꽃이다.

무염스님 제작한 비로자나 삼존불

고창 선운사는 꽃절이다. 순천 선암사, 서산 개심사와 함께 사시사철 만화방초로 화엄의 뜨락을 이루는 화장세계(華藏世界)의 대표적인 꽃절이다. 4월의 봄이면 벚꽃과 산벚이 절의 초입을 청사초롱으로 밝히고, 500살 먹은 2,000여 그루 선홍빛 동백이 대웅보전 뒤를 잡화엄식(雜華嚴飾)으로 동백꽃 병풍을 펼친다. 8월의 여름이면 배롱나무꽃이 대웅보전 창호에 붉은 단청빛을 입히고, 가을로 접어들 무렵이면 꽃무릇이 붉은 주단을 장대히 펼쳐 선운사로 향하는 처처에 저절로 길이 생길 판이다. 그 길의 중추에 동백꽃처럼 아련한 대웅보전이 그리움처럼 자리 잡았다.

선운사 대웅보전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건물을 1614년에 재건한 17세기 건축이다. 경작지의 근 70%가 황폐화 되고 인적, 물적자원이 완전붕괴된 전란 이후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17세기 전반기의 사찰중건에는 그 모양을 갖추는데 20~30년의 시간이 예사로이 소요되었다. 선운사 대웅보전만 해도 그렇다. 1614년에 법당을 세운 후, 1619년에야 단청의 빛을 입히고, 20년이 지난 1633년에 흙으로 빚은 소조 비로자나 삼존불상을 조성하여 법당에 모셨다. 삼존불상의 조각승은 당대의 명장 무염(無染)스님과 문하승들이셨다. 무염스님은 1630년대에서 1650년대까지 전라도 일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조각승이다. 어려운 시대상황임에도 대웅보전은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 구례 화엄사 대웅전처럼 정면 5칸, 측면 3칸의 큰 규모를 갖추었다. 법당의 장대한 규모에 맞게 비로자나 삼존불상도 장대한 크기로 조영되었다. 불상대좌 밑면에 묵서명을 통해 비로자나불, 약사여래, 아미타여래의 삼존불상 존명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경주 기림사 삼존불상과 같은 배치다. 무염파의 조성주체와 1633년이라는 조성연대를 정확히 밝히고 있어 불상연구의 양식과 편년연구에 귀중한 비교기준을 제공한다.

장대한 흙벽에 그린 후불벽화

대웅보전에서 불상과 함께 단연 주목을 끄는 것은 후불탱화다. 얼핏보면 견본채색의 탱화로 보이지만 사실은 후불벽의 흙벽에 그린 벽화다. 삼존불의 존상에 배대해서 각각의 후불벽화를 배치했다. 후불벽화는 대략적으로 가로 450cm, 세로 320cm 정도 크기의 각각의 흙벽에 회칠을 하고 채색을 넣었다. 벽화에 입힌 주된 색채는 석간주와 양록, 백색의 삼색이다. 비로자나불벽화 하단의 화기에 의하면 후불벽화는 1840년 성찬스님을 화주로 하고, 의겸스님의 맥을 이은 익찬, 내원, 화윤, 도순 등 11명의 화원이 그린 작품이다. 1839년 여름 장마로 법당 오른쪽 2칸이 무너져 1840년 봄, 여름에 걸쳐 보수 및 단청을 하면서 후불벽화의 빛을 넣은 것이다. 붓질은 마치 종이나 비단에 그린 듯이 채색과 필선이 대단히 부드러우며 섬세하다. 수직으로 세워진 장대한 흙벽에 벽화를 그려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견본채색의 후불탱화와 진배없이 사천왕의 터럭 한 올 한 올까지 섬세하게 붓질해서 놀라울 따름이다. 특히 벽화 위에는 두루마리 흰 경전을 펼쳐 놓은 듯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산스크리트어 범자로 세 칸에 나누어 적어 두어서 주목된다. 다라니는 무량한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총지(摠持)의 진언이다. 그 뜻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오묘하여 번역하지 않고 범어 그대로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천수경〉의 핵심요체로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여 독송하면 모든 죄업이 소멸하고, 반드시 소원을 이루며, 15가지 좋은 복덕을 받는다는 신비한 다라니로 알려져 있다. 장문의 다라니를 후불벽, 또는 주불전 내에 사경처럼 범자로 새겨서 장엄한 경우는 선운사 대웅보전이 유일해서 학술적, 불교미술사적 의의를 더한다.

현존하는 후불벽화 국내 세 곳뿐
관음벽화와 신묘장구다라니 공존
후불벽화, 무위사 후불벽화와 쌍벽
용은 생명력의 물이자, 신성 수호력

후불탱화가 벽화인 곳은 국내에서 세 곳 뿐이다.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과 안동 봉정사 대웅전, 그리고 선운사 대웅보전이다. 그런데 봉정사 대웅전의 영산회상 후불벽화는 따로 떼어내어 성보유물 전시관에 보관중인 까닭에 결국 두 곳에만 후불벽화가 제자리에 있는 셈이다. 특히 선운사 대웅보전 후불벽화는 세 칸에 이르는 유례없는 대형벽화인 점을 고려할 때, 유일무이한 국보급 문화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후불벽화의 뒷벽에는 수월관음벽화가 등을 맞대고 있어 하나의 후불벽 양 측면에 불보살벽화가 동시에 그려진 미증유의 사례를 보인다. 이러한 사례는 오직 무위사 극락보전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만 배관할 수 있는 극히 희소한 경우다. 후불벽 뒷벽의 수월관음벽화도 무위사, 내소사, 여수 흥국사, 마곡사, 양산 신흥사, 창녕 관룡사 등 전국에 걸쳐 13곳에서 드물게 있어 그마저도 흔치 않다. 수월관음도는 일렁이는 파도 위를 폭발하듯 힘차게 솟아오른 초대형의 커다란 연잎에 황토색 법의를 차림한 수월관음께서 자애로운 향안으로 나투시는 장면을 그렸다. 삼라만상 가운데 홀연히 출현하신 모습처럼 다가온다.

청색계열의 삼청빛 연잎을 관음보살보다 더 크게 그린 점이 인상적이다. 〈대지도론〉 권8에는 어째서 부처께서는 항상 연꽃 위에 앉으시는가?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연꽃은 더없이 깨끗하며 부드러운 꽃이다. 부드러워 앉으면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처가 앉으면 그 부드러운 꽃조차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신통력 때문이다. ...(중략)... 인간세계의 연꽃의 크기는 한 자를 넘지 못한다. 도리천 연못의 연꽃은 수레의 일산만하게 크지만, 가부좌를 틀만한 천상의 연꽃 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실제로 부처께서 앉으시는 연꽃은 그보다 백 천 만배나 더 크다. 연화좌는 부처님께서 앉으실만한 유일한 크기의 커다란 꽃이면서도 깨끗하고 향기로우며 미묘하니 그만한 꽃이 없다." 경전에서 밝힌 하늘 연꽃의 실상을 시각적 도상으로 보여주는데 있어 이만한 벽화가 또 없을 것이다.

살미부재에 베푼 형형색색의 단청

대웅보전 내부는 신령의 미묘한 기운이 스멀거리듯 피부에 와닿는다. 한국의 사찰장엄에서 내부에 흐르는 신성의 기운과 종교적 관념은 건축장치를 응용하거나 회화, 혹은 문양의 패턴으로 표현하면서 일반적인 형태로 점차 정형화 되었다. 건축장치를 이용한 대표적인 방식이 공포구조를 이용한 성스러운 분위기의 연출과 신령의 기운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즉 건축부재에 정신적이며 철학적인 특성을 간직한 전통적인 선과 색채를 부여한 것이다. 건축 공포에서 기둥에서 천정으로 툇아 오르는 살미부재의 중첩적 역학구조는 공간에 정신적 힘을 부여하는데 합목적적으로 유용하게 응용 되었다. 선운사 대웅보전의 살미장치 응용형태는 대단히 심미적이며 인상적이다. 평방의 주두, 혹은 주심기둥으로부터 붉은 색채의 주술적 기운이 뻗어나와서 넝쿨로 용틀임치듯 굽이쳐 오른다. 용틀임의 기운은 첨차의 층급마다 탐스러운 연꽃 봉우리와 새싹을 뻗치며 층층이 형형색색의 구상적 조형으로 분출다가, 종국에는 봉황의 기세로 극적 화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층급 살미부재의 마무리를 용이나 봉황으로 처리한 것은 내부 공간에 신성한 기운들이 끊임없이 퍼덕이며 꿈틀대고 있다는 생명력의 충만함을 강하게 상징한다. 더욱이 색채 배채에서 주황, 보라, 노랑, 하엽의 순서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어 무한수열의 수리적 규칙처럼 발산하는 의지를 뚜렷이 담아냈다. 가로로 장대한 살미와 그에 베푼 형형색색의 채색이 구조적 아름다움과 생동감을 한층 고양한다. 대웅전 기둥 하나 하나는 생명의 나무이면서 우주목으로서 위상을 지닌다.

거대한 적, 황, 백, 흑룡의 천정

선운사 대웅보전 천정장엄에서 가장 특징적인 대목은 유례없는 거대한 용의 장엄세계에 있다. 천정의 구조는 가장자리가 빗반자이고, 가운데 부분은 우물천정이다. 검단스님의 선운사 창건설화에 의하면 선운사는 원래 용이 살던 큰 못이었다. 못을 메워 절을 세웠다. 마치 연기설화를 입증이라는 하듯 빗반자와 판벽천정 아홉 칸마다 거대한 적룡, 황룡, 백룡, 흑룡들을 다양한 색채와 형상으로 풀어 하늘의 천정이 가히 천룡(天龍)의 세계다. 용은 만유의 생명력과 변화의 근원인 물을 상징하고, 우주에 가득한 기(氣) 에너지이며, 신성을 지키는 수호력의 상징이다. 사찰장엄에서 용의 표현은 목조건축과는 절대상극인 화기를 다스리고, 종교적 신성을 결계하고 호위하는 수호력의 강력한 부적이자, 내적의지의 힘이다. 부안의 개암사 대웅전에서 입체적 용 조형의 반복적 배치를 통해 종교적 신성 수호자로서 용의 집단적 위용을 실감하였다면, 선운사 대웅보전에서는 거대한 용의 평면 회화적 반복을 통해 시공을 초월한 광대무변(廣大無邊)의 불국토장엄에 대한 신심을 얻는다. 푹풍우가 몰아치듯 여의보주를 취하려 거세게 용틀임하는 파죽지세의 용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그 신성의 불국토에 밤하늘의 별처럼 진리의 꽃, 화엄의 꽃들이 총총히 빛난다. 선(禪)의 구름(雲)에서 취한 진리의 한 맛, 일미(一味)일 것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신비한 운명의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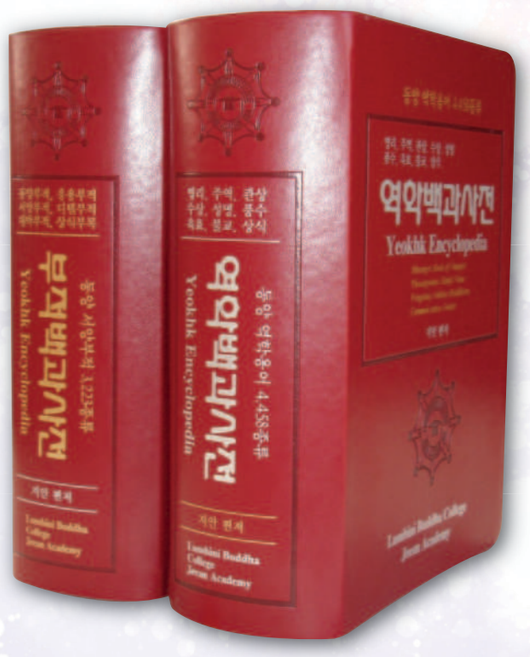
동·서양부적 총 집대성



부적백과사전
제1편-육십갑자신묘부적 • 안전제해예방부 • 삼재소멸부 • 복약효력부
제2편-만사형통부 • 만사형통남사주부 • 개운팔진양둔팔문부 • 천신통령부
제3편-물고기자리부 • 영문형 희란야 • 서양주술행복양부 • 서양주술화합결합부
제4편-사랑부적 • 재물금전부 • 학업진학부적 • 고사개업부적 • 자식임신부적
링타리스만부적
제5편-대박추첨1일부적 • 희란야성취12지부 • 사업번영부적 부록 : 사주 해인도

미국역학사 자격증 과 신분증




동·서양부적 3.223종 ◓ 동양 역학용어 4.458단어

역학인의 필독서

동양의 역리학 음양오행은
우주 자연 섭리에 따른 진리의 학문이요
우리 삶의 이정표이며 생활의 지표이다.

역학백과사전
가취대흉일(嫁娶大凶日) • 가취월(嫁娶月) • 갑경충(甲庚沖) • 나경((羅經) • 오행(五行)
박환(剝換) • 마장격(魔障格) • 단명상(短命相) • 사자자리Lee • 양류목(楊柳木)
육효(六爻) • 흉궁(胸宮)

특혜 봉행요집, 역학백과, 부적백과 3권을 구입하시면 미국사회단체법인 미국동양철학 교사자격협회(Aug. 15, 2013)에서 동양역학상담사, 동양철학교사 자격증, 승려증, 법사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자격증신청 : 책 구입처(주문업체)에 여권용 컬러사진 1장, 신상명세서(성명(한글,영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를 적어 제출해 주시면 발급과정을 거쳐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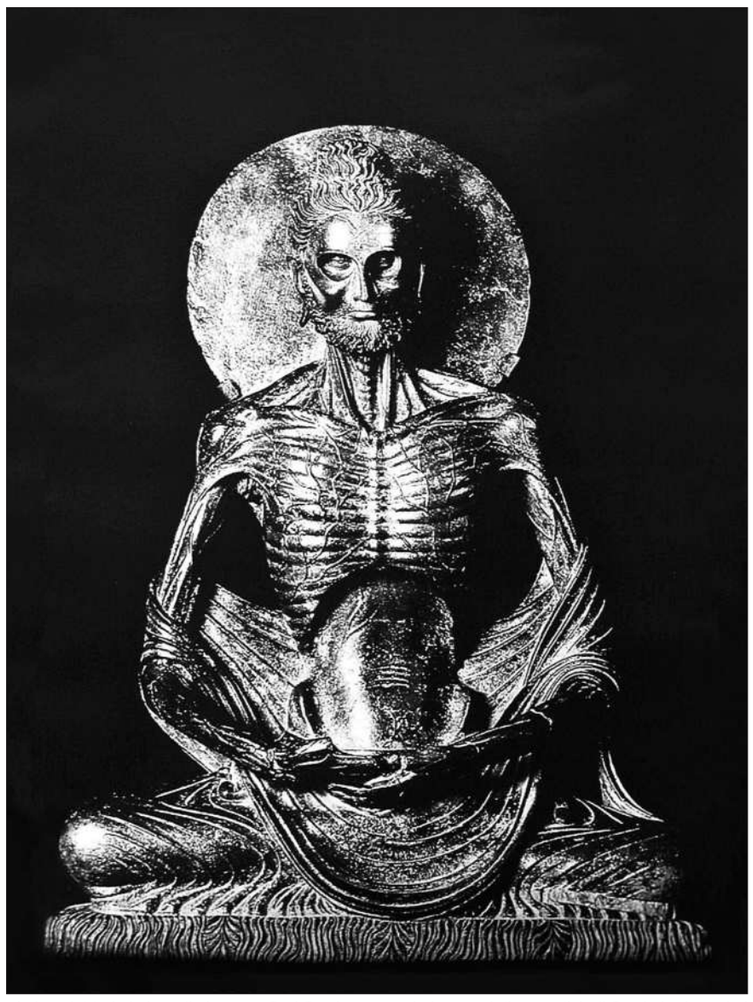
※가까운 불교상점에서도 구입 가능합니다.

도서출판 하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부처님은 끓어오르는 욕망을 어떻게 봤나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9. 인간의 욕망에 관해서 ㊤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행상. 모든 욕망을 악으로 규정하고 끊어내는 고행수행을 당시 인도 사회는 영웅의 모습으로 추앙했지만, 부처님은 이를 부질 없는 일임을 깨달았다. '욕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종교적 측면에서 오래된 명제이다.

욕망이라는 과제

부처님의 근본설법인 '사제설법' 즉 '네 가지의 성스러운 명제(命題)' 에 관한 설법에서 그 제이의 '성스러운 명제' 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었다.

"비구들이여, 고의 집(集)(원인)의 성제란 이것이다. 즉 후유(後有)를 가져오며, 희탐(喜貪)이 함께 일어나며, 이곳저곳에서 환희(歡喜)하는 갈애(渴愛)이다. 이것에 욕애(慾愛)와 무유애(無有愛)가 있다."

여기에 붓다는 '무엇이 있음으로 해서, 이 괴로움의 인생이 있는 것일까' 라고 물으면서, 그 '연(緣)해서 생기는' 원인을 '갈애(渴愛)' 즉 목마른 자가 몹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욕망의 작용에서 찾아내며 또 그 욕망의 작용을 분석하여 명쾌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또 '사제설법' 의 제삼의 '성스러운 명제'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들이여, 고(苦)의 멸의 성제란 이런 것이다. 즉 이 갈애(渴愛)를 남김없이 떠나서 멸할 때 해탈(解脫)하여 집착(執着)없는 것에 닿는다."

여기에서 붓다는 '무엇이 멸하는데 연(緣)해서 이 고(苦)의 인생이 멸하는 것일까' 라고 추구하면서 그 '연(緣)하여 멸하는' 방법을 갈애의 이멸에서 찾아낼 것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들은 석존의 욕망에 관한 중요한 언급(言及)이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할 줄 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제설법' 은 붓다 설법의 핵심(核心)이며 여래가 설명하는 교법의 근본이다. 그것은 이 인생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결국은 고(苦)이다' 라고 부정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

의사(醫師)는 병자를 앞에 두고 먼저 그 병상(病狀)을 진찰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붓다는 이 인생의 현실의 모습을 진찰하여 그것은 '일체개고(一切皆苦)' 라고 부정하였다. 사람들이 즐기며 안심하면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의사는 다음에는 그 병상(病狀)이 연(緣)하여 생긴 원인을 추구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붓다는 이 괴로운 인생의 연하여 생기는 원인을 추구하여 그것은 갈애라고 결론지었다. 다시 또 병상을 알며 그 원인을 안 의사는 그 병에 대한 처치(處置)의 방법과 방침을 강구(講究)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붓다는 여기에 그 고(苦)의 인생에 대한 처방(處方)을 강구하여 그것을 갈애의 이멸에서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그 처방에 따라서 투약(投藥) 또는 수술(手術) 혹은 안정(安靜)등을 명하며 실시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붓다는 제사의 성제에 있어서 '성스러운 팔지(八支)' 의 길을 설명하며 제삼의 성제의 실현의 길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사제설법' 의 과제는 괴로운 인생 안에서 즉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욕망의 작용에 있다. 욕망의 작용이 있음으로 연(緣)해서 이 괴로운 인생이 있으며 이 욕망의 작용을 없게 함으로써 이 괴로운 인생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붓다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관찰하였던 것일까. 또 그 처리의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였을까. 우리들은 먼저 이러한 것들을 깊이 탐색하여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붓다 가르침의 핵심(核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욕망은 선악 이전의 것

욕망 그 자체는 무기(無記)이다. '선악의 것 이전의 것' 이라고 붓다는 틀림없이 생각하였을 것이다. 제이의 성제는 이 고(苦)인 인생이 있는 원인은 갈애라고 말한다. 목마른 자가 몹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욕망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고(苦)의 인생이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는 '욕망 그 자체를 부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고 나는 감히 말한다. 왜냐하면 욕망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붓다의 근본적 입장과는 도저히 양립(兩立)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그 최초의 설법에서 먼저 그 연유(緣由)하는 근본적 입장을 '중도(中道)' 라는 말로써 표시하였다. '중도' 란 고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연기(緣起)의 입장에 선다는 말과 상통한다.

예를 들면 여기에 한 자루의 칼이 있다. 그것으로써 우리는 연필을 깎으며 원고를 쓴다. 그 때 이 칼은 일단은 선용(善用)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른 자가 있었다면 그 때 이 칼은 악용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칼을 그 자체를 단정적으로 '선' 이라고 말하며 '악' 이라고 말하였다면 그것은 심히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욕망 그 자체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선' 이라고 단정하며 혹은 '악' 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역시 결코 도리에 합당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하나에 식욕(食慾)이란 것을 들어서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 식욕에 의해서 음식을 먹는다. 적당히 먹고 몸을 잘 양육하면 그것은 '선' 한 일이다. 그러나 탐욕스럽게 먹음으로써 도리어 몸을 손상하게 하는 일도 있다.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먹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선' 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욕 그 자체를 '선' 혹은 '악' 이라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일까.

붓다의 전기를 읽는 사람은 그가 그 수행의 도정에서 엄숙한 금욕고행(禁慾苦行)의 수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욕고행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게 행할 수 없는 것이며 한 번 보기에는 영웅적(英雄的)인 행위 같이 생각될 것이다. 특히 인도 사람들은 예부터 고행을 존경하였으며 칭찬하였다. 부처님도 또한 그 때 길고 엄숙한 금욕고행을 수행하여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 사람들의 실망(失望)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을 중지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망을 개관적(槪觀的)으로 악(惡)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억누른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 도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편 인간의 욕망을 개관적으로 선(善)한 것이라 하여 욕망 그대로 쾌락을 일삼는 것을 그 입장으로 하는 주의가 쾌락주의(快樂主義)다.

붓다는 물론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또 인간의 욕망을 악한 것이라고 하여 단연히 억누르는 입장도 그는 버렸다. 왜냐하면 그 두 개의 입장은 어느 것이나 편협(偏狹)한 견해를 고집하는 것이며, 결국 '무의상응(無儀相應, 도리에 적합하지 않는)' 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붓다는 "여래는 이 이변(두 개의 극단)을 버리며 중도(中道)를 현등작(깨닫는다)하였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욕망 그 자체는 무기(無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붓다의 근본적 입장에 상응(相應)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설(自說)경〉의 한 구절에, "계금(戒禁)은 생활이다, 범행(梵行)은 봉시(奉侍)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극단(極端)이다. 모든 욕망 가운데 그릇된 것이 없다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도, 붓다의 욕망관(慾望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부처님 열반에 대해

문 강생(降生)한 순서는 이미 저와 같지만 출가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열반한 일은 어찌 방편이 없겠는가. 다시 주각(柱脚)을 하여 아직 듣지 못한 바를 들려주라

답 사문(四門)에 유관(遊觀)한 것은 사람이 사대환신(四大幻身)이 있어 생 · 노 · 병 · 사의 괴로움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함은 오직 한 문이 있을 뿐임을 보인 것이다. 열아홉에 성을 넘어 출가한 것은 십팔계(十八界)를 지내 다하고야 바야흐로 출가함이고, 설산(雪山)이라는 것은 섬진(纖塵)이 이르지 않은 처소이며, 이십육년간을 고행(苦行)하신 것은 육근 · 육식(六根 · 六識)을 청정하게 다스림이다.

삼십에 도를 이루신 것은 공자가 말씀하신바 '삼십에 입지(立志)했다' 함이고, 삼백여회를 설법하신 것은 널리 삼계를 위하여 묘법(妙法)을 열어 보이심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생의 자부니 훼불 행위는 부모를 욕보이는 것

대대로 부처님이 사람의 수명이 백세가 되는 시기를 당하여 탄생하시는데, 세상에 칠십구년을 머무신 것은 삼십 일곱 살을 감하여 상제(上帝)와 명왕(冥王) 및 아라한(阿羅漢)에게 분부(分付)하시어 그로 하여금 말법 세상을 넉넉하고 이익 되게 하여 충신 · 효자가 비구의 복과 수명을 닦게 하심이다.

쌍수(雙樹) 사이에 나아가신 것은 중도제일의제를 보이심이고, 금관(金棺)에 염(殮)하여 들어가신 것은 쌍(雙)으로 가리우심이며, 곽에서 두 발을 보이신 것은 쌍으로 비추심이다.

금관이 허공으로 들리면서 불로 변하여 스스로 탄 것은 여래의 몸은 삼계의 불로 태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이신 것이다.

사리가 여덟 섬 네 말에 이른 것은 팔만 사천의 진로번뇌(塵勞煩惱)가 전변하여 진여청정법신(眞如淸淨法身)이 됨을 보이심이다.

대체로 사람이 사대(四大)를 품부(稟賦) 받아 열 여덟의 감옥 속에 처한 자는 아내의 감옥이 있어 가두고, 자식의 형틀이 있어 얽어맨다.

그가 업(業)을 받음은 벌과 같고, 그가 과보를 받음은 형벌과 같다. 비록 은혜롭게 한다 말하나 그 실제는 원수로 여김이며, 비록 사랑한다 말하나 그 실제는 해치는 것이다.

마음의 번뇌는 끓는 물이 불에 끓음과 같고, 몸이 업으로 달려감은 나방이 등불로 달려들음과 같으며, 누에가 실을 토하며 스스로 그 몸을 얽어맴과 같고, 쇠에 녹이 나 그 형체를 녹여 떨어뜨림과 같아 괴로운 모양이 이 같은 데도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달게 여긴다.

오직 여래가 계시어 장부의 뜻을 분발하고 반야의 검봉(劍鋒)을 잡아 오음(五陰)의 마구니를 격파하고 탐애(貪愛)의 구물을 찢어버리셨다.

이 성(城)을 넘고 저 산에 들어가시어 마음을 잡되게 씀이 없이 육근(六根)을 청정히 다스리고 일념(一念)으로 정근(精勤)하여 여래의 위없는 지견(知見)을 뚜렷이 깨달으시고 널리 나의 깨달음으로써 인간 · 천상을 기쁘게 하시었다.

능사(能事)를 이미 마치시고 열반에 장차 들어가시어 쌍으로 가리우고, 쌍으로 비춤으로써 제일의(第一義)를 보이시며, 내지는 자기의 수명을 감하시어 말세의 아손(兒孫)에게 넉넉함을 드리우시고, 법신을 나누어 널리 세간의 복전을 여시니, 그 중생을 위하신 대비는 몸은 다 했으나 뜻은 다함이 없다. 성인 가운데 지극한 성이이며,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가 아니라면 누가 이와 같겠는가.

이로써 관찰해 본다면 부처님을 배척한 자는 그는 부모를 배척함일 것이며, 부처님을 비방한 자는 부모를 비방함일 것이며, 부모를 비방하고 배척한 자는 그 죄가 어떠하겠는가.

이러한 악업(惡業)으로 감득(感得)한다면 현세(現世)에는 타고난 형벌(天刑)과 사람의 재앙이 서로 교차하며 공격할 것이다. 몸이 죽은 후에는 융동 · 발설(融銅 · 拔舌) 지옥의 깊은 형벌이 있을 것이니 위태로움에 임하여 추회하고 자책한들 스스로 자기의 배꼽을 물려해도 안 되는 것과 같을 것이니 어떻게 미칠 수 있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5년 1월 15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5년 3월 3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천도재. 49재 의식 등 생전예수재 특강
◇원서교부 : 2015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5년 3월 6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경주 불교문화 콘텐츠 무궁무진…

진병길 원장 (경주 신라문화원)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 1984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사학과에 입학해 불교학생회 회장 등을 맡아 백상탑 건립 등을 주도 했다. 졸업 후 불교신문 지국장을 거쳐 1993년 신라문화원을 개원해 다양한 문화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유적 정화를 위한 봉사 활동도 펼쳐왔다. 이에 문화재청 대한민국 문화유산 부문 대통령상, 제17회 불이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도 수상하는 등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다.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봤을 추억의 수학여행지 경주. 경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이자, 불교문화의 산실이지만 그만큼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이다. 이 때문에 경주를 조금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불교활동가가 있다. 바로 진병길 신라문화원원장이다.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51)은 "경주를 찾는 이들에게 경주의 살아있는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이것이 우리 전통문화유산임을 전하는 꿈을 꾼다"고 말했다. "경주를 그저 '유명한 관광지이니 한 번 가보자', 혹은 '옛날에 가보았는데 또 가느냐'는 곳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꾸만 생각나고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가 1993년 개원한 신라문화원은 신라달빛기행, 추억의경주수학여행, 경주남산불적답사 등 불교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십수년째 운영 중인 이들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및 문화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중학교 때 '불교활동가'로 발심

사실 한 개인이 문화단체를 창립해 20년 넘게 유지 · 발전시켜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은 자신의 모든 열정을 여기에 쏟아부었다. 신라문화원 재정확보를 위해 집안의 땅을 모두 다 팔았을 정도다. 가정에서는 낙제점 가장이지만 '신라의 혼에 쓴 사람'이란 찬사도 듣는다. 이것이 오늘날의 신라문화원을 만든 원동력이다.

그 시작은 중학교 3학년 때였다. 당시 교생 실습을 나온 전용자 선생(법우 스님)의 가르침에 불교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전용자 선생은 대구구도회 출신으로 이기영 박사, 최석호 법사 등과 같이 재가불자로서 당시 대중강연에 활발히 나섰다.

"항상 바르신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대하시면서도,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모임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불교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학생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전용자 선생의 지도하에 사찰을 찾은 진 원장은 불교활동가로서의 꿈을 키웠다. 고등학교 때는 불교학생회 회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회를 이끌다보니 자연스럽게 돈이 부족했다. 집에 체육복을 5번이나 산다고 하고, 그 돈으로 불자학생대회 비용을 내기도 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멘토 역할을 했던 전용자 선생이 출가하며 불교활동가로서의 뜻은 더욱 굳어졌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사학과 84학번으로 입학한 그는 문화유산을 시대에 맞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여기에 경주가 불교문화의 중심지인 점을 활용해 포교도 병행해야겠다고 원력을 세웠다.

불교학생회장을 맡아 학내 불교활동을 하는 한편 우룡 스님 시화전, 선지식 초청법회 등을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 열기도 했다. 그의 활동가로서의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현재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상징이 된 백상탑을 조성한 일이었다.

"교내에 종립학교임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힘을 모아 무엇을 해낸다면 더욱 뜻 깊을 것이라 여겼어요. 불교학생회 회장일 때 백상탑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탑 건립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기본예산안을 만들었다. 이어 총학생회에서 종교부장을 하며 모연활동에 나섰다. 먼저 학생회 간부들이 나서 장학금을 일부 기부했다. 전 동국대 학생이 3000원씩 모은 돈을 기반으로 화주를 하러 다녔다.

이런 학생들의 열정에 前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300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직원들도 몇만원씩 기부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총 1억 300만원이 모아졌다.

"스님들이 저를 보고 '화주승'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상탑 조성활동을 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공심을 가지고 지극히 정성을 기울이면 안 될 일이 없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뤄진다고요."

졸업과 동시에 1990년 진병길 원장은 대학시절 불교활동을 바탕으로 '불교신문' 경주지사를 개설했다. 이 것이 모태가 돼 1993년 3월 18일 경주의 문화예술인 50여 명이 뜻이 모인 신라문화원이 설립됐다.

'불교활동가' 발심후 '불사'에 앞장서
동국대 재학하며 '백상탑' 건립 기여
'화주승' 소리 들어가며 직접 모연 나서

1993년 문화단체 '신라문화원' 개원
'달빛역사기행' 등 체험프로 꾸준히 개발
'시니어클럽 운영' … "가장 보람 느껴"

불교문화 콘텐츠가 신라문화원의 근간

개원 때에는 대학교 시절 초청법회에 법사로 모셨던 혜국 스님과의 인연이 도움이 됐다. 혜국 스님이 이사장 역할을 맡아 이사들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후 후원회원 조직체계가 구성됐다.

"처음에는 1~2년 가겠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교계를 비롯해 시민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20년이 넘게 후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원이 자리를 잡은 것은 이사님들, 회원님들이 묵묵히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불교계를 비롯해 경주시민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신라문화원이 지금의 모습을 띄게 된 것은 진 원장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한 몫했다. 그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착안 · 기획했다. 학창 시절의 불심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콘텐츠화 해나가기 시작했다.

달이 밝은 날 밤에 등불을 들고 경주 일대 문화재를 탐방하는 '달빛역사기행'을 비롯해 경주로 수학여행 왔던 옛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중년들이 교복을 입고 불국사 석굴암을 돌아보는 '추억의 수학여행'의 아이디어도 진 원장의 머리에서 나왔다.

특히 남산 칠불암에서 시작해 불국사 등을 돌아보는 달빛기행은 경주야간투어의 대명사가 됐다. 매년 6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돼 서울 창덕궁 달빛기행 등 야간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진 원장은 '신라문화체험장'도 자신이 학창시절 사찰에서 뛰어놀았던 데서 착안해 냈다. 첨성대 앞에 자리한 체험장은 300평 규모로 20여 명의 체험강사, 불상을 비롯한 문화재모양 비누만들기, 금관체험 등 문화재를 응용한 10여종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문화재 영상강의 및 공연이 진행된다.

진 원장은 불교계가 불교문화를 콘텐츠화 하는데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찰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1999년부터 3개월 과정으로 신라불교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가 '찬기파랑가'와 '안민가'를 불러 나라의 평안을 기원했던 충담 스님의 뜻을 기리는 차문화축제 '충담재'를 매년 4월 넷째 주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라불교문화대학과 이차돈 성사 추모대재, 원효 예술제, 황룡사지 달오름 음악회를 비롯해 폐사지 음악회를 통해 감춰진 사찰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활동도 펼쳤다.

진 원장은 "황룡사지에서 열린 폐사지 음악제에는 1만 명이 모였다. 이는 경주에서 근래에 가장 많이 모인 것"이라며 "불교적이면서 문화적인 것을 활용하면 사람들 모을 수 있다는데 가능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라문화원이 2012년부터는 1년 열두 달을 주제별로 나눠 매달 남산의 불교문화를 답사하는 '남산불적답사'도 한 지역의 불교문화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답사라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

"조계종 교육원에서 남산불적답사 연수프로그램을 공지하고 스님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40명 대상에 80여 스님이 신청했습니다. 스님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를 잘 활용해 콘텐츠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심을 바탕으로 불교문화재 보존에도 앞장서 경주 남산 문화재 청정운동과 이정표 거리 측정 등을 진행했다.

"이제는 불교계가 단순히 재와 같은 사찰의 불교의식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주변의 다양한 불교문화를 활용해 불교를 알려가고, 불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문화포교 활동은 지역민 결집 계기

신라문화원은 1990년 9월부터 '큰스님 초청대법회'를 40여 회 이어오면서 일상 속에서 불교적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종범 스님을 첫 법사로 시작해 시민회관인 서라벌문화회관에서 1년에 2차례씩 열고 있습니다. 법회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 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틀에박힌 성지순례 이젠 그만!



몽사 + 성지순례 + 불교문화교류행사

1석 3조

미얀마 · 스리랑카 · 캄보디아 · 라오스 · 네팔 (1회차)
태국 · 베트남 · 인도 · 부탄 · 인도네시아 (2회차)

부처님의 가피력을 특별한 인연으로 만들어 희망의 씨앗을 뿌려 드립니다.

큰스님 사찰 방문 · 고아원봉사 · 오지학교 교육지원사업 · 학교 신축 보수공사 · 불교대학 방문불사 및 식수정수시설지원 · 각 종단 최고지도자 종교성장관이나 종단장 및 각 나라 최고지도자와 대담 친견하여 우리나라 불교문화 및 방문국 불교문화를 교류하여 왕래할 수 있도록 MOU체결 및 종단 사찰 스님 재정에 맞추어 맞춤봉사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드립니다.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사무국

문의전화 1644-9079 상담자 직통 010-8288-1833 일광법사

후원 미얀마종교성 | 스리랑카종교성 | 캄보디아승왕청 | 라오스종교부 네팔종교성 | 대한불교원각조계종 | 사)한국다문화가족지원연대(여성가족부) 주)이안상조 | 주)씨지투어 | 국제불교문화교류협회

“새롭게 디자인 평생 과업”


신라문화원이 진행하는 문화유산돌봄이 사업.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큰 효과를 보게됐다.


진병길 원장이 기획 후 고궁야간투어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신라달빛여행


어린이 문화학교 참가 학생들이 경주 남산의 불상을 보고 있다.


추억의경주수학여행 참가자들의 모습. 교복을 입고 불국사 · 석굴암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1993년 신라문화원 개원당시 모습, 왼쪽이 혜국 스님, 오른쪽 고청 윤경렬 선생과 오른쪽 두 번째가 진병길 원장.

에는 약 3000여 불자들이 참석합니다. 경주에서는 꽤 큰 규모에요. 좋은 점은 이러한 자리가 불자네트워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회 이후 사람들이 모여 순례 등을 이어가고 대소사에도 그 모임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진 원장은 “지역별로 문화기획 연출가 양성과 지역민의 의식변화 선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회도 과감히 외부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이웃종교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현재 월암재, 서악서원, 도봉2서당, 종오정, 독락당 등 고택을 활용해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진 원장은 “지금은 활성화된 고택체험의 초기 붐을 조성했다고 자부한다”며 “고택 체험과 함께 불교 순례 프로그램도 진행돼 자연스럽게 불교를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경주지역 택시기사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 강좌도 예를 들며 문화포교에는 정형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대면하는 택시기사들이 경주의 문화를 소개하며, 특히 불교문화를 제대로 소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불교문화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굳이 템플스테이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문화를 콘텐츠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열린 자세로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불자가 아닌 이들이 보다 편하게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진 원장은 재가불자들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사람이 불교문화를 전합니다. 문화재 보존도 사람이 합니다. 사람들의 힘이 모아야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보통 불교활동가들은 스님들을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구심점으로 모시고, 힘을 모을 때 불교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속적인 활동 나설 것

22년째를 맞은 신라문화원과 진병길 원장은 또 다른 미래를 준비 하고 있다. 사회공헌 사업이 그 것이다.

진 원장은 신라문화원이 하는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시니어클럽 운영’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든 것이다. 문화유산 해설사와 숲 해설사를 양성해 사찰을 비롯한 문화유산 곳곳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또 문화유산돌봄이 제도로 어르신들이 문화재를 관리토록 했다. 이처럼 신라문화원은 3곳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5개 기관에 직원 65명과 7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창출했다.

“민간단체로서 20년을 지속해 온 단체는 거의 없는데다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재를 활용,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10년간은 불교와 복지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걸음마 단계, 이후 10년은 시니어 클럽, 문화재돌봄이 사업 등의 안정화 단계였습니다. 이제는 사회공헌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진 원장은 “현대 사회에서 종교인구는 줄고 있으며, 이는 먼 미래에 불교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있는 만큼 불교의 미래를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또 “사회공헌 사업도 한국전통과 불교문화를 활용한다면 보다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먼저 국민들이 문화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전국에서 불교대중화와 문화발전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1천 여 명의 후원회원과 65명의 직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경주는 물론 우리나라 문화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민문화단체가 되도록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문화가 살아있는 불교의 보고, 경주의 진가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인의 경주이기에 미래세대까지 우리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닿는데 까지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아이들 절에 오게 만들자

충남 예산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살던 어린 시절, 나는 어려서부터 모친의 손에 이끌려 절에 자주 갔었다.

초파일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절에 가서 등도 달고 비빔밥도 맛나게 먹었다. 10살이 되던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는 방학 때마다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향천사 어린이 불교학교에 다녔다.

읍내에 사는 또래의 아이들과도 금방 친해져서 절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절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던 것은 절에 가면 재미있는 손오공 비디오와 맛있는 떡 접시가 나를 반겨주었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린이 불교학교를 다녔지만 이후 학창시절에는 절에 자주 가지 못했다. 군대생활을 할 때도 종교행사시간이 되면 법당에 갔다. 신행생활을 하기 보다는 어려서부터 다녔던 곳이어서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전역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는 이별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상처를 잊기 위해 취하도록 술을 마셔보기도 했지만 마음은 물론 몸까지 더욱 황폐해져만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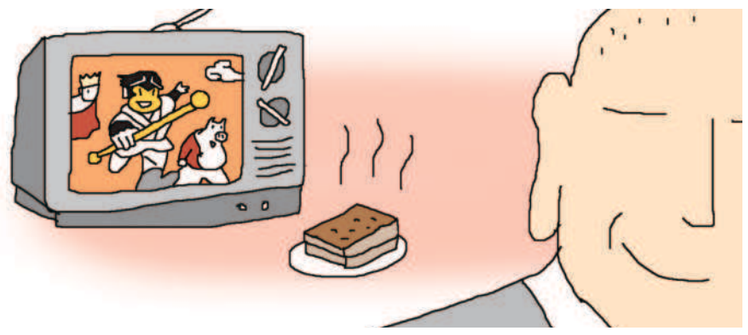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 불교교양대학 신입생 모집 현수막을 보게 되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어려서 다니던 절의 풍경이었다. 어린이 불교학교에 다니면서 외웠던 반야심경이나 스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잊혀지고 말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앉아 깔깔거리며 보던 손오공 비디오와 맛있는 떡 접시만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나는 버스에서 내려 바로 절에 찾아갔다. 대부분 노보살님들과 몇몇 거사님들이 계셨고 20대 젊은이는 나 혼자였지만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 두꺼운 경전을 선물하겠다는 스님의 말씀에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에 참여했고, 졸업을 할 때는 약속대로 붉은색 양장본으로 된 묘법연화경을 선물로 받았다. 선물로 받은 경전을 품에 안고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이듬해 불교교양대학에 다시 들어가 스님과 의논 끝에 졸업 하던 날 출가를 했다.

요즘 불교계 전반에서 젊은 불자들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실제로 절에 오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 6000여 곳, 이 중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채 100곳이 안된다는 얘기도 있다. 큰 사찰에서는 굳이 어린이포교에 신경쓰지 않아도 운영이 되니 관심이 부족하고, 작은 사찰은 사찰운영도 빠듯하니 이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아이들이 절에 발을 들이기까지는 어른 불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일 나들이로 놀이동산이나 영화관도 좋겠지만 천년을 넘게 이어온 불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그림 · 박구원

그리고 지금 당장 아이가 확 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커다란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비롯되듯이 어린시절에 경험하는 신행활동은 성인이 되어 겪게 되는 괴로움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반드시 큰 힘이 될 것이다.

종단에서는 이미 다양한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사찰에 어린이 전법도량을 신설하는 등 많은 스님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도 광주시내에 있는 포교당에서 온 가족이 참여하는 음악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참여형 신행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기를 기대해본다.



수안 스님 (前 백양사 포교국장)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남 : 010-5097-8291 울산 : 010-4597-5577 평창 : 010-6433-8612 제주도 : 010-3000-1945
익산 : 010-6610-2337 양산 : 010-6294-6126 수원 : 010-5211-7260
광주 : 010-6890-0365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지A형 S형 T분리형 LED버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1 ~ 2/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6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만다라	Carlton Books	담앤북스
2	인생수업	법륜스님	휴	7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경스님	마음의숲	8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4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이일야	담앤북스	9	낭송 선어록	문성환	북드라망
5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스님	불광출판사	10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이원정,목정배	운주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새벽은 죽는날까지 모든 나날의 기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새벽의 인문학
다이앤애커먼 지음
홍한별 옮김
반비 펴냄
1만 7천원

이 책은 새벽의 의미에 대해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 느끼고 성찰한 것이다. 새벽을 음미하면서 하루를 연다는 것은, 내 삶을 가장 풍부하게 만드는 시도이다. 〈감각의 박물학〉 〈천 개의 사랑〉 〈뇌의 문화지도〉 등의 책으로 잘 알려진 다이앤 애커먼은 이 책에서 탐미주의자이자 빼어난 이야기꾼으로서의 능력을 집약해서 보여준다.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 매 순간의 감각과 사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과 내 몸과 내 몸이 일부를 이루는 자연의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나아가 새벽에 대한 성찰은 필연적으로 내 삶을 둘러싼 시간에 대한 성찰과 이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문학, 예술, 종교, 역사, 언어학, 기상학, 생물학 등을 활용해서 새벽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이 책에는 자연의 작은 소리, 냄새, 변화에 대한 묘사가 가득하다.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고도로 연결된 드문 책이라는 한 결같은 찬사들은 허언이나 과장이 아니다. 안다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인 동시에 육체적인 일인지, 사고와 감각과 정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너무나 명료하고 아름답게 보여준다.

생명은 익명이고 대체 가능하며 바글거리는 것이다. 어떤 종교에서는 자아에서 벗어나라, 살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정체성의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도 저자는 두렵다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급작스런 쇠락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젊고 준비되지 않았고 너무 위엄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꿈속에서는 해가 지평선을 금빛으로 아롱지게 하고 밤과 낮은 상실의 영역에서 만나고 정적이 뒤덮는다. 두툼한 흰 담요가 저 아래 깔리고 층운이 아침의 문을 연다. 곧 빙하 위의 정오처럼, 온 세상이 하얗고 황량한 화이트아웃 상태에 빠질 것이다. 마침내, 긴 잿빛 혼수상태 같은 구름을 뚫고 우리는 내려온다.

미국 전역서 새벽이 시작되면 해바라기들이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해를 향해 절을 한다. 꽃줄기의 그늘 쪽이 햇빛을 받는 쪽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꽃 얼굴들이 빛 쪽을 향하게 된다. 해바라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종일 해를 쫓으며 동쪽서 서쪽으로 돌아간다. 꽃봉오리 아래쪽 목 부분이 유연해서 머리가 돌아갈 수 있다. 꽃이 활짝 피어 밝은 노란색으로 초원을 뒤덮은 다음에는 목이 단단하게 굳어져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변함없는 충절로 굳는다. 동쪽을 향한 상태로 멈출 때가 많다. 그냥 '꽃'이라고 하지 않고 '얼굴들'이라고 한 까닭은, 해바라기는 한 송이가 아니라 작은 통꽃들이 모여 있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바깥쪽 꽃잎 부분은 모두 중성이고 안쪽 '해바라기 씨' 부분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개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군집의 지혜는 자연의 모든 단계에서 번성한다. 우리 사회와 몸도 마찬가지다. 행성들은 서로를, 그리고 태양과 서로 끌어당기고, 태양은 은하의 다른 별들과 서로 끌어당기면서 모양과 갈 길을 만들어 나간다. 모든 사물은 특성들의 집합체이자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의 총체다. 우리

새벽의 의미 성찰하는 에세이
사계절에 느끼는 새벽 단상 옮겨
모네, 호쿠사이 등 유명인의 새벽 소개

는 온몸으로 사물을 만난다. 사물 가운데에는 몸도 포함되고.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결합해 의식, 기관, 사지를 이루고 날마다 새벽이면 각각 힘을 모아 자아감을 다시 일깨운다. 우리 뉴런 하나하나, 피부 조직 하나하나가 단세포 조상을 닮았다. 우리 세포들은 가족이라기보다는 군집에 가깝고, 때로는 사이좋은 동지들, 잘 모르는 벗들, 비밀스러운 공모자들이다. 우리는 사실 여러 과업들의 복합체다. 숨쉬기, 먹기, 유지 보수, 이동, 계획, 성숙 등. 몸마다 수백만 개의 조그만 공장이 함께 돌아가며 합쳐져 자아를 이루고, '나'를 이룬다. 스스로를 총체적인 존재로 느끼거나 때로는 독특한 존재로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는 자아가 된다. 하나의 생명이 생겨난다.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복수의 존재다. 우리는 타협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스스로와 싸움을 벌인다. 다른 동물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물론, 다른 사람의 주관적 경험에 완전히 스스로를 투사할 수도 없는데, 다른 감각과 본능을 지닌 다른 종에 그렇게 하기란 말할 것도 없이 어렵다. 다른 종의 하루는, 구름을 뚫고 비추는 어스름 햇빛 말고 다른 데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도마뱀처럼 땅에 달라붙어서, 혹은 땅 아래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잠시 잊고 자연과 뒤섞이는 순간의 황홀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내 몸 안의 세포가 전에는 다른 곳에 쓰였을 수도 있고, 갑오징어나 점균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쩐지 겸허해지는 생각이다. 우리는 인간의 주관적 실재가 다른 생물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생명체, 가장 하등한 생명체와도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능이 있고, 개성도 있고, 학습 능력도 있고, 의식은 없어도 재주가 있는 점균류를 한 번 생각해보자. 그것들은 저마다 반은 식물 반은 동물이고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을 지닌 단세포 군집을 형성한다. 단일 연대처럼 자족적이지만, 그러다가 문득 설명할 수도 떨쳐버릴 수도 없는 강렬한 열망을 느낀다. 저자가 이 책에서 호출한 사색가, 예술가, 기록자, 인문주의자들은 언뜻 보면 전혀 공통점이 없다. 그러나 저자의 호명을 통해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신체적인 지식, 감각적인 인문주의 계보를 만든다. 태양신을 온갖 방법으로 숭배해 새벽빛을 받게 설계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든 프톨레마이오스 2세부터, 농부 출신으로 최초의 눈 결정 사진을 생각해내고 사진집을 만들지만, 이를 찍기 위해 심한 눈보라를 헤치고 집으로 돌아오다 폐렴에 걸려 사망한 '눈송이 사나이' 윌슨 A 벤틀리, 이동 가능한 틀로 된 벌집을 발명해 양봉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신경증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매일 벌과 벌집에 대한 기록을 멈추지 않아 〈벌집과 꿀벌〉이라는 고전을 남긴 L. L. 랭스트로스 등등이다. 또 있다. 새벽의 매 순간 변하는 이미지를 포착하려 한 모네, 〈미쿠라노소시(베갯머리 서책)〉이라는 고전을 남긴 새벽의 기록자 쇼나곤, "일흔 살 이전에 그린 작품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일흔 두 살이 되자 비로소 새, 짐승, 곤충, 물고기의 진짜 특성, 풀과 나무의 중요한 본질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여든 살이 되어야 조금 발전할 것이고 아흔 살이 되면 사물의 깊은 의미를 더욱 깊이 통찰할 테고 100살이 되면 정말 위대해질 것이고 백열 살이 되면 점 하나, 선 하나가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화가 호쿠사이 등이다.

이들의 관찰과 기록과 사색과 공부는 마치 함께 날아갈 때 평소의 반응속도보다 더 빠르게 한몸인 듯이 방향을 전환하는 비둘기 무리들의 창발성처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인 동시에 육체적인 일인지, 사고와 감각과 정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극히 명료하고 아름답게 보여주는 책이다.

"노년엔 자유로워 져라… 스마트 에이징"



오늘은 내인생의 가장 젊은날 입니다
이근후 지음
샘터 펴냄
1만 4천원

"젊은 시절에는 비교로 인한 좌절감에 맞설 면역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거나 겁을 집어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이기 이전에 유일한 존재입니다. 서로 저마다 다른 단 하나의 존재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남과 나를 비교하기 전에, 우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요?"

('왜 남과 비교합니까? 당신은 이미 유일한 존재입니다' 중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로 나이 듦의 진정한 의미와 유쾌한 노년의 삶을 전하며, 전 연령대의 공감을 이끈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근후 박사. 그가 이번에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전하는 편지 56통을 담아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를 펴냈다.

50여 년간 정신과전문의로 살아온 저자는 팔순의 나이를 맞아, 인생의 각 단계를 저마다 힘겹게 넘기고 있는 모두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조언을 건네고자 한다. 그가 30년 넘게 매해 의료봉사를 위해 찾는 네팔에서는 인생을 사계절로 나눈다. 25세까지의 봄은 학습, 50세까지의 여름은 적응, 75세까지의 가을은 참회, 그 후 겨울은 자유의 시기다.

저자는 배우고, 적응하고, 참회하고, 자유로워지는 이 네 단계가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이 주창한 인간 성격 발달의 8단계와도 닮았다고 보았다. 우리가 인생의 각 계절마다 보편적으로 느끼는 갈등과 행복감을 감안해 총 4부로 구성, 세상과 나를 알아가는 그대에게, 역할을 감내하며 오늘을 사는 그대에게, 다시 온전한 나를 찾고자 하는 그대에게, 행복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를 담았다.

저자 역시 팔순 나이가 되기까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동료로서 인생의 사계절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도왔던 경험을 담아 정성들여 글을 적었다.

저자는 인생의 봄을 맞는 청년들에게는 이미 우리 모두는 유일한 존재이니 남과 나를 비교하기 전에 우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길 당부한다. 또한 공부란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 나이들어 깨달은 저자의 경험을 들려주며, 진짜 승자는 일등이 아닌 언제나 즐기는 사람이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용기가 없는 새는 새장 밖을 알 수 없으니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면 용기를 내 새로운 경험을 해보라고 권한다.

인생의 여름을 보내며 청년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기회는 늘 길모퉁이마다 숨어 있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조언한다. 원하는 것을 즐겁게 오래도록 하는 '야금야금'의 지혜도 함께 전한다. 자녀의 등수에만 관심 있고 자녀가 몇 반인지도 모르는 학부모가 되지 말라는 충고와 곁들여 고부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부간의 입장 정리부터 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효도란 특별한 것이 아닌 부모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긍정해주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귀띔한다. 인생의 가을을 보내며 장년서 노년으로 가는 이들에게는, 경험이 쌓여 해줄 말이 많아질수록 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충고한다. 퇴직은 직장을 떠나는 것이지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니 여건에 맞춰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운다. 또한 마음의 문제는 포기가 안 되니 내려놓아야 하며, 여전히 배우는 것은 가장 즐거운 세상 구경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배우자의 비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의 기술을 알려주며, 가족 간 네트워킹을 강권한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 겨울을 보내는 노년에게는 무엇보다 자유로워지길 권한다. 자유는

오늘을 사는 지혜 관한 56통 편지
인생 단계 사계절에 나눠 설명

죽음을 맞는 가장 평온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젊어 보이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젊게 살 것을, 외롭다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을 찾아가길 한다. 어차피 병은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오니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평소에 자신의 뜻을 자주 밝혀 유언과 함께 유지도 잘 전달되도록 하라고 당부한다. 또한 '지혜로운 나이 듦'을 위한 스마트 에이징(SMART AGING)을 권한다. SMART의 다섯 자 알파벳에 각각 Simplifying(단순화하기), Moving(움직이기), Affecting(마음을 유연화하기), Relaxing(몸과 마음을 이완하기), Together-ing(함께하고 나누기)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말이다.

이 책은 작은 배려도 담았다. 우리 인생을 사계절로 나눠 4부로 엮은 만큼, 세대마다 선호하는 글자 크기를 고려해 각 부마다 글자 크기를 달리했다. 또한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의 대표 작가 박병철이 이 책을 위해 쓰고 그린 캘리그라피는,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음미하며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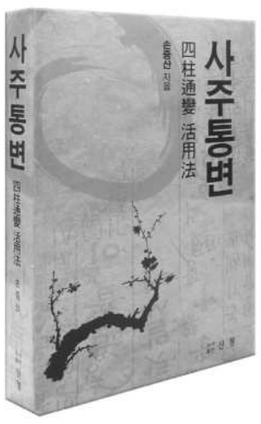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화제의 신간!
新刊 四柱通變 活用法
(四柱는 理論보다 通變이 중요하다)



아무리 사주이론에 능통하다해도, 사주를 놓고 통변에 능통하지 못하면 입이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하다. 옛날부터 통변에 관한 해설이 다양하게 전해져 왔지만, 이를 바르고 쉽게 설명한 책은 드물다. 논어를 읽고도 논어를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명리학을 공부하고도 통변을 몰라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본서는 사주통변의 핵심을 수록한 것으로 십신통변의 활용법과 통변의 작용에 따라 변화하는 운명과 성격, 육친관계, 직업 및 건강에 미치는 인사전반의 작용을 질서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므로 정독 이해하게 되면, 역학을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사주감정에 실수가 없을 것이라 자부하는 바이다.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孫中山 著 (634쪽 / 값 40,000원)
책자 신청 053)324-2468 / 010-9391-5699
아래계좌로 입금하시면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2-0585-5250-53 (예금주 손상용)

불화서 학춤까지 불교의 모든 것 배우세요

2015년 사찰문화센터 다채로운 봄강좌 문열어

새봄이 다가오고 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의 기지개를 켜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해보고 싶은 계절이다. 새봄과 함께 사찰에서 신행활동하면서 저마다의 취미생활로 스스로를 새롭게 다져보면 어떨까?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의 사찰음식 강좌 통도사 평생교육원의 차명상과 학춤, 조계사문화강좌의 요가 다도 등 다양한 강좌들을 통해 취미생활하며 신행활동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자.

조계사

이번 3월 개강하는 봄강좌에는 한국무용, 지화, 도자기 공예 명상요가 다도 서예 천연염색 규방공예 불화 문인화 단소 등의 강좌가 열린다. 특히, 10년 넘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요가는 명상과 108배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심신의 건강과 안정을 찾아준다. 불화반 역시 인기 강좌다. 불보살님의 모습을 그리며 마음수행을 하는 이 강좌는 매년 회원전을 통해 수강생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불광사 불광교육원

불광사는 바라밀문화기행, 불화그리기, 경기민요반, 오카리나교실, 하모니카교실 등의 문화강좌를 연다. 바라밀문화기행은 매월 2차례 사찰과 불교유적지 등으로 떠나는 문화기행으로 2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지안 거사의 명쾌한 해설이 곁들여지며 3월에는 19일 · 26일 경남 합천 지역(영암사지, 월광사터, 가야산 청량사)을 탐방한다. 또한 민요반 오카리나교실 하모니카 교실 등은 재일법회 때 회원들이 무대에 직접 올라가 공연, 그간 배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안양 본원 인근에 안양불교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불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강좌를 마련했다. 다도, 손뜨개 · 인형만들기, 태극권, 한글교실, 선법가교실, 스케치, 생활요가, 시 · 수필, 꽃꽂이, 단소 · 플루우트, 단소, 매듭 · 규방공예, 불화 · 민요 등이 마련된다. 초 ·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에는 영어 수학 미술 한자 하모니카 등의 강좌가 마련된다.

조계사-명상요가 불화반 등 인기

불광사- '바라밀문화기행' 20년 진행

통도사-평생교육원서 학춤 전수도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전국비구니회관 역시 사찰요리, 다도 불화 꽃꽂이 민화 규방공예 생활자수 요가 등 다양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인기있는 강좌는 '선재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으로 계절마다 제철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배울 수 있다. 6개월은 기다려야만 수강이 가능할 만큼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통도사 평생교육원

통도사평생교육원에서도 교양강좌를 마련한다. 불교와 심리치유, 초의차명상, 궁중다식, 학춤 등의 강좌가 진행되는데 특히, 학춤은 통도사 스님들에게 전승된 독창적 춤으로 백성 스님이 진행한다. 불교문화에서 파생된 민속학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 불교문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와 심리치유' 는 심리적 갈등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서양의 심리치료 이론과 비교해 공부하는 교양프로그램이다.



사찰문화센터들이 새봄을 맞아 다양한 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불광사 불광교육원 오카리나반 공연 장면.



한국불교대관음사 참좋은 평생교육원 불화 수업



통도사 평생교육원 차명상 수업 장면.

월정사성보박물관 문화대학

월정사성보박물관 문화대학 민화연구반도 봄학기 강좌를 연다. 2006년부터 시작된 민화연구반은 우리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려가고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다. 우리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될 민화연구반 상반기 수업은 3월 8일부터 개강한다. 또한 10월 오대산문화축전 기간에는 1년 동안 그려온 회원들의 작품들을 모아 전시하는 작품전도 갖는다.

정혜숙 기자

2015 상반기 전국사찰 문화강좌

서울	조계사	요가, 천연염색, 불화 등	(02)768-8580
	불광사 불광교육원	바라밀문화기행, 불화, 오카리나, 하모니카	(02)419-3344
	길상사	꽃꽂이, 다도, 불화, 서예	(02)3672-5945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사찰음식, 동양 꽃꽂이, 다도, 규방공예 등	(02)3411-8103
	한마음선원	다도, 손뜨개, 태극권, 방과후 강좌	(031)471-3669
지역	월정사성보박물관문화대학	'박물관 문화대학' 문화답사반, 민화연구반	(033)339-6635
	통도사평생교육원	차명상, 학춤, 불교와 심리치유, 궁중 다식 등	(055)367-8851
	홍법사 평생교육원	기체조, 다도, 댄스, 영어	(051)508-0345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경전민요, 불화, 요가, 오카리나 등	(053)471-8225
	전북불교회관	오카리나, 다도, 기타	(063)277-3497

BBS 창사 25주년 기념 '다르마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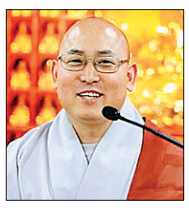
2월 21일 '부산 범어사' 부터 전국 순회



수불 스님



월호 스님



목종 스님



원영 스님

1부 수불 스님 법문 시작으로

월호 원영 목종 스님 등 출연

토크콘서트 · 즉문즉답 이어져

BBS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이 창사25주년을 기념해 다르마 콘서트를 연다. 부산, 대구, 울산, 청주, 춘천 등을 돌며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열리며, 불교방송(TV & RADIO) 진행자 스님들과 불자들이 직접 만나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올해 첫 다르마 콘서트는 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금정총림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1부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불교부산방송 사장)의 법문, 2부 불교방송 진행자 월호 스님(리셋! 밝고 둥글게), 원영 스님(아침 풍경), 그리고 목종 스님(불교부산방송 무명을 밝히고)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즉문즉답 시간도 갖는다.

다르마 콘서트는 말 그대로 '대화의 장' 을 열어 불자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의문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소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 피부에 와 닿는 생활 속의 법문을 듣는 자리로 방송의 쌍방향 소통을 극대화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방송은 첫 번째로 진행되는 부산 '범어사 다르마 콘서트' 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매월 지역 사찰을 순회하며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불교방송은 "매회 해당지역 어른 스님의 법문을 청하고 더 많은 불교방송 TV와 라디오 진행자 스님들이 전국 순회에 함께하면서 각 지역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불교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매월 콘서트 후에는 불교방송 TV와 라디오에서 행사를 녹화 방송하여 전국 불자들과 야단법석의 열정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첫방송은 TV 3월 2일(오후 7시) 라디오 2월 28일(낮12시)이다. (02)705-530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문화 한자리에… 사찰음식, 다도 등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 서울시와 공동 개최

3월 12일~15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서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살아있는 한국 전통문화의 꽃' 을 주제로 3월 12일~15일 열린다.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가 3월 12일~15일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살아있는 한국 전통문화의 꽃' 을 주제로 하는 서울 국제박람회는 전통문화와 관련한 예술과 산업을 조명하고 불교 문화의 진수를 전해줄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불교박람회' 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올해는 서울시와 공동주최로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 로 행사명을 변경,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들이 불교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주거, 차와 다기, 예술과 문화상품, 수행과 사회활동, 문화서비스 부문으로 세분화 되어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또한 웰빙문화를 대표하는 사찰음식을 주제로 한 '제3회사찰음식대축제' 와 사찰생활을 느낄 수 있는 '템플스테이展' . 한국전통미술과 불교미술을 만나볼 수 있는 '붓다아트페스티벌(B.A.F.)' 이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박람회 기간 동안 특별전시로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을 진행한다. 이는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박람회의 주제에 부합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전통적 가치와 실용성을 지닌 상품을 선정해 홍보 및 판촉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은 참가업체의 공모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 (www.bexp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6010-1104

정혜숙 기자



벽안의 리빅키 스님, 클리블랜드 선근 심는다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한 벽안의 스님이 티베트 불교의 선근(善根)을 키우고 있어 화제다.

〈클리블랜드닷컴(Cleveland.com)〉 지는 2월 13일 "이곳에서 나고 자란 리빅키(Rybicki) 스님이 티베트 불교계 불교 센터를 개원, 지역 주민들과 법회를 봉행하며 그들의 신심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화제의 스님은 애니 팔모 리빅키(Ani Palmo Rybicki · 52) 스님으로 1984년 일본 방문을 계기로 불교에 귀의, 네팔 등지에서 티베트 불교를 수행한 후 1994년 비구니계를 받았다. 리빅키 스님이 고향을 찾은 것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지역 불심 다잡기에 매진하고 있다.

"한때 이웃이었던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게 즐겁다"는 리빅키 스님은 "스승이신 툴쿠 페마 완갈(Tulku Pema Wangyal) 스님이 비구니계를 수지한 제게 '고향으로 돌아가 포교하라' 고 했을 때 무척 망설였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칠만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클리블랜드닷컴(Cleveland.com)〉 지에 따르면, 스님의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2006년 클리블랜드 웨스트 98번가에 '송첸 감포 불교 센터(Songtsen Gampo Buddhist Center)' 를 개원한 후,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클리블랜드의 가톨릭계 명문인 트리니티(Trinity) 고등학교를 다녔을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나고 자란 리빅키 스님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계기는 1984년 일본을 방문하면서부터이다.


애니 팔모 리빅키(Ani Palmo Rybicki) 스님이 송첸 감포 불교 센터 저녁 명상 클래스를 지도하고 있다. '혼돈에서 안정으로(Turning Confusion into Clarity)' 라는 부제가 붙은 이 명상 클래스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시간 30분 진행된다.

대학 졸업 후 아시아국가 여행

일본 · 네팔방문 계기로 불교에 귀의

티베트 불교 수행, 비구니계 수지

고향 오하이오서 불교센터 운영

"미시간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제가 학위를 받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아시아 여행"이라고 말한 리빅키 스님은 "일본에서는 영어 강사로 쉽게 취업해 머물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무작정 일본으로 떠났다"며 "일본을 거점으로 태국 네팔 등을 오가며 불교를 접하며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리빅키 스님은 1994년 네팔에서 툴쿠 페마 완갈 스님을 스승으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대학 졸업 직후 아시아로 발길을 돌린 지 25년 만에 비구니 스님이 된 것이다. 이후 히말라야 일대에서 수행에 매진한 리빅키 스님은 2006년 고향인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로 돌아왔다. 스승의 뜻을 받들어 포교를 위해서다.

"불교 센터에서는 아침 · 저녁 두 차례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인, 청소년, 어린이 클래스를 각각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한 리빅키 스님은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법회를 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며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명상 동아리' 가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모임의 지도법사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빅키 스님의 포교거점인 '클리블랜드 송첸 감포 불교 센터' 는 지난 2008년 스승 툴쿠 페마 완갈 스님의 후원으로 개원할 수 있었다. 리빅키 스님이 귀국한 지 2년만이다. 가정집을 매입해 개원한 불교 센터는 아직 개축하지 못했지만, 불자들의 도움으로 1층 거실 공간에 티베트 전통 문양이 인쇄된 벽지를 바르고, 불단을 만들어 부처님을 봉안했다. 불단에는 꽃과 향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곳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게 즐겁다"는 마크 세톨라(Mark Satola · 33) 씨는 "리빅키 스님을 비롯해 다른 린포체 스님에게 불교를 배우며, 인내와 연민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기쁨"이라며 "리빅키 스님처럼 배움을 사회에 회향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가르침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경로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마르크 보나(Marc Bona · 45) 씨는 "이곳에서는 나처럼 불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고, 리빅키 스님처럼 수행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며 "우리가 무엇이 되든지, 리빅키 스님은 우리에게 그에 필요한 지혜와 자비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클리블랜드닷컴(Cleveland.com)〉 지는 리빅키 스님의 말을 인용 "지난해부터 송첸 감포 불교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클리블랜드에서도 뒤늦게나마 불교와 명상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는 리빅키 스님을 정점으로 한 송첸 감포 불교 센터의 행보가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몽골서 발견된 '미라' 승려 아직 수행중?

전문가 "완전한 해탈까지 한 단계 남겨둔 상태"

지난 1월 27일 몽골 울란바토르 송기노하이르한 구에서 발견된 200년 된 미라 승려가 명상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네이처월드뉴스 등 해외언론은 "승려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라는 몇몇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돼, 미라에 대한 법의학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발견될 당시 미라는 소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45세 도굴꾼이 인근 동굴에서 훔친 것으로, 미라 주인공은 19세기 라마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라는 정밀검사를 위해 몽골 국립부검센터로 옮겨졌다.

울란바토르 불교 대학의 간지후옌 퓨렙바타(Ganhugiyn Purevbata) 교수는 "스님은 아직 생존해 있으며 완전한 해탈까지는 오직 한 단계만 남겨둔 상태"라며 "스님은 연꽃 자세인 금강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라마 불교의 전통 수행법으로 아주 깊은 명상 상태인 '툭담(Tukdam)' 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한 승려이자 의사인 배리 크레진(Barry Krezin)박사도 시베리안타임즈(Siberian Times) 2월 2일자 보도를 통해 "미라는 죽지 않았다. 나는 명상의 가장 높은 단계인 툭담 상태에 이르기 위해 수행하는 몇몇 승려들을 봐왔고, 이 승려도 역시 툭담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라며 "만약 수도승이 3주 이상 이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의 몸은 점점 줄어들어 종국에는 머리와 손톱, 옷만 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월 27일 몽골 울란바토르 송기노하이르한 구에서 발견된 200년 된 미라 승려가 명상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네이처월드뉴스에 따르면 툭담에 빠진 수행자의 심박수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느려지고 육안으로 보기에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마치 동면에 빠진 동물처럼 모든 물질대사의 속도가 느려지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태우게 된다.

한편 명상에 빠진 티베트 승려 중 '툭담' 을 경험한 사례는 지난 50년간 40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에는 러시아 동남부 브랴티야자치공화국에서는 러시아 유명 고승인 함보라마(Lama Dashi-Dorzho Itigilov)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될 당시 함보라마의 시신은 관 속에서 전혀 부패하지 않은 채 가부좌 자세로 발견돼 화제가 됐다.

이나은 기자

티베트 설 앞두고 中-티베트 긴장고조

RFA, "중국 아바현등 무장 병력 증파…사실상 계엄조치"

티베트의 설인 '로사르' 를 앞두고 중국과 티베트간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월 13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티베트 설 로사르를 앞두고 티베트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 분리 · 독립 시위나 분신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무장 병력을 증파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외에 망명한 티베트인 소식통들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상당수 무장경찰 병력이 아바현에 배치돼 티베트인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무장경찰이 현 중심지 곳곳에 파출소와 검문소를 신설하고 준계엄상태에서 주민과 차량들을 검문 검색하면서 위압적이고 적개적인 태도를 드러내 주민과의 충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바현에는 2주간 이어지는 로사르 준비와 축제를 위해 티베트인 유목민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양측 간 긴장이 자칫 대형 유혈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특히 반(反)중국 활동의 중심지인 거얼덩(格爾登) 사원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현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대규모 반중국 시위가 발생한 이후 꾸준히 분리 · 독립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티베트인 집단거주지역에서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며 분신한 티베트인이 모두 135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아바 출신이 37명이나 됐다.

작년 12월 22일 아바현 마이니마(麥爾瑪)향 거리에서 마을 주민 쩌페(19 · 여)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항의를 표시한데 4일만인 26일 거얼덩 사원 승려 뤄상츠리(洛桑赤列)가 달라이라마의 초상을 들고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티베트의 설인 '로사르' 를 앞두고 중국과 티베트간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특히 반(反)중국 활동의 중심지인 거얼덩(格爾登) 사원 주변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현 이외에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역인 간쑤(甘肅)성 샤허(夏河)현, 칭하이성 황난(黃南)티베트 자치지구 쩌쿠(譯庫)현 등에서도 사실상 계엄 조치가 취해졌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한 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분신자들의 요구와 항의를 묵살함에 따라 분신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코트니 러브, "염불할 때 가장 행복"

남편 코트커베인 자살…불심으로 이겨내

"나는 불자다. 아침마다 염불하는 것은 내게 매우 진지하고 행복한 일이다. 불교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헐리우드 배우이자 얼터너티브 록그룹 홀(Hole)의 멤버였던 코트니 러브〈사진〉가 데이비드 레터맨 토크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인터넷언론 IBN Live의 보도에 따르면 코트니 러브는 데이비드 레터맨 토크쇼에서 "아침마다 한 시간 이상 염불을 한다. 사실 윗몸일으키기를 하는 것처럼 지루할 때도 있지만 나는 매우 행복하다"며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불심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코트니 러브는 1994년 미국 얼터너티브 록그룹 너바나(Nirvana)의 리더였던 남편 커트 코베인의 자살 후, 청부업자를 고용해 타살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마약과 각종 사고를 일삼는 등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코트니 러브는 "남편으로 인해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불심으로 이겨냈고, 나는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코트니 러브는 1992년 커트 코베인과 결혼했지만 남편 커트 코베인은 결혼 2년만인 1994년에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자살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팬들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다. 때문에 코트니 러브는 남편을 타살했다는 루머에 시달리는가 하면 '악녀' 로 불리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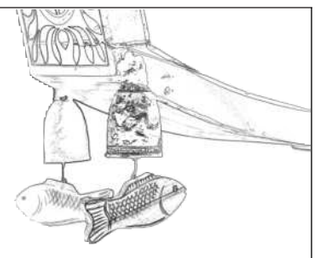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저 히말라야 산을 둔갑시켜 황금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곱절로 만든다 해도 한 사람의 욕심도 채울 수는 없다. 사람들아, 이것을 알고 올바르게 행하라.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정확한 방편술

책자를 4주년 기념하여
25만원을 80% 할인하여 5만원에
선착순 100분께 드립니다
010-4735-3232
농협 352-0284-3938-73 하영옥



침구술 배우실 분 명 리 배우실 분

개인지도
(활인사 주지 직강)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2번출구
02)3487-2311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극락행 회원 모집

* 깨달음을 얻고 사후에 부처님 광명의 빛을 따라 극락세계를 염원하는 수행자 불자
- 극락으로 가는 우주행표나 싸인받고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혜안을 열고 깨달음을 원하십니까?
- 조상천도나 업장소멸이 잘 안됩니까?
- 빙의,신병,정신분열,치매,암등 확실한 치유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불교문화강좌 분원등록 안내

태양계 일광 부처님으로 부터 사바세계 최초 대우주 신통력을 받은 비구승입니다. 지금의 기도와 수행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업장소멸이 되지 않으며 사후 극락왕생 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우주광명 신통력으로 업장소멸과 가장빠른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불교와 신통력을 공부하고 연구하실 분
대우주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불교문화강좌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육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부전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2517-5623

부전스님. 공양주 모십니다

(밀양 삼랑진 삼봉사)
010-4484-5758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도심속의 조용한 비구니도량. 기도하며 공부하실 스님 환영!
경주 동국대학 공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010-9340-3921

염불해 드립니다

(무유스님, 비구)
010-8396-4338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실전 방편술

명리와 귀장술 - 1개월 완성
기초를 알면 - 1주일 완성
사찰운영 하시는 스님, 보살님 무속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성불을 받는가?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호산 합장 010-4540-0061

선묵화 및 한문 3월3일 개강

혈맥론강의(한문이해)선묵화 화,목 오후3시 강,선묵 합2시간 수강료10만원. 주2회강의 (6개월수료)
● 강의장소 : 경남 합천 (불참시 전화,메일 개별교습)
보림사 금강학림
010-3749-4553

인과의 업장소멸 해법

만사 만생의 고를 풀어가는 글문 비방
- 불치병(병명無)
- 빙의(신병)
- 사업,소원,가정사상담
- 알수 없는 풍수탈
- 인생의 고는 인생방정식의 해법으로 답을 찾자
- 번뇌 해탈은 불정사에서
불정사 도정 치우 합장
051)558-5585. 010-4593-2918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진주에 있는 조용한 절 입니다
가족처럼 계실분 연락주십시요
010-4450-250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값 3만원 / 농협 박근창 032-02-024451
스님과 불자님들이 읽어야 함.
홍증법사 100일 법문
능엄경 중심으로, 영가천도, 조상숭배 실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교육원 010-6789-5008

암 병고액난 상담치유

암, 간질(천병),정신병(미친병),귀신병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분 과 풍파가 많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분 치유상담
불광사 해산스님 010-7321-0404. 010-4034-5829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가 찾는 법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의내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불 교 의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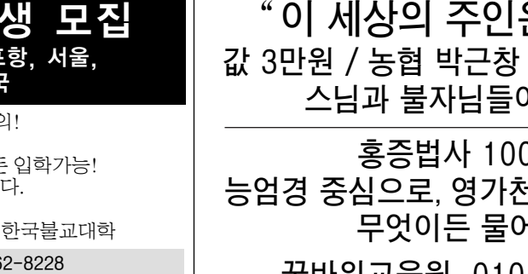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www.hyunbulshop.com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영산재 50호 유네스코 등재된 서울경기범패 불교의식 범패 학인모집

❶ 도량석, 종송,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❷ 사시불공, 시다림, 방생의식, 39위 작법, 설주이운
❸ 천도재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상용영반(기제사)
❹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요잡바라
❺ 나비춤 : (도량게, 다게) 법고춤
❻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❼ 화청, 공덕게, 행보게

■ 개강일 : 2015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부산 동구 초량3동 1162-1 서강빌딩 5층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 종무원 / 전화 051)442-1818

● 속성반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속성반 장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앙리 25-2번지 군북파출소앞 광법사
● 강주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 동주대학교에서 불교기초교리와 불교음악 공부하실 분.
전화주십시오. (불교교리 : 민지효 스님, 불교음악 : 가수 이현주)
● 담임교수 :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전화 051)200-3244 / 팩스 051)200-3420
부산시 사하구 사리로 55번길 16 동주대학교

2015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7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6기까지 전국에서 8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 상

❶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❷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총무 보살이나 신도회장 보살

◆ 교육기간 : 2015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5년 3월 3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수행은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의 연마이다.

- 잡아함경 -

사 찰 안 내

▶ 시내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바다 전망
- 총부지 : 5,000여평
- 주거지역 800여평
- 자연녹지 4200여평
- 좋은 조망권 드넓은 사찰부지
- 가액 : 15억원(은행 3억원 포함)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1900여평
- 건물 : 법당 및 요사채 87평
- 세계불교박람회(5400년된 벼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멋진 화석 300여점 보유)
-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인수 (은행 5억 별도)

부동산 등기 관련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무료상담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부동산 등기 관련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무료상담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 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암 자 양 도

- 위치 : 김천시내
- 1층 건물 약 60㎡, 깨끗한 인법당
- 토지300㎡, 주차가능
- 양도금액 : 1억 1천만
- 융자가능. 앞은 마을뒷편은 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4억 3천(절충가능)

010-3186-0361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9988-724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 위치 : 서울
◎ 부지 : 15000평 ◎ 대지 : 60평
◎ 법당 : 3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요사 : 40평
◎ 매가 : 11억 5천 ◎ 매가 : 8억 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연무대부근 익산 사찰 양도
* 법당50㎡, 요사채 80㎡, 건물 2동
* 토자800㎡ 남향으로좋은사찰
* 양도가 : 1억 2천만 (융자 5천만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감포읍
- 대지 1,019평 대웅전(木)20평. 종각(木)4평
- 산신각, 용왕각, 종무소, 요사채 3동
- 가액: 4억(절충가능)

010-3517-2226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구포시장 (농협 : 구포지점 ↔ 신협)
- 2층 50평 건물(법당 올수리, 옥상단독 사용)
- 시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칠성단, 소불 200불
- 친견실1, 객실2, 공양간 식당
- 즉시법회 몸만오세요! 민원없음!!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600만원

010-5348-2568

사찰 요양원 수련원 전원주택지 안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진산면
- 정남향 5,000평, 진입로 포장, 전기 상수도 지하수 완비
- 좌청룡, 우백호 잘 되어있음
- 평당 20만원
- 꼭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675-1288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부산 포교당 최요지

- 위치: 연산동 연수대로변
- 8층 건물 중 1층 주차장, 4층 법당, 건물평수 40평, 엘리베이터 사용
- 수미단, 삼존불, 후불탱2점, 영단, 인등 방음, 도시가스 난로 3개, 온수기 2대
- 북박이3, 필름난방, 싱크대, 조리대 새것
- 칸막이 작은 창고 몽땅 5백만원
- 재료값만 천만원 넘게 소요됐음
- 종찰이 나와서 급히 갑니다 (현재 비어 있음)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세 60만원 관리비 13만원

010-4466-357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 산자락에 있는 인법당
- 법당, 방3, 마당, 텃밭 주차장
- 가액 : 1억 3천만

금호부동산 연산가-13-1645(이찬수)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5
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 평수 230평, 대웅전 15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 밀양IC 근교(비구니 스님 환영)
- 가액 : 2억 3천(가격절충)

010-3801-5328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안동
- 부지: 종교 996㎡. 전체 4872㎡
- 건물 2동 철골주 콘크리트 양옥
  (1) 단층 건물 - 117.13㎡
  (2) 2 층 건물 - 1층 100.82㎡ / 2층 66.03㎡
- 특징 : 정남향 일조건 최상, 우측 실개천 사철 졸졸
- 작은연못 백련 유실수 다량
- 식수 : 지하수, 난방 : 기름 화목 겸용 보일러
- 포장 도로, 보안등 설치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탱화
- 사찰별장, 요양시설, 전원주택 최고 조건

연락처 : 010-3131-21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3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보은, 산아래 2차선 도로옆
- 용도 : 사찰, 기도원, 공장, 축산, 농장 적합
- 신축 축사 1동 125평 관리사 (황토집 25평)
- 밭 585평, 총 735평
- 가액 : 1억 6천

010-4074-3073

사찰 및 납골당 건립 최적장소 (급) 안내

- 위치: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110번지 양촌 IC에서 15분 거리
- 대지 : 500평, 전·답 : 3,000평
- 요사채:50평 방5개, 후원방1개 욕실완비(심야전기)
- 농가주택 1동(80M암반수)
- 좌청룡 우백호, 현무, 주작이 잘 갖추어져 있는 최적의 도량
- 가액: 9억 5천(절충가능)

010-3435-23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정로 645 대동1차 상가 302호
- 법당, 방 3, 공양간 넓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500만원

010-3927-12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빌라
- 주택 24평, 4층 건물 방 3개
- 주방 욕실 수리 깨끗 옥상방수
- 걸망풀고 토굴삼아 휴식공간으로 사용적합, 교통편리
- 즉시 이사 가능. 3천 8백

010-9787-55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내 역세권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 도심속 조용한사찰
- 가액 :15억
- 대구시내 근교 1억5천에서 40억까지 다양한, 사찰
- 포교당 상담가능함 (중계보조원)

010-5534-7239

명당 사찰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 전 46,384㎡(14,030평) (올 계획관리)
- 얼음골과 관정이 있고 계곡이 있음
- 평창, 인제, 정선 개발촉진지구 구역임
- 가액: 평당 8만원(조절가능) 주인직
- 전에 절에서 연락이 옴

010-3186-68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 평수 : 대지 251평
- 법당 1, 요사채 1, 창고 및 넓은 텃밭도 있음
- 특징 : 탁트인 넓은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곳으로
- 다섯봉우리가 싸고 있어 수행하고 공부하기 좋은 곳
- 주차공간 있음
- 가액: 3억 4천(절충)

010-2401-775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176-7번지 동부시장내 상가 2층 전체
- 특징: 춘천 동부 중심지에 위치하여 생활권 및 교통버스 중심권
- 대법당, 산신각, 공양간, 상담실, 요사채
- 각실마다 냉난방 완비 살림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물포함가 3,0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010-9235-7513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시내
- 평수 : 60평
- 법당, 친견실, 공양간 등 예쁘게 꾸며져 있슴
-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법회즉시 가능
- 초대형 극장식 간판, 미니 실내정원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전세로 조절 가능) 시설비 1,700만원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대출 3억 안고 양도 4억

010-5019-53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176-7번지 동부시장내 상가 2층 전체
- 특징: 춘천 동부 중심지에 위치하여 생활권 및 교통버스 중심권
- 대법당, 산신각, 공양간, 상담실, 요사채
- 각실마다 냉난방 완비 살림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물포함가 3,0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010-9235-7513

토굴(암자)급 안내

해외 이주 관계로!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산사 조용한곳
- 대지 약300평 법당.주차장넓음
- 요사채,방 4개 거실, 화장실
- 범패 제 할 수 있는곳.
- 관세음보살(칠보)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특수후불.칠성. 감로탱화. 시설일체.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시설비-1,300만원

010-9945-203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남산밑
- 문중 종중땅, 텃밭 150평 일년 세금 31만원
- 건물집 35평, 방3개, 거실
- 주방 욕실 창고 방 : 3천 3백
- 지방보살밑 집기일체 : 1천만원
- 주변집뒤 산 몸만오시면 됨

010-2599-3040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행복해지는 연습

쵸감 트룽파(티베트 승려)

〈2〉 에고 죽이기

“뼈저린 아픔·사무친 기쁨 직접 경험하라”

학생6: 나로파가 겪었던 다른 비전에서 그는 비전에서 시킨 행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행위가 비도덕적이라 생각했겠지요. 그렇다면 도덕이나 도덕적 법칙이라는 것은 에고의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틸로파 같은 위치에 있는 깨달은 사람은 그런 도덕률을 따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트룽파: 틸로파는 절대적 완전성 속에서 도덕률을 따른 것입니다.

학생: 그게 무슨 뜻인가요?

트룽파: 인습적 도덕률은 주어진 상황보다는 자신의 양심을 중시합니다. 반면 틸로파의 방식은 자신의 양심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대처한 것으로서, 그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자신의 양심이나 개념에 근거해 대처한다면 그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지요. 이것이 삶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들은 나쁜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아예 그에 대한 이해 자체를 차단시켜버립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살인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나는 살인 같은 것에는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사건에서 분리시킬 것입니다. 그리 되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왜, 어떻게 죽였는지를 이해할 길이 전혀 없어집니다. 당신은 그 살인사건에 충분히 관여해 최대한 과학적으로 일어난 일의 옳음과 그름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상황을 원인과 결과라는 면에서 살펴보고 그로부터 이해를 끌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당신이 ‘살인에 개입하면 내게 나쁜 기운이 옮아와. 그러므로 이 사건에는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사건 자체에서 스스로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회에 아무런 관여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 사회는 추악하고 끔찍한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것이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에 반해 사람들이 사회 안으로 들어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해하려 한다면 그로부터 어떤 지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생7: 그렇다면 저희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트룽파: 당연히 그래야지요. 당신의 힘을 나라에 보태세요.

학생8: 방금 말씀하신 선거인 명부의 경우 우리들의 투표 거부행위로 부터도 배운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트룽파: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금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거부하고 힌두교나 불교로 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이제는 외부인의 관점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어떤 심오한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밖으로 나와 외부인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라난 문화의 진수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지요. 마침내 그들은 최고의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보통 크리스천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 크리스천이 된 거지요.

자신의 역사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금발인데 흑발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해요. 동양 문화를 모방하고 싶은 사람은 100퍼센트 힌두교도나 100퍼센트 일본인까지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인의 얼굴을 본따서 성형수술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으로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자신의 몸, 체질, 심리적 접근법을 부정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실은 그것이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자신의 조국 및 그 조국의 상황, 정치,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또는 반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엄청난 기분전환과 도피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 것이라 할 수 있는 몸과 문화와 인종과 국가를 가졌음에 감사하고 그것에 관여해야 해요. 우리는 그것들을 몽땅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 지구와 갖는 관계, 우리의 국가적 카르마[共業]와 그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 부처가 되는 것, 미국의 부처가 되는 것에 있어 출발점입니다.

학생10: 불교에서는 에고가 죽은 후에 자아가 남습니까? 자아는 존재하나요?

트룽파: 그것은 아주 오래 된 질문입니다. 무언가의 연속이 있으려면 그런 연속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연속되는 에고가 있으려면 에고가 연속된다는 것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신기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자가 없다면 신기루도 없습니다. 신기루가 존재한다고 시인하는 관찰자가 있다면 신기루가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 이후에는 더 이상 관찰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찰자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10: 자아가 없다면 존재는 그 후에도 있나요?

트룽파: 존재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거기 있음을 확인해 주지요. 그렇지만 당신은 자기 자신이 거기 있음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지요. 이것은 존재가 존재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가 없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보아야 해요.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쨌든 존재를 연속시키는 거지요.

학생1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 또는 에고의 죽음 후의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거지요. 또한 에고의 죽음은 에고에 관한 혼란의 죽음이라는 거지요?



트룽파는 서양에 티베트 불교의 금강승(金剛乘 · vajrayana) 전통을 전파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정식 인가된 최초의 불교 학교 ‘나로파(Naropa) 대학’을 미국에 세운 인물이다. 트룽파 린포체가 나로파 대학에서 법문을 하기 전 모습.

어떤 상황도 자기신념으로 대처하는 것은 실질적 도움 안돼 에고를 죽이지 않는 것과 같아

인과적 측면에서 상황을 이해 ‘절대자비 · 백치자비’ 구분해서 타인에게 자비심 베풀어야

트룽파: 관찰자가 녹아 사라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언어를 초월해 있어요.

학생12: 린포체의 방식으로 에고를 죽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트룽파: 그것은 사회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심리상태를 대하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스타일은 이런 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사회적 접근법이나 스타일은 그저 사진에 불과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신과 직접 마주하는 방법은 통전적 존재의 엄연한 진실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뼈저린 아픔과 사무치는 기쁨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픔과 기쁨이 집중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픔과 기쁨은 광대하고 팽창적인 방식, 환희로운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학생13: 자비가 에고에는 좋지 않은 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로파는 그런 자비의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트룽파: 자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실제 자비, 또는 직접적 자비, 즉 절대 자비가 이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르지에프(저명한 그리스 아르메니아계 스승으로서 20세기 전반에 세계 각국을 돌며 자신만의 영성 체계를 가르쳤다. 그가 말한 백치 자비란 겉보기에는 친절함이나, 받는 사람의 미혹과 약함을 더 키우고 주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비심이다.)가 백치자비라고 부른 것으로서 노이로제와 함께하는 자비, 자신의 욕망을 비밀리에 충족시키려고 하는 교활한 방식의 자비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너그러운 얼굴을 하고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13: 절대 자비란 어떤 것입니까?

트룽파: 절대 자비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접 철저하게 보는 것입니다. 터프해야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백치 자비는 일종의 모르핀(항상 좋고 친절하려고 하는 것)을 함유하고 있고, 절대 자비는 글자 그대로 좀 더 분별 있고 좀 더 확실하지요. 누군가를 해치고 싶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그를 해치는 것, 하지만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그를 해하고 그에게 아픔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전통에서는 대승의 가르침부터 시작하지 않고 더 작은 방편인 소승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승에서는 먼저 자신을 똑바로 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런 자비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요. 처음부터 절대 자비의 수준에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학생14: 전에 이런 발전에서 흔한 장애가 안심에의 욕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안심에의 욕구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나요?

트룽파: 안심시켜 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 욕구를 오직 한쪽만 바라보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 인형처럼 생각하세요. 한 얼굴을 가진 인형으로, 아마도 눈도 하나일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전체 상황은 보지도 않지요. 내 말을 이해하겠어요?

학생14: 그 인형은 오직 한쪽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심의 욕구를 가진 사람인가요?

트룽파: 그래요. 그런 안심이 그 하나의 상황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언제든 당신에게 안심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 어찌 되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시야를 하나의 상황, 그 특정의 사물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을 요하는 마음 때문에 관찰되지 않는 상황들, 즉 우리가 보지 않는 상황들은 과대망상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감싸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상황에 최대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의 욕구는 오직 외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14: 그런 외눈박이 시야를 넘어서는 방법은 없을까요?

트룽파: 한쪽으로만 향한 레이더망보다는 더 많은 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쪽에만 눈을 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방위적인 시야, 360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어요.

학생15: 어안렌즈처럼 말인가요?

트룽파: 그렇지요. 하지만 그건 뒤에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행복해지는 연습〉(솔바람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깊고 따뜻함… 화심 불러일으켜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관응 스님 ㊥

"조선 초상화 중 제일 좋은 작품을 꼽는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관응 스님이 물었다. 나는 평소 생각대로 안향, 이항복, 송시열, 허목, 이재 초상, 윤두서 자화상 등을 꼽았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그 이유를 물으셨고,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렸다. 스님은 자신의 생각도 같다고 하셨고 대화는 화상찬까지 화제가 옮겨갔다. 스님께서 그림에 대한 관심과 감식안이 높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관응 스님과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보냈다. 스님의 따뜻한 말과 배려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자연히 스님의 말씀과 생활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사유를 조금이나마 공유하자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형식적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스님의 상호는 자비롭고 순일한 표정이 특징이었다. 긴 수염도 빼놓을 수 없었다. 머리는 요철이 없이 둥글고 완만했지만 뒤는 납작했다. 머리숱은 적고 특히 양쪽 이마 끝이 민머리로 치켜 올라가 있었다. 머리카락은 가늘며 파상문(波狀紋)이었고 이마는 넓어서 훤했다. 하얗고 긴 눈썹은 바람결처럼 자연스러웠다. 이로 인해 스님은 신선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그림에서는 눈썹의 형태와 귀의 모양이 중요하다. 이곳은 유전적 요소를 가장 짙게 유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혈통과 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스님의 눈은 크고 또렷하며 동공의 색도 검고 윤곽선이 분명했다. 쌍꺼풀이 있는 눈은 맑은 인상을 풍겼고, 눈빛은 맑고 고요하지만 미세한 변화가 반복되고 굴절도가 시시각각 변모했다. 순일한 겉모습과 달리 스님의 내면에는 불같은 열정과 단호함이 서려있었다.

스님의 코는 단단하고 야무졌고 코 선은 세월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입은 일자 형태로 가지런했으며 입술은 작고 아담해 신념과 의지가 강한 듯 보였다. 수염은 턱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독특하게도 귀 아래로 길게 나 있었다. 수염 굵기는 가늘고 곧았지만 약간의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수염의 형태와 상태는 스님의 순하고 어진 인상을 더욱 부각시켰다.

스님의 얼굴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보다 좌측에서 바라보았을 때 인간적인 솔직함이 드러났다. 스님의 왼쪽 뺨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신경이 발달해 있었다. 이 신경 세포를 통해 감정의 미묘한 흔들림을 포착할 수 있었다.

내가 그린 초상화 중 특히 관응 스님 진영이 압권이라는 평가를 받고는 한다. 아마 스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알게 된 그분의 생각과 외형이 그림 속에 깃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스님과의 대화는 늘 형상 너머에 있는 그림자를 읽게 했다. 스님의 배려 역시 화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초상화 작업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작업을 한다. 지조와 절개를 지킨 의인, 외길로 뜻을 이룬 사람, 존경스런 인물, 미술사적 도전 등의 이유가 아니면 붓을 들지 않는다.

먼저 진영 작업은 무엇보다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 대상에 대한 관찰도 중요하지만 특징이 잘 드러나는 요소를 포착하는 것은 화가의 몫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투철하지 않거

봄처럼 도타웠던 관응 스님
순일한 표정 속 단호함 깃들어
스님 존경하는 마음 담아
표현한 진영 '압권' 평가받아

나 자신감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개방하지 않는다. 화가는 인물의 겉모습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전신(傳神)과 섬세한 감정의 떨림까지 간파하려고 한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과거 사진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한계가 명확하다.

다음으로 나는 진영 대상자에 대한 존경심이 발생해야 그림으로 옮긴다. 초상화는 대상 인물이 돌아가신 뒤 진영각에 모실 목적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화가 자신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완성한 그림만이 다른 예배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업 내내 나는 표현 대상자에 대한 공부는 물론 그분의 분신이 되고자 스스로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진영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 작업은 마음이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진행하되 혹 의심이 들거나 흔들림이 있으면 즉시 중단한다. 대상자의 정신적 깊이까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작업자는 자신을 검증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작업 내내 일어나는 날카로운 긴장감은 화가의 숙명이다.

이처럼 그림을 요청받을 때는 반드시 모델을 서줄 것을 주문함은 물론, 작업도중에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한다. 진영 작업은 그려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곧 그림이다. 과정에 충실하지 않은 그림은 아무리 결과가 성공적이라 해도 화가로서는 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관응 스님 진영 작업을 할 때는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 거짓말처럼 어느 것 하나 막힘없이 순조롭게 풀렸다.



관응스님, 174X114cm, 종이에 수묵채색, 1995년, 작가소장. 진영 작업은 그려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곧 그림이다. 화가 자신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완성한 그림만이 다른 예배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관응 스님 그림을 그리면서 정성과 진심을 다했다. 그 덕분에 미술 사학자와 미술평론가로부터 관응 스님 그림은 내 그림 중 최고 득의작(得意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나는 이 작품을 보내는 게 못내 아쉬웠지만,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통해 그분을 기리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해 사욕을 버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림을 보여 준 뒤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진영을 부탁한 측에서 몇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시 그려 달라는 전갈이 온 것이다. 재작업을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작품은 완성됐다. 주문자는 새로 그린 작품에 만족해했다. 1년여 간 지난한 흔적이 배어있는 작품이 작가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은, 불합격의 수치가 아니라 작가를 생각한 또 다른 배려 방식이었다. 나는 지금도 이를 고맙게 생각한다. 처음 그렸던 그림은 대상에 대한 긴장이 아직 살아있는 법이다. 이 긴장감은 일체의 헛치레가 빠진 작가의 생생한 혼이 담긴 결정체다. 그림은 기교나 기법 그리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뜻을 전달할 때 힘이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집에 보관 된 관응 스님의 첫 진영은 내가 다른 스님의 진영을 부탁 받을 때 어떻게 작업에 임해야 하는가 기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관응 스님은 여전히 내 그림 속에 살아계신다.



선-산빛이 가늘게 어깨를 눌렀다, 191X97cm, 종이에 수묵, 1997년, 작가소장. 작업은 무엇보다 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워야 한다. 대상에 대한 관찰의 힘도 중요하지만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대상자만의 특정 요소를 포착하는 것은 화가의 몫이다.



묵선, 60.5X51cm, 종이에 수묵, 1995년, 직지사 중암소장. 정성과 진심을 다했다. 그 덕분에 미술 사학자와 미술평론가로부터 관응 스님 그림이 내 그림 중 최고 득의작(得意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나는 작품을 보내는 게 못내 아쉬웠지만,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통해 그분을 기리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해 사욕을 버리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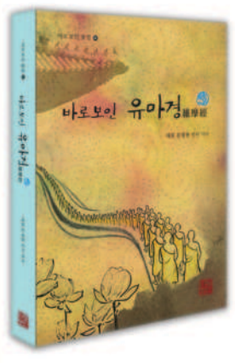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9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27권 출간! 파릉, 향림, 동산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 대원선사 토끼뿔 〉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 급 과 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1 고소득 작물 슈퍼도라지
- 슈퍼도라지 '씨' 비닐부착 판매 : 250평기준 50만원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3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3만원

2 하수오 씨
- 모종 예약 대량구매시 모종 1주 500원
- 종이컵 1개 분량 '씨' 1만원



• 하수오 된장 : 1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대행 스님

젖줄은 그대로 나한테 주어져 있으니 찾을 뿐이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남) 저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눈물 질질 흘리면서 34년이 지난 이날, 이제서야 어머니 고향인 이곳 큰스님 앞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원이 있어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 푸른 하늘 창공, 눈 없는 눈으로 길 없는 길을 찾아, 발 없는 발과 손 없는 손으로 두둥실 춤을 추며 큰스님 모시고 우주 삼천대천세계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이 미련한 놈은 엄마 배 속에서 막 나온 눈먼 장님입니다. 큰스님의 대비하심과 위없는 가르침을 엄마의 젖줄로 삼고 유생 무생 만물만생을 도반과 스승으로 삼아 올바르게 탕탕하게 평등한 자비심을 두루 갖추어 큰스님 같은 대장부가 되고 싶습니다.

큰스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욕심내려면 큰 욕심 내고 도둑놈 되려면 큰 도둑놈 되라고 가르치셨기에 이 미련한 놈이 큰 욕심을 내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통째로 집어삼킬 큰 도둑놈이 되려고 왔습니다.

큰스님 되려고 해도 아니 되고 다 집어삼키려고 해도 아니 되고, 또 나하고 같이 한다고 해도 아니 되고 또 아니 한다 해도 아니 되고….

그런 사량은 다 버리고 오직 한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마음이 일체 닥치는 대로 다 집어삼킬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그대로 여여하게 그대로 발을 떼어 놓고 다니다 보면 날아도 다니겠지, 날개가 생겨서. 그리고 또 구석구석 이 자기가 없어야 그것이 일치되는 거지 자기가 있다면, 배울 수 있는 자기 못난 놈이 있다면 아니 되지.

못난 놈도 없고 잘난 놈도 없어야 되겠지. 그 못난 놈이 있다면 어떻게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가, 둘이 아니게. 내가 없어야 벌레 하나라도 버리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있다면 벌레 하나뿐만 아니라 모두 미운 거 다 버려야 하고 나쁜 거 다 버려야 하고, 이렇지 않은감? 좋은 것만 차지하고. 그러니 좋은 것을 차지할 때는 나쁜 것도 또 생기게 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 소리죠.

그러니 모든 일체를, 벌레 하나까지도 다스릴 수는 없게 되지. 그러니 못난 놈까지 버려. 배워야 하겠다는 그놈이 버려. 그냥 버리라는 게 아냐. 죽어야 죽은 세상을 보지 어떻게 살아 가지고 죽은 세상을 다 알 수 있겠나. 안 그런가?

질문자3(남) 예, 옳으십니다.

큰스님 그래서 진짜 욕심이라는 건 욕심을 내지 않고 욕심이…, 욕심이라는 건 말뿐이야. 진짜 자비한 사람은 욕심도 없고 욕심 아닌 것도 없고 다가오는 거 겁내지도 않고 다가오는 거 탐내지도 않고, 그냥 허공과 같아.

그러니까 그 허공 같은 마음이라야 내가 찰나찰나 나투어 화하고 또 응해 주고 나 아니 되는 생명들이 없이 되지. 첫째는 벌써 내 몸 안의 생명들을 나하고 둘 아니게 조복을 받지 못해. 내 안에 있는 생명들을 나하고 둘 아니게 조복을 받아야 상대 모든 거하고도 둘 아니게 되고 역대 조사들 부처님하고도 둘 아닌 자리가, 한자리가 돼 버려. 내가 대천세계니 삼천대천세계니 온통 우주 천지를 다 집어삼키고 싶어도 그건 엉뚱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한 생각을 다 놓고, 요만한 거 하나를 조복 받을 수 있어야 그만한 것도 조복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야.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되지 않았으면 그 집이 무너지게 돼 있어. 알았죠?

질문자3(남)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심하겠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그래서 버리는 사이 없이 버려라. 내가 이런 말을 지난번에 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부처님께서 말씀시기를 '공했느니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그냥 여여하니라.' 이런 말씀 그 한마디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아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 발자국 떼어 놓고 다니는 것도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죠? 보면 본 것이 없어지죠? 들으면 들은 게 없어지죠? 온통 없어지는 것뿐이야. 보이는 것뿐이고 없어지는 것뿐이니, 보는 것대로 없어지고 듣는 것대로 없어지고 움죽거리는 대로 없어지니 어디 붙들 게 있어서 내가 있단 말이오? 응? 하도 이것저것 너무나 할 게 많고 한 게 많아서 아예 했다는 말도 못하고 한 놈도 없어지고 말아 버렸어.

지금 현실이 그러해요. 현실이 그러한 거는 한생각에 백지장을 벗어나질 못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세상에 내 생명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다 버렸다면 뭣이 겁나는 게 있겠소?

하늘이 무너진대도 겁나는 게 없을 거고 나를 마구니가 와서 다 집어간대도 겁날 일이 없고, 칼이나 총이나 가지고 와서 죽인다 하더라도 겁날 일이 없고, 아무것도 겁날 일이 없을 때, 그냥 여여할 때, 언젠가 육조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말을 했죠. "내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여여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걸 어찌 알았으리까." 하신 말씀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세워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놓고, 젖줄은 그대로 당신한테 주어져 있으니까 찾을 뿐이지 뭘 욕심내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런 엄청난 생각에 잠기면, 망상이 휘몰아치면 오히려 들뜬 미친 사람이 되니까 절대로 안정하고 진짜로 믿어요. 내 뿌리를 진짜로 믿어요. 그 뿌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그냥…. 불성이 바로 뿌리니까.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옛날에 어느 조사님들이 죽 앉으셨는데 어느 학인이 들어와서, 그 변재가 유명하더랍니다. 선지의 변재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보게, 자네 차 마실 줄 아나? 차 마실 줄 알걸랑은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 했더랍니다.

차 마실 줄 아는 사람이라야만 되는데 차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 그 변재를 늘어 놓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변재를

☞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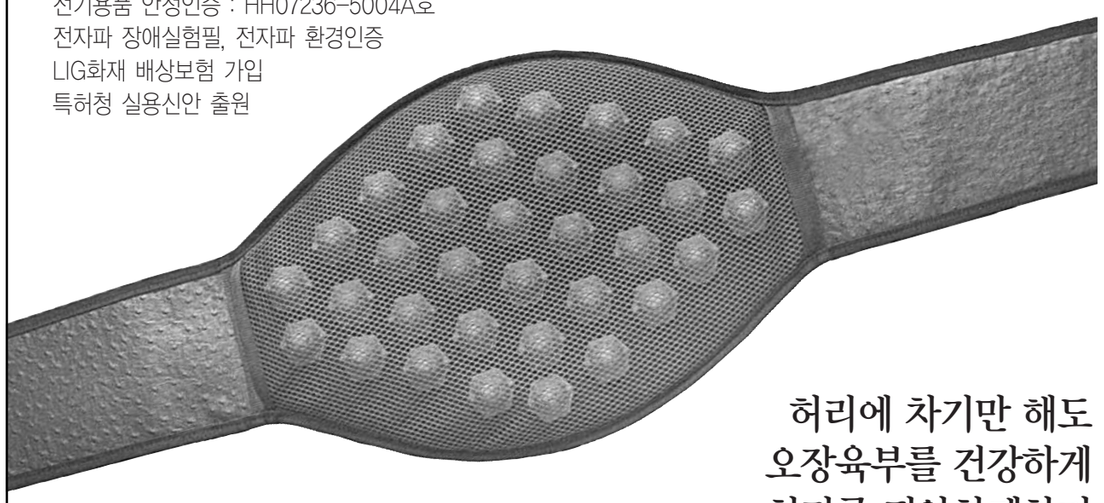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모든게 그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니 그 한 구멍에 놔라!

☞ 21면에서 계속

가지고, 말을 가지고 법을 실천할 수는 없다. 즉 말하자면 공법을 실천할 수는 없다 이 소리죠. 편히 앉아서 해요.

질문자4(남)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뭐 말재주도 없고 이런데 지난 촛불재 지낼 적에 말입니다, 첫날은 잘 몰랐는데 둘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이 속에서 뭉클뭉클한 눈물이 콱 나더라고요. 스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해서 인사 올릴 겸 그래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런데 그 눈물이 나는 것은 안의 참 자기와 이 부처님의 뜻과 동시에 통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의 눈물이죠.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고 또 번뇌 망상, 운명 팔자가 무너지는 눈물이고, 그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질문자4(남)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4(남) 그리고 그다음에 말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책을 다시 보니까 그 줄에 그게 안 띄어요. 처음에 그게 딱 보이더니만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그게요. 나타났다 들어갔다 그러는 모양이죠?

큰스님 그렇게 자꾸 해 나가세요. 자꾸자꾸 그렇게 될 때에는 통신이 되고 문이 열리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있다 보면 문이, 문 아닌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질문자5(남) 생활 속에 있었던 조그만 이야기를 스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을 잠그려고 열쇠를 돌리는데 열쇠가 부러지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스님께 묻고 싶은 것은 좋다 나쁘다는 것이 업식에서 나오는 것인지, 근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큰스님 자기 마음이 깨이질 못했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 속의 의식들에서 나오는,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의식들을 전부 전체 다스리고 가는 중심처는 뭐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고 움죽거리지도 않고, 힘만 배출해 주는 심봉이니까요.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모든 게 그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한 구멍에 놔라 이 소립니다.

좋은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고 나쁜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다가 놔라 하는 것은 그것을 다, 좋다 나쁘다를 소멸시키고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게 법이에요. 그 가운데서.

질문자5(남)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6(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제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그 질문이 큰스님께서 법문하시는 중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계속 관하고 가다 보니까 믿음이 크게 생기면서 어떤 괴로움이나 즐거움 그리고 욕망, 그런 걸 다 하긴 하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긴 하되 하지 않는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깨지려야 깨질 수가 없고 어떻게 주려야 줄 수 없는 그 자리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괴로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괴로움까지도 다 놓고 가니까 환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잘못된 공부라면 처음부터 다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큰스님 아니죠. 아주 잘해 나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걸어올 때에 발자취를 자동적으로 버리면서 지금…, 올라오긴 올라왔죠. 그러니까 걸어오는 사이 없이 걸어왔다, 이 소리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이 없이 한다.

생각나는 사이 없이 생각이 났다. 그러니 그거를 다 놓고 그냥 갈 줄 알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해요. 놓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진짜로 믿고 놓고 갈 수 있다면 됩니다.

질문자6(남)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부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 속에서는 그것이 전부터 한가지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가 다 있지만 한 가지라고 느껴 가지고 스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오, 그래요. 삼천대천세계도 일심으로 돌아가니까요. 미래도 현실이요, 과거도 현실에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천당 지옥도 따로 없이. 그러니까 그 또한 그럴 테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 그 뜻을 알고 행한다면 그대로 법이 아니겠어요?

질문자6(남) 감사합니다.

질문자7(여) 스님,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제가 선원에서 질문드릴 기회가 있으면 우주, 상생계나 혹은 우주인들의 생활 모습 또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다는 생각을 해 왔었는데 오늘은 질문을 드리려는 생각 없이 그냥 안양에 공부하러 간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 평소에 잘 안 오시는데 오셔서 어젯밤에 저의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사를 앞두고 이삿짐도 싸야 되는데 '안양에 간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주인공, 그냥 나는 간다.' 그러고 새벽 한두 시쯤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 갈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머니. 안양에 공부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이상한,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새벽에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너무 생시같이 나타나서 쩡 울리는 목소리로 "내 옷이 왜 이러하냐. 내 옷이 참 더럽다." 그러는데,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팔 부분하고 겨드랑 밑에는 곰팡이가 막 슬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놀라 가지고 딱 쳐다보시니까 그 옆에, 밑에는 남색 치마를 입고 위에는 진달래색 저고리를 입은 여자 분인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없는 사람이 서 있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내가 그거 고쳐 줄게요." 그러면서 가위를 가지고 아버지 두루마기의 곰팡이 있는 부분을 다 자르니까 그 옆에 섰던 얼굴이 없는 그 여자 분이 화장실 쪽으로 막 도망을 가더라면서, 그게 뭐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어머니, 어머니께서 꿈속에서 나쁜 것을 가위로 탁 제거해 주셨으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주인공, 옷이 더럽다는 건 무슨 뜻이지? 주인공,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해 주리라고 믿는다. 주인공, 부탁한다.' 고 이렇게 생각을 함과 동시에 마산지원 스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과 저승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아마 자식 된 도리로서 제가 해야 되는 어떤 도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늘 버스를 타고 오다가 내릴 때쯤 됐는데 마산지원장 스님께서 질문 있으신 분은 생각을 한번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는 생각 안 하고 '주인공, 질문이 있으면 주인공이 하라.' 그렇게 관하고 눈을 탁 감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머니하고 나누었던 그 얘기가 강력하게 머리를 진동을 하면서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자리에 놓으면서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 내가 대중들 앞에 좀 나서기가 그렇다고, 주인공 심부름이라면 해야 되고 주인공이 다 하는 거라고 관하니까 제 내면에서 잘 갔다 오라던, 어머니의 두 눈동자가 탁 클로즈업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시기 때문에 이 공부에 대해서 마음을 깊이 나누어 본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잘 다녀오너라." 하는 그 까만 두 눈동자가 가슴에 꽉 메이면서 가슴이 그냥 뭉클한 겁니다.

그래서 아, 어떤 뜻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직 어려서 정신세계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스승님 계실 적에 여쭤 뵙고….

큰스님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환생이…, 천도가 됐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순간에 말입니다, 그 곰팡이 나고 더럽고, 왜 이렇게 추저분하고 더러우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위로다 곰팡이 난 거를 다 잘라 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곰팡이 난 게 없이 환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환생이라는 것도 차원에 따라서 환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얼굴 없는 모습이나 어떠한 얼굴로 나오든지, 여자로 나오든지 뭐, 그 여자로…. 과거 태어나시기 이전에 여자였던 모양이죠. 아버지로 태어나시기 이전에 여자의 영혼이 바로 태어나선 남자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얼굴이 바뀐, 바로 얼굴 없는 여자죠. 그러니까 전생의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다 잘라 버려 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영혼의 근본만이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소생은 됐습니다. 허허허허, 좋으시겠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나가십니까? 성당에, 천주교?

질문자7(여) 어머니께서 선원 이야길 들으시면서 불교에 마음이 있어도 한평생을 성당을 다녔기 때문에 주위 눈을 봐서….

큰스님 아니죠. 그것은 마음이 제일이니까. 무슨 기독교를 나가든지 가톨릭교를 나가든지 불교를 나가든지 그 마음 모이는 자리는 한자리밖엔 없어요, 마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머니도 좋으시겠습니다. 하하하.

하여튼 오늘 이렇게 진행되고 잠시 잠깐이라도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도반 여러분! 우리가 몇 생을 지나 내려오면서 인연이 됐던 인연으로 우리가 또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라고 발길로 차도 안 가지는 이런 인연이 과거로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요다음 세세생생까지 우리가 이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이 수레바퀴 속에서 같이 벗어나서, 물론 죽고 사는 그 생사윤회에서도 같이 벗어나서 자유권을 얻고 자유자재합시다.

※위 법문은 97년 2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진짜 자비한 사람은 욕심도 없고
> 욕심 아닌 것도 없고 다가오는 거 겁내지도 않고
> 다가오는 거 탐내지도 않고, 그냥 허공과 같아.
> 그 허공 같은 마음이라야 내가 찰나찰나 나투어 화하고
> 또 응해 주고 나 아니 되는 생명들이 없이 되지.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나르센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나르센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돌쇠 KW-BS200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제수 운반
고소 연등 설치
전지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써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장!"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불자 세상보기

인문학은 상상력 · 창의력의 원천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예로부터 인문학은 인간의 무늬와 향기와 가풍을 탐구하는 학문이었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을 본령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에 관한 학문으로 존재해 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근원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넓은 의미의 인문학에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넓은 의미의 인문학이 제시하는 본래적 의미는 간과한 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대응하는 좁은 의미의 인문학으로 학문적 범주를 가두고 있다.

본디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로 분류되는 인문학 내부에도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분류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적인 결이 내재되어 있다. 지금은 이들 사이에 내재하는 근원적 물음에 대한 상호 소통의 결을 찾아내어 융복합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할 때이다.

최근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국 학생 대표자 1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문학보다 취업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대학과정을 마치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다시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말은 인문학 계열 학과의 학생들도 전공보다 취업을 우선해서 공부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취업'은 생업이다. 생업은 인간으로서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대책이다. 문제는 취업 즉 먹고사는 문제만 고민하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교육부가 인문 사범 계열 학과의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시사해 놓은 상황을 감안하면 황 장관과 교육부 관료들의 인문학 인식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지난 주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학 진흥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발표자들은 대학인문학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낮은 취업률과 모호한 취업 분야 △과학기술 분야나 경제, 경영학과 같은 분야에 비해 비전문적으로 보이는 지식 능력 △표준화시키기 어려운 전공 지식(졸업 때 기대되는 혹은 향상되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 △인터넷 상의 인문학 정보가 범람하는 속에서 대학인문학의 특성이 불분명해짐) △전문화된 인문학의 사회적 적합성 모호(읽히지 않는 전문적 인문학 논문과 저서들)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인문학자들의 '대학인문학의 진흥방안'은 △인문대학원의 정예화와 내실화 △ 인문대학과 사범대학 간의 장벽 제거 △학문간 장벽을 넘어선 문-이과 통합적 학사교육 △융합전공 분야(지역학, 문화학, 치료인문학, 디지털인문학)의 개발 △평생교육과정, 타학문 연구자를 위한 기초인문학 과정 개발로 제시됐다.

여기에 덧붙여 토론자는 △과감한 재정지원 및 여타 정책적 지원(인문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오도록 만드는 특단의 조치) △매체환경의 변화가 클수록 사회 전체가 책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 위해 대학입시에 논술비중 확대 방안 △우리 과거의 인문 전통과 서양인문학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제3의 인문학적 담론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살과 복약이 많아지는 궁핍과 우울의 시대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시민 개개인들에게 인문적 성찰의 능력은 더욱더 내면화되어야 한다. 인성이 사라지고 인격이 함몰되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는 자본만을 최고의 진리이자 도덕적 가치로 여기고 살 것인가? 바른 인성으로 재화를 창출하고 바른 인격으로 소득을 분배하는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려는 노력은 왜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가? 인문학의 힘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이자 새로운 의미와 가치의 부여에 있다. 인문학의 힘은 더 맛있는 밥을 짓게 하고 더 멋있는 떡을 빚어내는 동력이다. 인문학은 취업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창업의 아이디어를 부여한다. 인문정신은 수동적 취업뿐만 아니라 능동적 창업도 독려해 주고 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와 같은 창업자는 인문학의 힘을 보여준 이들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청년마음출가학교 회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으로 월정사에서 개최된 '청년마음출가학교'가 2월 4일부터 15일까지 8박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향했다. 지치고 힘든 청년들에게 출가학교는 불교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보여줬다. 참가자들의 소감문 일부를 발췌한다. 〈편집자주〉

마음의 절을 짓고 불자로서 살겠습니다

내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청년마음출가학교에 오기 전에는 심신이 아주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취업을 앞둔 상황에 불안함과 조급함에 늘 답답함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에 휘둘려 제 자신을 비교하고 더 밑으로 끌어내리곤 했다.

처음 입학 했을 때는 반신반의 했다. "과연 내가 8박 9일 이라는 시간동안 다른 취업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하루가 지나날부터 완전히 사려졌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제 저에게 남은 숙제는 "이곳을 떠나 제자리로 돌아가서 얼마나 이 마음을 유지 하는가"이다. 마음에 절을 짓고 늘 수행하는 행자의 마음으로 불、법、승에 귀의 하는 불자가 될 것이며 제 인생에 고통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바라보고 그를 내려놓을 수 있는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참가자 김아경〉



월정사 청년마음출가학교에 참가한 청년들이 부도전 앞에 눈사람을 만들고 즐거워하고 있다.

출가학교는 평생의 기본될 것

오기 전에 나는 컴컴한 어둠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고 이 기분을 그냥 무시하려고만 했다.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잊혀 져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청년마음출가학교에 와서 느낀 건 무시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8박 9일 동안 너무 좋았던 것 같다. 밖에서는 힘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것 같다. 너무 좋았던 것은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고 좋은 공기와 경치를 보면서 얼어붙었던 마음도 풀려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밤 별칩 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본 별똥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다. 8박 9일 동안 절제되어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이 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불행과 행복은 한 끝 차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다. 아직 더 나를 가다듬는 수행이 필요할 것 같지만 8박 9일 동안에 청년마음출가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평생 나의 기본이 되어 질 것이다. 〈참가자 정민영〉

인연 공덕이 변함없길

마지막 공식 일정인 별빛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동안 저 밤하늘에서 혼자만 반짝이려고 했구나!" 이렇게 어두운 밤, 수많은 별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장관에 저는 한없이 작아졌다.

월정사에서 내려간 제 모습은 많이 달라져있을 겁니다. 하늘 위 움직이는 별, 스튜어디스를 꿈꾸고 왔던 꿈은 이제 조금 접어두고 인생을 즐기는,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만 반짝이려고 하지도 않겠지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두운 밤을 수놓는 별이 되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여기서 쌓은 혹은 쌓인 인연이 변화는 있어도 변함은 없기를 기도합니다. 〈참가자 남유진〉

社說

학회지 전자저널화, 불교학계 고민해야

불교학계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인 '잼스'(JAMS,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를 두고 장고하고 있다.

'잼스'는 학술진흥재단이 2013년부터 학회 운영 전산화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학회 홈페이지부터 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일정, 회원 관리 등을 통합한 것이다. 논문투고 및 심사, 전자출판, 그리고 학술진흥재단 쪽으로의 학술정보 제공까지의 학회 행정업무가 일원화되어 있다. 학술진흥재단은 권장사항으로 서버와 홈페이지 등 이 시스템을 현재 무상보급하며 학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잼스 시스템을 도입한 학회는 370곳, 신청 학회가 200여 곳을 넘어섰다. 올해까지 600여 곳이 잼스 시스템을 운용한다.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학회 2100곳 기준 30% 수준으로 올해부터는 일반학회도 신청을 받기에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불교계에서는 12개 학회 중 한국선학회와 불교학연구회 2곳이 잼스를 도입했다. 두 학회는 최근 학회지 투고논문을 '잼스'를 통해 받는다고 공고하기도 했다. 잼스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편집기능 저하와 학회 운영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논문 심사를 위해 잼스에 가입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잼스 도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잼스를 도입한 불교학연구회는 불교학계 최초로 학회지를 전자저널로 전환했다. 불교학연구회의 〈불교학연구〉는 전자책(ebook)과 PDF파일 두 가지 형태로 간행되며, 회원들에게 이메일 형태로 발송한다.

이를 두고 조은수 불교학연구회장은 "전자저널화는 학회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다. 학회지 전자저널화는 분명 관련 논문 검색을 용이하게 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30주년 맞은 '불레협'에 거는 기대

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는 교계에서 유일하게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불교를 쉽고 재밌게 포교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지난 1985년 창립한 불레협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불레협은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율동 강의, 음악지도법 등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과정을 통해 300여 지도자를 배출해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앞장서는 전법단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꽃인 여름·겨울불교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현재까지 54회나 열면서 3만 여 수료자를 배출해 포교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1994년 7월에 마련된 어린이 여름 캠프는 교계에서 불교 어린이 캠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사찰과 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단체들의 법회와 행사, 사찰 여름·겨울 불교학교 및 수련회 등을 기획하고 지도자를 파견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법회 활성화와 포교의 전법자로서 역할도 다한다.

불레협은 시대에 맞게 온라인 활동도 강화했다. 2000년 다음카페에 이어 2004년 홈페이지를 오픈해 보다 많은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수도권 어린이·청소년 법회 활성화를 위해 대한불교교사대학 서울캠퍼스 운영, 법회개설지원, 어린이 찬불율동제, 전국어린이연꽃노래잔치, 자료집과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06년까지 꾸준한 정기 문화강좌를 열던 불레협은 올부터 다시 강좌를 연다. 교리전달법, 공예체험, 찬불가 지도법, 놀이와 게임을 법회에 바로 사용토록 구성할 예정이다. 불교레크리에이션은 이제 시대에 맞는 포교를 위해 꼭 필요한 포교방편이 됐다. 30주년을 계기로 지도자들이 더욱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정법의 원류

조계종 수덕사 문중인 경허, 만공, 전강 대선사님으로 이어진 법맥과 국내유일의 용성 진종 대선사님의 강맥을 한 몸에 받아 지닌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



▲ 대원(大圓) 문재현(文載賢) 선사

♣ 선종 공안의 기원 - 염화미소

세존께서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자 이때에 대중이 모두 그 뜻을 몰라 묵묵히 있는데 오직 가섭 존자만이 미소를 지었다. 세존께서는 "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 열반묘심(涅槃妙心), 실상무상(實相無相), 미묘법문(微妙法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이 있으니 마하가섭에게 부촉(付囑)하노라."라고 하셨다.

이 공안(公案)은 선종(禪宗) 공안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 불법의 골수 - 공안법

말법시대에 이르러 최상승 공안도리에 어둡다 보니 요즘 국내에서 손꼽히는 선도량에서도 공공연하게 공안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설하고 있다 한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당초에 깨달음 이외의 다른 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며, 더욱이 영산회상에서 마하가섭에게 바로 이 꽃을 들어 보인 공안도리로 법을 부촉하셨다. 그러므로 공안은 깨달음에 곧바로 이르르는 최고의 방편이자 불법의 핵심, 골수라고 할 것이다. 헌데 현대에 맞게 이러한 공안도리를 제창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안법을 부정하는 것은 불법의 교조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공안에 대한 바른 안목을 열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바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인가받지 않으면 천연외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 말법시대라고 칭하신 이 시대에 스스로 깨달았다 하고, 공안을 거론하며 교화하고 있는 것을 과연 좋다고만 할 일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안법으로 교화한다는 것은 수월한 일일 수가 없으니, 깨달아 일체종지를 통달해야만 공안법에 막힘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3000여년 전 당시부터 이 시대의 불법을 이미 상세히 예언해 놓으셨으며, 이때를 대비하여 인가법을 두셨다. 부처님의 이름을 빌고, 불법의 탈을 쓰고 수많은 사도의 무리가 불법을 해친다는 이 혼란스러운 말법시대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대비해 놓으신 인가법이야말로 정법과 사법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전법하신 바를 소중히 지켜가되 또한 인가받지 않으면 천연외도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정법의 맥 - 인가의 맥

이 말법시대에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온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 미묘법문, 불립문자, 교외별전의 심인을 인가받아 교화의 선봉에 서 있는 선지식이 있다. 전강(田岡) 영신(永信) 선사의 법맥과 더불어 용성(龍城) 진종(震鍾) 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아 지닌 대원(大圓) 문재현(文載賢) 선사가 그분이다.

부처님으로부터 28대인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 초조가 되어 단비구법(斷臂求法) 등의 수없는 일화를 남기며 전해져 다시 해동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근대에 있어서 경허, 만공, 전강 선사에게로 이어진 이 법맥을 전강 선사는 대원 선사에게 전하였다.

♣ 전강 선사의 법맥
- 대원 선사에게로

1956년 21세 때, 전북 고창 선운사 도솔암에서 지내던 중, 소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에 활연대오한 후, 대원 선사는 당대의 10대 선지식인 전강, 우화, 경봉, 동산, 금오, 설봉, 금봉, 고봉, 춘성 선사 등을 모두 친견하여 문답을 나누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경봉 선사와의 문답이다.

당시 한 곳에 주석하지 않고 전국을 떠돌던 전강 선사를 친견하기를 고대하던 중, 전강 선사로부터 법을 깨친 원광 김경봉 선사가 양산 통도사 극락암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뵈었다.

때는 늦가을이라 경봉 선사는 앞 텃밭에서 감을 따고 있었다. 대원 선사가 예를 갖추고 우뚝 서 있으니, 경봉 선사가 눈길도 주지 않고 감을 따며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호남에서 왔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는가?"

"선(禪)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인가?"

마침 경봉 선사가 막 장대 끝에서 감을 빼는 찰나에 대원 선사가 번개같이 답하였다.

"감이 붉습니다."

이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던 경봉 선사가 대원 선사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감을 따면서 물었다.

"그대가 불법을 아는가?"

"알았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경봉 선사를 비롯하여 이렇게 여러 문답을 나눈 대원 선사가, 모시고 지내기가 그렇게 소원이던 전강 선사를 군산 은적사에서 모시게 되었다.

모시고 지내던 때는 가을 추수가 한창일 때였다. 추수일을 하다 점심 공양을 하고 잠시 쉬는 사이, 법당 앞마당에서 전강 선사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때 전강 선사가 갑자기 대원 선사에게 물었다.

"공적(空寂)의 영지(靈知)를 이르게."

"이러-히 스님과 대담합니다."

"영지의 공적을 이르게."

"스님과의 대담에 이러-합니다."

전강 선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점검하였다.

"어떤 것이 이러-히 대담하는 경지인가?"

"명왕(明王)은 어상(御床)을 내리지 않고 천하 일에 밝습니다."

이러한 문답이 있은 후, 대원 선사가 다시 전강 선사를 모시게 된 것은 1962년 전강 선사가 대구 동화사의 조실로 있을 때였다.

하루는 전강 선사가 대원 선사의 3연으로 되어 있는 제1오도송이 길다고 말하였다. 대원 선사는 이때, 김제의 들을 지나다가 석양의 해와 달을 보고 문득 읊었던 제2오도송을 일렀다.

해는 서산 달은 동산 덩실하게 얹혀 있고
김제의 평야에는 가을빛이 가득하네
대천이란 이름자도 서지를 못하는데
석양의 마을길엔 사람들 오고 가네

제2오도송을 들은 전강 선사가 이어서 그와 같은 경지를 담은 게송을 이 자리에서 즉시 한 수 지어볼 수 있겠냐고 하였다. 대원 선사는 곧바로 다음과 같이 읊었다.

바위 위에는 솔바람이 있고
산 아래에는 황조가 날도다
대천도 흔적조차 없는데
달밤에 원숭이가 어지러이 우는구나

위 송의 앞의 두 구를 들을 때만 해도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던 전강 선사가 뒤의 두 구를 마저 채우자 문득 눈을 뜨고 기뻐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러나 전강 선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물었다.

"대중들이 자네를 산으로 불러내고 그 중에 법성(향곡 스님 법제자인 진제 스님, 동화사 선방에 있을 당시에 '법성'이라 불렸고, 나중에 '법원'으로 개명하였다.)이 달마불식 도리를 일러보라 했을 때 '드러났다'고 대답했다는데, 만약 자네가 당시의 양무제였다면 '모르오'라고 이르고 있는 달마 대사에게 어떻게 했겠는가?"

대원 선사가 답하였다.

"제가 양무제였다면 '성인이라 함도 서지 못하나 이러-히 짐의 덕화와 함께 어우러짐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하며 달마 대사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것입니다."

전강 선사가 탄복하였다.

"어느새 그 경지에 이르렀는가?"

"이르렀다곤들 어찌 하며, 갖추었다곤들 어찌 하며, 본래라곤들 어찌 하리까? 오직 이러-할 뿐인데 말입니다."

대원 선사가 연이어 답하자 전강 선사가 이에 환희하니 두 분이 어우러진 자리가 백아가 종자기를 만난듯, 고수 명창 어울리듯 화기애애하였다.

이런 철저한 검증의 자리가 있은 후, 전강 선사는

부처와 조사도 일찍이 전한 것이 아니거늘
나 또한 어찌 받았다 하며 준다 할 것인가
이 법이 2천년대에 이르러서
널리 천하 사람을 제도하리라

라는 전법게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부송을 주어 대원 선사를 전법제자로 인가하였다.

어상을 내리지 않고 이러-히 대한다 함이여
뒷날 돌아이가 구멍 없는 피리를 불리니
이로부터 불법이 천하에 가득하리라

♣ 용성 선사의 강맥
- 대원 선사에게로

또한 2009년 8월 9일 국내의 북방, 남방의 양대 강맥을 전하는 전강 대법회에서 대원 선사에게 양대 강맥을 전하는 신표로서 금강산 강맥의 불자와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가 함께 전해졌다. 특히 용성 선사로부터 봉암 대희 강백에게 이어진 전강의 강맥은 그대로 전법의 법맥과도 같다고 할 것이다. 스승인 전강 선사 역시 수덕사 만공 선사와 해인사 용성 선사의 법을 한 몸에 받았으니, 그 스승에 그 제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이근원통법(耳根圓通法)으로 깨달음의 문을 열다

대원 문재현 선사의 교화의 행보는 참으로 다양하고 활발발해서 무엇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이다. 우선 불법을 선양하는 제일의 일은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불법의 정신자(正信者)를 내는 일일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법시대에도 무량천만 불소에 선근을 심은 이가 깨끗한 믿음을 내리라고 하셨다.

대원 선사는 깨달은 이후 오랜 보림과 교화를 통해 현대인들이 사무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불법의 정신자를 내었다. 이 지도법은 부처님께서도 능엄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이근원통으로 관세음보살이 깨달았으며, 이것이 욕계의 중생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셨다.

대원 선사는 '이 뭐꼬' 화두를 피상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관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여) '이 뭐꼬' 화두 자체가 마음에 일체되게 하는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소리를 보아 이근원통하는 법으로 스스로의 마음에 사무쳐 들게 하고 있다. 실로 육조대사 이후 앉은 자리에서 제접하는 대로 수행자를 깨닫게 하는 경우는 대원 선사가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 밀밀한 보림의 지도

깨달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깨달은 이후의 보림에 있어서도 "그 자체로 보라", "방심하지만 말라", "당초에 상을 보지 말라" 등등 실증에 입각한 보림구를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일상화하도록 단계적으로 밀밀하게 이끌고 있으며, 또한 "남보다 내가 한 삽 더 뜬다는 마음이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남의 종이 되라" 등의 수없는 명언을 낳으며 실생활 속에 불법을 실천하게 하고 있다.

♣ 전국의 불사와 법회

포천, 서울, 부산, 광주, 해남 등 전국에 성불사, 이룬절, 도봉사, 자모사, 육조사, 성도사, 대통사 등의 도량을 직접 건립한 것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이루는 행보였으며, 현재까지 전국의 모든 도량의 법회를 주관하여 선문염송 등 공안법문으로부터 금강경, 증도가 등의 선법문을 쉬지 않고 있다.

♣ 불서 편찬
-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불법을 드날리다

뿐만 아니라 80의 노구로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일정 속에서도 전등록, 선문염송, 무문관, 벽암록 등의 선종 최고의 공안집과 금강경, 반야심경, 유마경 등의 경전, 신심명, 증도가, 선가귀감, 법융선사심명, 법성게, 현종기 등의 조사어록, 불법과 선문의 가장 근간이 되며, 난해하다고 일컬어지는 모든 서적들을 바로 보이는 번역으로 출간해 내었으며, 시송과 평창을 통해 이 시대에 알맞게 새로이 제창하였다. 현재에는 화엄경 80권 역경작업이 진행중이며 해동전등록, 선문용어사전 등의 원고도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바른 불자가 됩시다 등으로 일반인이 쉽게 불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문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대원 선사의 저서인 실증설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번역되고, 화두, 불조정맥 역시 한영중 3개국어 판으로 출간되어 전세계에 불법을 널리 알리고 있다.

♣ 지구를 경영하자
- 지혜의 빛을 만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법을 수호하고 선양하는 행보로부터 이 지구를 죄없이 살 수 있는 별로 만들어 미래의 모두가 수행하는 큰 수행도량으로 이루어놓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사막화방지 국제연대(IUPD)'를 출범시켰다. 본성의 지혜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며, 본성의 지혜에 더 버금갈 것이 없다고 하며 지구뿐 아니라 우주도 경영해내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이가 인연이 있는 곳에 다시 태어나기에 지구를 살피는 일은 미래의 나의 일, 나의 자손의 일이라고 하며 사막의 확장을 막는 일과 사막을 경영하는 일, 황무지를 초원화하는 일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에서 사막화 방지 대책을 공개하여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공화국과 협약을 맺었으며, 현재 두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치고, 황무지를 초원화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 이변과 사변으로 종횡무진
- 살아있는 선의 모습

부처님의 무궁한 지혜는 시공을 초월하여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하고 그 법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구류를 구제하였다. 이러한 일은 불법이 아니면 안되고, 불보살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 이 시대에 이변과 사변에 통달하여 막힘없이 종횡무진하며 살아있는 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원 선사의 행보는 말법시대에 희유한 불법의 지표라 할 것이다. 이것이 120세를 예언하고 사는 대원 선사의 남은 40년 교화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 경기도 포천 성불사 대웅전



▲ 대원 선사님 출간 저서 70권

